

문화 + 0 서경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01



서울문화재단



08

광화문광장이 빛으로 수놓아진다. 그 빛은 서울의 600년 역사를 관통하는 시간으로, 시민들과의 문화적 소통을 시도하는 공간으로, 모양새를 달리하며 추위에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52

도시에 색을 입히자. 흉물스런 속내를 보여주지 싫다면 그 앞에 예술을 덧입자. 서울의 거리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는 아트펜스는 그 너머의 완성되지 않은 미래를 담아냈다. 서울 곳곳의 아트펜스를 둘러보는 예술기행을 떠나본다.



60

그의 곁에 서면 흑연 냄새가 난다. 잘 말린 나무 냄새가 난다. 그 냄새가 그리워 그의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든다. 우리 문학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서 있는가.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이자 소설가인 박범신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COVER STORY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2009 서울빛축제 시작되었다. 빛, 예술 과학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일상 속에서 미디어아트를 만나는 축제의 장으로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것이다.

표지 작품 | 우혜민의 'Zipper Pipe'
표지 사진 | 김태환 (플레이포토 스튜디오)



Contents

02 CULTURAL NEWS 1월의 공연전시 소식

1월의 문화+서울

- 08 희망이 빛은 빛의 스펙트럼을 향유할지니 - 2009 서울빛축제 둘러보기
- 12 2009 서울빛축제 가이드맵
- 14 사진으로 보는 2009 서울빛축제
- 18 시민을 주인공으로, 축제의 주체로 이끄는 빛 - 2009 서울빛축제 예술감독 김형수 인터뷰

다시 보는 서울

- 22 이경민의 경성 산책 구보씨, 이발소에 가다 (상)
- 30 비하스드 모바일 DJ를 만나다
- 36 IMAGE SEOUL 손

지금 서울은

- 40 HOT SKETCH 2010 새로운 문화지형 - 낭독 문화의 재발견
- 46 HOT SKETCH 2010 새로운 문화지형 - 지역공동체 문화벨트
- 52 EMERGING SPACE 아트펜스, 도시에 꿈과 예술을 입히다 - 예술적 가림막 둘러보기
- 58 서울을 말한다 햇빛을, 표정을 조금만 더 붙들고 있어야겠다_시인 이병률

사람과 사람

- 60 FOCUS INTERVIEW 순례자의 눈으로 새해를 읽는다_ 소설가 박범신
- 66 YOUNG ARTIST 2009 친근한 낯설, 정정주의 도시 경험에 관한 미술 - 설치미술가 정정주

서울 안과 밖

- 70 OPEN REPORT_서울 너머로 모스크바, 연극으로 겨울나기 - 모스크바 극장 겨울 공연 프로그램
- 74 I AM A SEOULITE Seoul Arts Center ; a magical place
- 76 OPEN REPORT_서울 속으로 오늘은 우리가 대학로를 누빈다! - 수험생 DAY! 대학로 공연초대 이벤트
- 78 한 장의 심표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_소설가 손흥규
- 80 재단사업 어르신들의 꿈과 희망을 기록하다 - 결산 2009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 84 재단소식
- 88 문화 캘린더
- 93 독자엽서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 발행일 2009년 12월 26일 | 등록일 2005년 6월 8일 | 발행인 안호상 |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 홍보마케팅팀장 이현아 | 이승민, 변현정, 김민지, 신동석, 김보연, 나오미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130-823)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 홈페이지 www.sfac.or.kr

디자인 · 제작 AGI Society 02.3141.9902 | 사진 AGI Studio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의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르는 1st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공연예술 창작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로 우수 소극장 작품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시작된 2009 대학로 문화활성화 지원사업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에 선정된 작품들이 오는 1월부터 남산예술센터 극장에서 공연된다.

먼저 1월 8일부터 17일까지는 1511년 채수가 지은 한글소설을 이해제 작/연출로 다시 만든 연극 〈설공찬전〉이 무대에 오른다. 〈설공찬전〉은 저승에서 돌아온 설공찬이라는 인물이 사촌동생의 몸을 빌게 되면서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을 다룬 작품으로, 교묘한 언어적 유희, 날이 서있는 풍자적 대사가 시종 일관 웃음을 참지 못하게 하면서도 진지한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연출가 이해제의 〈설공찬전〉은 대학로 정보소극장 초연과 총무아트홀 앵콜 공연, 대학로예술극장 개관공연으로 선보이며 관객과 평론계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남산예술센터 무대에서는 규모와 작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관객들과 새롭게 만난다.

1월 23일에서 31일에는 동아연극상 새개념연극상, 올해의

예술상, 오늘의 젊은예술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연극계의 '앙팡테리블'에서 이제는 미래를 책임질 기대주로 주목을 모으고 있는 연출가 서재형과 극단 죽도록달린LLLLL다가 그들의 네 번째 작품 〈호야: 好夜〉를 선보인다.

조선시대, 세도를 잡기 위해 음모와 술수가 멈출 날이 없는 궁궐, 왕의 여자를 사랑한 남자와 그를 가슴에 품고 왕의 곁에 머무는 여자. 그들의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와 사람간의 정을 그리워하며 살던 궁궐 사람들의 애절한 사연이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펼쳐진다. 특히 〈호야: 好夜〉는 배우들이 대사뿐 아니라 지문과 해설까지 읽고 연기함으로써, 기존의 연극들을 갠 신선한 발상으로 호평 받은 바 있다.

한편,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연과 참여 예술가들의 재교육을 지원하며 이전의 공연지원 방식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2010년에도 계속된다. 자세한 일정은 1월 중 공지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공간지원팀 서울연극센터 (02-743-9332)로 문의 바란다.



〈호야: 好夜〉

〈설공찬전〉		조선,연정,스캔들, 〈호야: 好夜〉	
극단	신기루만화경	극단	죽도록달린LLLLL다
일시	2010.1.8~1.17 화~금 8시, 토 4시/7시, 일 3시	일시	2010.1.23~1.31 화~금 8시, 토 4시/7시, 일 4시 (단, 23일 토요일 낮 공연 없음)
원작	채수 〈설공찬전〉	작	한아름
각본/연출	이해제	연출	서재형
출연	임진순, 정재성, 최재섭, 김영은, 김은희, 박성연, 이장원, 김태욱, 하지성, 황도연, 이강, 윤희석, 김석기	출연	배우-조한철, 홍성경, 전미도, 이 원, 오찬우, 조시내, 김진아, 김은실, 민대식, 김성표 연주-이충우, 김준수 소리배우-박지아, 김정윤, 박지희, 이지연 외



한국 공연예술사의 흐름을 한 눈에 국내 최초 공연예술박물관 개관

국립극장(극장장 임연철)이 별오름극장 건물에 공연예술박물관을 개관, 상설 전시관을 일반에 공개한다. 공연예술박물관은 지하1층부터 2층까지 3개 층에 연면적 2851㎡ 규모로 들어섰다. 2009년 12월 먼저 공개된 상설전시실을 비롯해 기획전시실, 아카이브실, 수장고, 교육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상설전시실은 크게 '연대기 전시실'과 '주제 전시실'로 나뉜다. '연대기 전시실'은 국립극장사와 한국 공연예술사의 흐름을 다루며 연극, 무용, 창극, 국악 장르 등으로 구분한다. '주제 전시실'은 무대대상, 예술인 방, 무대 미니어처와 무대디자인, 소품 등을 선보인다. 박물관은 10만여 점의 국립극장 기존자료와 기증자료 1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 중 300여 점이 이번엔 전시된다. 지난 12월 23일 개관하였으며, 일반에는 24일부터 개방되었다.

어린이책의 흥미진진한 세계 2009 볼로냐 국제 그림책 원화전

일시 2009.12.23~2010.3.1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1,2,3전시실

문의 02-2106-5484



볼로냐 북 페어에서 매년 개최되는 '볼로냐 국제 그림책 원화전'은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부여되는 국제 공쿠르로, 다른 수많은 공쿠르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대규모 행사로 꼽힌다. 1967년부터 시작된 볼로냐 국제 그림책 원화전은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찾아왔다.

이번 전시에는 전시회의 초대작가이자 2008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상자인 로베르토 인노첸티의 작품 46점을 포함해, 국제 심사단에 의해 선정된 21개국 81명의 작가 403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2009 볼로냐 국제 그림책 공쿠르는 역대 가장 높은 경쟁을 보였던 만큼,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기성작가의 성숙한 작품들뿐 아니라 신진작가의 독창적인 작품도 포함돼 다채로운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일러스트레이터의 뛰어난 창조성과 놀라운 상상력을 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림책 원화전인 만큼 어린이를 위한 교육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전시장에서 원화 작품 감상 후에 <상상 보따리 - 너만의 움직임은 상상이야기 만들기>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이 직접 작품 제작 활동을 해볼 수 있다.



초대작가 로베르토 인노첸티의 작품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1월부터 티켓 시즌제 도입



최단 기간 1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연일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국내 최초로 월별로 티켓가격이 변동하는 '티켓가 시즌제'를 운영한다. 국내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최저가 티켓 시즌인 1월 공연을 12월 9일 오픈했다. 티켓 시즌제는 시기에 따라 공연 수요가 변화하는 점을 감안해 티켓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오페라의 유령>은 주중과 주말뿐 아니라 성수기와 비성수기도 구분해 티켓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따라서 비수기인 1월 공연의 경우 같은 좌석이라도 최대 성수기인 12월에 비해 3만원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1월 티켓가격은 VIP석 11만원(주말 12만원), R석 9만원(주말 10만원), S석 6만원(주말 7만원)으로, 12월 공연과 비교하면 R석 가격으로 VIP석에서 관람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시즌 할인뿐만 아니라 요일별, 시간대별로도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큼 미리 꼼꼼히 알아보고 예매하는 것이 좋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A, B석에 한정해 3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아트시네마에서 만나는 ‘할리우드 고전 특별전’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에서 연말과 새해를 맞아 ‘할리우드 고전 특별전’을 마련했다. 12월 22일부터 1월 3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을 비롯해, 전후의 암울한 분위기를 반영한 라울 월쉬, 독일 태생으로 할리우드에서 활동한 막스 오펔스, 장르영화의 귀재 하워드 혹스 등 1940~1960년대를 풍미한 감독들의 대표작을 모았다. 특히 29일에는 고전 영화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보는 심포지엄도 마련돼 있다. 김성욱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래머, 김영진 명지대 교수, 영화평론가 유운성 씨가 ‘영화의 고전을 다시 생각한다’는 주제로 함께할 예정이다. 상영작 목록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감독이름).

- ▲사느냐 죽느냐(에른스트 루비치) ▲유령과 뮤어 부인(조셉 L. 맨케비츠)
- ▲미지의 여인에게서 온 편지(막스 오펔스) ▲레베카(알프레드 히치콕)
- ▲화이트 히트(라울 월쉬) ▲러스티 맨(니콜라스 레이)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하워드 혹스) ▲실물보다 큰(니콜라스 레이) ▲슬픔이여 안녕(오토 프레민저) ▲허슬러(로버트 로젠)

일시 12.22~1.3
장소 낙원동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문의 02-741-9782



앤디 워홀의 위대한 세계展 서울시립미술관서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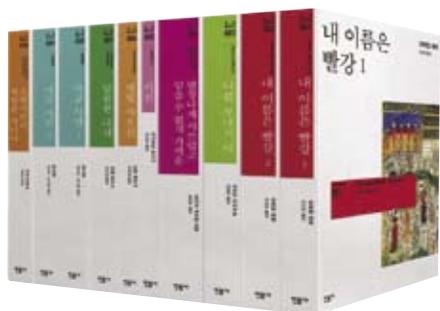
일시 2009.12.12~2010.4.4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문의 02-548-8690, www.warhol.co.kr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1928~1987)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앤디 워홀의 위대한 세계展’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의 초기부터 말년까지의 대표작 100여 점과 사진 및 기념물 280여 점 등 385점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워홀 회고전이다. 동아일보사, 서울시립미술관, MBC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2010년 4월 4일까지 이어지며, 인물 초상화 110여 점을 비롯해 영상과 사진, 기념물까지 총 400여 점으로 꾸며진다. 전시품은 모두 미국의 앤디 워홀 박물관이 대여한 것들이다.

마이클 잭슨과 비틀스, 마릴린 먼로와 같은 대중문화스타와 마오쩌둥, 아인슈타인 등 유명인들의 초상화, 코카콜라, 캠펠 수프 강통 등 워홀의 대표적인 실크스크린 작품, 수집품으로 알려진 워홀이 생전 수집했던 각종 문서와 책, 설치작품들을 볼 수 있다.

전시는 4월 4일(매주 월요일 휴관)까지 이어지며, 관람료는 어른 1만2000원, 청소년 1만 원, 어린이 8000원이다.

현대판 고전을 한눈에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모던 클래식> 발간



오르한 파묵, 가즈오 이시구로, 코맥 매카시, 지넷 윈터스 등 현재 가장 뜨겁게 주목받는 작가들의 대표작을 소개하는 젊은 문학전집이 발간되었다. 현대 독자라면 누구나 가깝게 즐길 수 있는 작품 10권을 꾸린 민음사의 <모던 클래식>. 1998년 세계문학전집을 발간했던 민음사에서 최근의 세계문학 흐름을 반영해 현대성을 가미한 작품들을 새로 내놓은 것이다. 이번 시리즈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로 유명해진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을 비롯해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 코맥 매카시의 「핏빛 자오선」 등 민음사 단행본으로 먼저 소개된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젊은 고전, 미래의 고전을 내세우며 선보인 이번 전집에는 앞서 언급한 작품들 외에도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러셀 벅크스의 「달콤한 내세」, 한 샤오공의 「마교 사전 1, 2」, 지넷 윈터스의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가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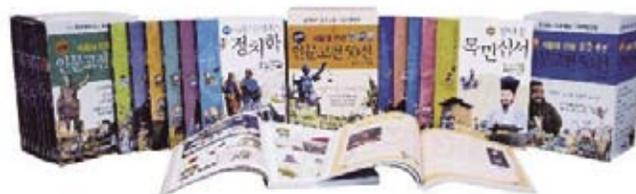
서울 강동구 영유아부모 전용극장 강동시네마 휴(휴) 개관

장소 강동어린이회관 아이누리홀
문의 02-486-3516

서울 강동구에서 강동어린이회관 아이누리홀에 영유아 부모 전용극장인 '강동시네마 휴(休)'를 개관했다. '아기를 돌보느라 지친 부모들의 휴식처라는 의미를 담은 시네마 휴(休)는 전체 좌석이 176석이며,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후 4시30분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는 아카데미·칸 영화제 등 국제영화제 수상작 가운데 작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선별해 상영하고, 입장료는 무료다. 또 부모가 영화를 보는 동안 영화관 바로 아래층에 있는 '동동놀이체험방'에서 아기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도 이뤄진다. 이용료는 아기가 1명인 경우에는 3천원, 2명은 5천원이다.

4년 반 만에 완간된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만화 50선>

주니어김영사가 2007년 7월부터 펴내기 시작한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50선>이 완간됐다. 서울대 인문학부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100선 가운데, 청소년에게 친숙하면서도 우선 읽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을 골라 만화로 그려냈다. 2005년 여름에 기획해 2007년 첫 책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나왔고, 12월에 마지막 권 「헤겔 역사철학강의」가 출간됐다. '어려운 고전을 10대들이 보기 쉽게 만화로 풀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번 시리즈에는 고전 저작별로 해당분야 전공자를 비롯한 글쓴이 50여 명, 만화가 70여 명이 참여했고, 채색작업에만도 50여 명이 투입됐다. 만화는 시각을 자극하는 원색 사용을 가급적 배제하고 부드러운면서도 코믹하게 그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췄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뉴턴 프린키피아」, 「루소 사회계약론」, 「마르크스 자본론」까지 서양(유럽)의 고전이 28권이다. 우리 고전은 「일연 삼국유사」부터 「정약용 목민심서」, 「최재우 동경대전」, 「신채호 조선상고사」 등 13권이 들어갔다. 「노자 도덕경」 「한비자」, 「간디 자서전」, 「순원 삼민주의」 등 중국과 인도의 고전도 9권 포함됐다. 김영사는 세계 최초의 방대한 이 고전 만화 목록을 내년 볼로냐 아동도서전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등에 출품, 해외 진출도 노린다는 계획이다.



노원구청에서 열리는 경인년 맞이 '호랑이 특별전'

일시 2009.12.23~2010.2.28
문의 02-950-3010

노원구에서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계획의 일환으로 12월 23일부터 2010년 2월까지 구청 1, 2층 로비 및 대강당에서 '호랑이 특별전'을 마련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살아있는 호랑이를 비롯해 각종 동물 박제 360점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그밖에도 민화전시, 희귀광물 전시, 3D 입체영화관, 호랑이 체험코너 등도 운영한다. 또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해 국내 자연사 유물 보유자들로부터 유물 활용 동의서를 받는 등의 활동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1

광화문광장에 빛과 자유와 소통을 꿈꾸는

2009 서울빛축제가 시작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2009 서울빛축제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김형수 예술감독에게 축제의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특집 1월의 문화 + 서울

- 1 희망이 빛은 빛의 스펙트럼을 향유할지니 2009 서울빛축제 둘러보기
- 2 2009 서울빛축제 가이드맵
- 3 사진으로 보는 2009 서울빛축제
- 4 시민을 주인공으로, 축제의 주체로 이끄는 빛 2009 서울빛축제 예술감독 김형수 인터뷰

희망이 빛은 빛의 스펙트럼을 향유할지니

예술, 과학, 빛을 덧입은 2009 서울빛축제 둘러보기

광화문광장이 빛으로 수놓아진다. 그 빛은 서울의 600년 역사를 관통하는 시간으로, 시민들과의 문화적 소통을 시도하는 공간으로, 모양새를 달리하며 추위에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미디어아트가 뿜어낸 예술적인 빛들은 또한 도심의 일상적인 공간을 예기치 못한 광경으로 가득 채우고, 신선한 환희와 경이로움이 빛나는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2009년 12월 19일, 광화문광장이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연출한 빛으로 일제히 변하는 놀라운 장관이 펼쳐졌다. “5, 4, 3, 2, 1!” 광화문광장에 찌렁찌렁하게 울리는 시민들의 카운트다운과 함께 하늘로 쏘아 올린 오색찬란한 빛은 ‘2009 서울빛축제’의 화려한 서막을 예고했다.

‘서울빛축제’는 올해로 3회를 맞이한 행사다. 단순히 빛의 반짝임과 조형미에 의존하던 예년의 형태에서 벗어나 올해는 빛과 예술, 과학이 어우러진 빛축제를 표방하여, 일상 속에서 미디어아트를 만나는 축제의 장으로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섰다. 이번 축제가 반가운 것은 예술가와 관객이 상호 작용하는 미디어아트를 콘셉트로 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예술 장르들은 평면적이고 일방향적인 성격을 띠지만, 미디어아트는 IT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관객들의 쌍방향성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빛축제가 열리는 장소가 광화문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광화문(光化門)은 본래 ‘빛이 사망을 덮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온 세상을 밝히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닌 곳이다. 이번 축제는 서울의 역사와 동고동락한 광화문에서 ‘빛’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어둠이 물러간 후 희망의 ‘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2009 서울빛축제에서는 광화문광장의 풍경과 빛의 정취가 어우러진 다양한 미디어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 빚어낸 다양한 빛의 스펙트럼은 우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망하고, 중국에는 우리를 위한 새로운 빛으로 다가올 것이다. 즉 어렵고 힘든 시기를 넘겨온 광화문의 지난 역사와 서울이 걸어온 길을 되새기며 진보와 문화로 소통하는 서울의 현재를 일깨우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펼쳐 보일 것이다. 빛의 광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2009 서울빛축제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자.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

광화문 문화 무적함대, 프랙탈 거북선

Zone 1 역사의 빛

2009 서울빛축제를 찾은 시민들을 맞이하는 첫 미디어아트 작품은 비디오아트 선구자인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이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놓여 질 이 대형 미디어아트는 가로16m, 세로10m, 높이4m에 달하는 규모로 1993년 대전엑스포를 기념해 만든 비디오 설치 작품이다. 384대의 넓은 텔레비전, 수족관, 박제 거북, 옛 전자기, 옛 축음기, 부서진 자동차와 피아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은 노와 거북의 머리가 달린 거북선, 후면은 한산도를 형상화한 형태를 하고 있다. 프랙탈은 세부 구조들이 반복적으로 전체 구조를 되풀이하는 것을 일컫는 물리학 용어다. 즉 얼핏 무질서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정교한 규칙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는 뜻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예술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세계가 감동할 오늘, 초대형 미디어 퍼포먼스

Zone 2, 3 문화의 빛, 소통의 빛

이번 축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빛의 예술, 미디어 파사드다. 미디어 파사드는 거대한 프로젝션이나 강력한 조명을 설치해 본래 건물의 외관과는 다른 이미지를 무수한 색상들로 표현한다. 2009 서울빛축제에서는 세종문화회관과 KT 건물 외관을 미디어아트의 캔버스로 활용한다. 세종문화회관 스크린을 통해서만 광화문광장이 품어온 600년 서울의 역사와 전통, 과거, 현재의 모습을 아름다운 파노라마 영상으로 상영하고, KT 건물 스크린을 통해서만 첨단 기술과 예술이 소통하는 서울의 미래를 창조적인 영상으로 표현한다.

미디어 파사드 메인 상영 프로그램으로는 시민을 형상화한 아바타가 실제 공간과 가상공간을 넘나들며 삶의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영상 '광화문 아바타', 수 천 년 전 건국의 꿈을 가졌던 왕건부터 현재 세계로 꿈을 펼치고 있는 김연아까지 우리 역사 속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영웅전', 서울과 광화문의 과거와 현재 모습, 아름다운 자연 풍경, 건물과 연동되는 입체영상 등 다양하고 감각적으로 펼쳐지는 단편 영상들의 모음 '디라이트 서울' 등이 있다. 특별 상영프로그램으로는 토마스와 친구들, 뽀롱뽀롱 뽀로로 등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50년대 한국영화클럽인 '시네마 메모리즈',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영상 음악회 '빛의 심포니' 등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다.

이렇듯 대규모 미디어 퍼포먼스를 통해 광화문광장은 문화와 소통의 빛이 가득한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일상적인 도심의 공간은 꿈과 상상력이 가득한 환상적인 무대로 변하고, 광장 가운데에 서있는 시민들은 꿈속의 공간에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미디어 파사드는 관람하는 시민들을 빛의 주인공으로 변신시키는 깜짝 이벤트도 연출한다. 실시간으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얼굴을 건물 외벽에 투사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깜짝 사랑 고백, 새해 소망, 몽클한 사연 등을 영상이나 메시지로 만들어 상영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축제 현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회색빛 겨울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시민과 호흡하는 미디어아트 퍼레이드

Zone 4 창조의 빛

이순신 장군 동상 뒤편으로는 '빛의 방', '빛의 길', '일루미네이션', '미디어 타워' '더 라이트'로 이름 붙인 소규모 미디어아트 전시들이 이어진다. 그 중 첫 번째인 '빛의 방'에서는 Dialogue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글 자모들이 사람들의 실루엣에 반응하는 박상현의 '자모향유', 비행기의 각 부분들이 공간 이곳저곳에 환상적으로 떠 있는 신정필의 'Fly High' 등 사람들에게 다소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미디어아트를 열린 광장에서 직접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치광장으로 이어지는 20여 미터에 이르는 공간에는 수십 대의 TV가 '빛의 길'을 연출한다. 이 공간은 브라운관을 통해 배우들이 펼치는 감동적인 퍼포먼스와 도시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광활한 자연 풍경 등을 만끽할 수 있는 코너다. 한편 해치마당 상공에는 국화, 연화문 등 우리 전통문양을 형상화한 빛의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일루미네이션'이라 불리는 이 특별한 포토 존은 추운 겨울, 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빛의 추억이 담긴 멋진 기억을 안겨줄 것이다.

이 외에도 세종대왕 동상 앞, IEC 타워에서는 한글 자모와 전통문양 등 우리의 문화적 원형 콘텐츠가, 엑스캔버스 타워에서는 광화문아바타를 주제로 한 영상이 상영된다. 그리고 미래의 빛이 될 50여 명 대학생 신진아티스트들의 디자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더 라이트'도 청계광장에 마련된다.

축제 기간	12.11(금)	12.18(금)	12.19(토)	12.21(월)	1.3(일)	1.17(일)	1.24(일)	1.31(일)	2.15(월)
광화문광장			개막식 18:00 / 광화문광장						
			역사의 빛 (故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 축제기간 내 상설전시 / 이순신장군 동상 앞 특설전시장 ※ 전시장 내부관람시간 평일 (15:00~16:00 / 17:00~18:00) / 주말 (13:00~14:00 / 15:00~16:00 / 17:00~18:00)						
			문화의 빛, 소통의 빛 (초대형 미디어 퍼포먼스) 19:00~22:00 / 세종문화회관, KT 빌딩 외벽에 투사						
			창조의 빛 (빛의 방, 빛의 길, 일루미네이션, 미디어타워) 17:00~22:00 / 이순신장군 동상~광화문광장 중앙광장, 해치마당 ※ '빛의 방' 운영시간 평일 15:00 / 주말 13:00 부터 운영						
휴식의 빛 (광화문광장 스케이트장) 10:00~22:00 (주말 및 공휴일 연장운영) /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희망서울 2010 축제기간 내 상설전시 / 서울광장 시청사								
			세계디자인수도 서울이야기 축제기간 내 상설전시 / 서울광장 (※12월 31일 (목) 보신각에서 세계디자인수도의 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진행)						
			서울광장 겨울이야기 11:00~21:00 / 서울광장						
청계광장	그린산타 & Happy New Year~ 축제기간 내 상설전시 / 청계광장 및 청계천 분수~팔석담								
				더라이트 (신진아티스트 디자인展) 13:00~22:00 / 청계광장					

※ 자세한 내용은 2009 서울빛축제 홈페이지(<http://winter.hiseoulfest.org>)를 참고

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 광화문광장 스케이트링

Zone 5 휴식의 빛

매해 새로운 모습으로 조성되는 스케이트장이 올해는 광화문광장으로 자리를 옮겨와 문을 연다. 광화문광장 내 플라워 카펫에 조성되는 아이스링크는 총 2250㎡ 크기로 소형(20m×20m), 중형(20m×30m), 대형(25m×50m) 등 3개로 구성된다. 소형 링크는 어린이 전용 얼음 썰매장으로도 운영될 예정이다. 각각의 링크는 얼음길로 연결되며 피겨 공연, 불꽃놀이, 팽이치기, 얼음조각전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함께 진행된다.

스케이트장 외에도 광화문광장 주변으로 많은 볼거리, 즐길 거리들이 준비된다. 세종과학기지와 오로라 쇼를 볼 수 있는 남극대륙 체험 공간으로 변신하는 서울광장, 서울이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는 <세계 디자인 수도 서울2010> 전야제와 시민축제인 '세계디자인수도 서울이야기'가 보신각, 서울광장 등에서 펼쳐진다.

2009 서울빛축제는 2009년 12월 19일부터 2010년 1월 24일까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37일간 펼쳐질 예정이다. 예술가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결합을 통해 표현되는 다양한 빛의 스펙트럼은 광화문광장의 풍경과 빛의 정취, 음악의 감동 등이 어우러진 미디어 퍼포먼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를 통해 시린 도시가 아늑한 빛의 숲으로 변모하고, 지루하던 일상적 삶의 공간이 떠들썩한 축제의 열기로 데워지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흐뭇하다.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날 광화문광장을 가족과, 연인과 함께 걸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글 | 이은아

세상의 새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프리랜서 에디터. 글 쓰고 사진 찍는 걸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다. 현재 잡지, 사보, 웹진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진 | 천현정

여러 매체를 거쳐 사진작업을 해오고 있는 프리랜서 사진가. 연예인, 기업홍보 촬영과 다수의 개인전, 단체전 경력이 있다. 렌즈 너머 보이는 세상은 늘 흥미롭다.

2009 서울빛축제 가이드맵

ZONE 2

ZONE 1



ZONE 5

ZONE 3

ZONE 4

- ZONE 1 역사의 빛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
- ZONE 2 문화의 빛 (미디어 파사드-세종문화회관)
- ZONE 3 소통의 빛 (미디어 파사드-KT 건물)
- ZONE 4 창조의 빛 (빛의 방, 빛의 길, illumination, 미디어타워, 더 라이트)
- ZONE 5 휴식의 빛 (스케이트장)





해는 짧고

어둠은 길다.

지나온 날들에 코끝이 찡해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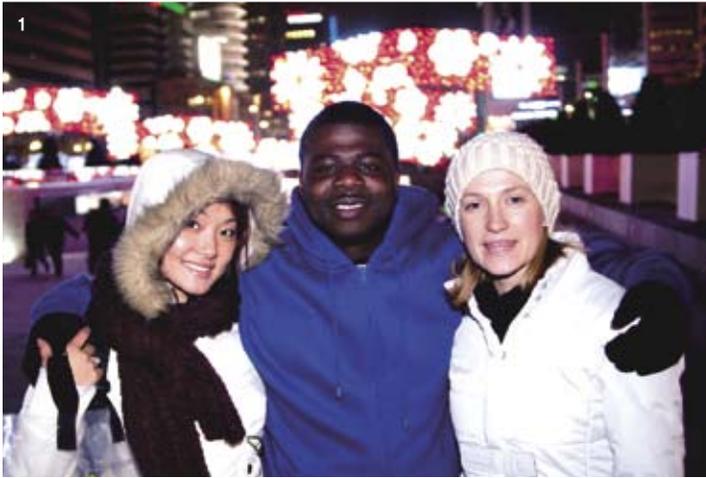
눈처럼 쏟아지는

빛 한가운데서 있고 싶다.

이경호의 <Digital moon "Touch the Light, Touch the Moon">



1월의 문화+서울
2009 서울빛축제





4



5

- 1 2009 서울빛축제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 2 세종문화회관 미디어 파사드
- 3 KT 건물 미디어 파사드
- 4 고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 전시모습
- 5 미디어타워

시민을 주인공으로, 축제의 주체로 이끄는 빛

2009 서울빛축제 예술감독 김형수 인터뷰

서울빛축제의 개막식을 준비하는 김형수 예술감독의 얼굴에는 소풍날을 기다리는 소년처럼 흥분과 설렘의 빛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마 며칠 후 광화문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얼굴에도 그와 같은 빛이 떠오를 것이다. 삭막한 겨울,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서울 한복판의 시멘트 광장에서 그가 펼치고 싶은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가 안내하는 빛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12월 16일 오후. 김형수 예술감독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막바지 축제 준비에, 사흘 후면 이곳을 찾을 시민들을 맞을 채비에 여념이 없었다. 때마침 불어 닥친 겨울 한파로 광화문광장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종횡무진하고 있었지만, 추위는 상관없다는 듯 그는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이번 축제에 첨단 영상 장비들이 동원되다 보니, 낮은 기온 때문에 혹시 기계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을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축제 준비요? 백남준 선생님의 프랙탈 거북선도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옮겨왔고, 이제 남은 시간 내에 마지막 준비 작업을 끝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광화문광장은 하지만 겉모습으로만 보기엔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았다. 안에 프랙탈 거북선이 있음을 짐작케하는 커다란 방진막이 펄럭이고, 몇몇 스태프들이 근처를 분주히 오가는 것 외에는. 축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비록 새로운 빛의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은 못 보더라도, 최소한 첨단 영상 장치를 덧입은 광화문광장의 위용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었는데, 광화문광장은 아직 밋밋한 회색빛 시멘트를 맨살처럼 드러내고 있었다.

상호소통과 자유를 부여하는 예술지대

“지금까지의 빛축제는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빛의 반짝임이나 외부로 보여 지는 조형 미에 중점을 둔 축제였죠. 당연히 사람보다는 전시물, 혹은 공간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형태의 빛축제가 전개될 겁니다. 관람객이 주인공이 되고, 빛이 만들어 내는 영상, 즉 미디어아트가 배경이 되는 빛축제가 되도록 기획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서울의 문화와 미래를 상징하는 건물인 세종문화회관과 KT 빌딩이 미디어 파사드의 스크린으로 활용된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facade)에 프로젝션이나 LED를 쏘아 올려 영상을 띄우고, 기존의 외벽과는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을 일컫는 용어다.) 이 거대한 스크린에는 과학과 예술이 빛은 다양한 빛들이 시시각각 모양을 달리하며 투영된다. 그 빛은 때론 숲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론 물 속을 유영하는 작은 물고기가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때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나 토마스 기차가 되어 동심을 수놓기도 한다. 이렇게 진보된 미디어 기법이 만들어낸 영상들은



단순히 외적인 보호막으로 기능하던 건물의 벽을, 광화문광장을 지나는 행인들과 소통을 시도하는 도구로 탈바꿈시킨다. 본디 미디어 파사드가 창조하는 세계는 실체가 아니라 가상의 세계지만, 그 속에서 시민들은 느낌이라는 반응을 갖게 되고, 그 반응은 다시 빛과 영상을 만드는 미디어 아티스트에게 되돌아가, 또 다른 행동을 창조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퍼포먼스를 유도한다.

“광화문광장은 도심의 한복판에 있는 공간입니다. 나무도 없고, 공원도 없고, 옆으로는 자동차가 뽕뽕 달리는 차도로 둘러 쌓여 있죠. 이런 야외 광장에 설치물들을 짹짹 채워 넣어 전시관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광장은 원래 사물이 아닌 사람을 위해 생겨난 공간이라고 믿습니다. 광장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광장을 거닐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 건물의 벽을 활용해 가상공간을 만든 겁니다.”

광장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김형수 예술감독의 생각은 이번 서울빛축제를 즐기는 관람객들에게 자유를 선사한다. 감정의 자유에서부터 생각과 행동의 자유까지,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에 압도당하지 않은 채 광장에 관통하며 흐르는 빛을 자유롭게 누리는 주체가 된다. ‘사람을 흥분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축제의 콘셉트다.

그렇기에 미디어 파사드가 만들어 내는 가상의 세계는 본래 광화문광장의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진행된다. 오히려 그보다는 도심 속 광장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주고, 다양한 미디어 퍼포먼스들은 광장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주력했다.

비어 있는 광장, 그곳의 주인은 우리

광화문광장 미디어 파사드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시민들이 미디어 퍼포먼스의 주인공이 되는 데 있다. 김형수 예술감독이 이번 서울빛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이다. 그는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보통 축제나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것들을 보러 갑니다. 관람객은 전시물의 조력자에 불과하죠. 하지만 수동적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즐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의 벽을 통해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상영되지만, 같은 벽을 통해 중간중간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세종문화회관과 KT 빌딩 위에 비춰지는 시민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물론 단순히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미리 준비한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에 투사된 몸이 분절되면서 서서히 부서지는 효과가 연출되거나, 함박눈이 내리는 배경과 합성해 눈이 오는 광장에서 서 있는 듯한 모습 등이 버라이어티하게 연출된다. 거대한 스크린으로 형상화되는 가족, 부부, 사랑하는 연인, 친구들 속에서 시민들은 뉴미디어 시대를 보다 친숙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광화문광장 전체가 포토 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시민들이 유유자적하게 거닐며 사진과 비디오를 즐기는 놀이터가 된다.

“시민들은 축제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영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백남준, 혹은 박지성이나 김연아만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역사를 위대한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과 지혜가 역사의 물결을 바꿔 놓습니다.”

이미 미디어 퍼포먼스 연출가로서 국내에서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선보여 온 김형수 감독이지만, 이번 2009 서울빛축제는 그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한 프로젝트였다고 한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업이라 기나긴 설득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고, 또한 최초, 최대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 산들을 계속 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곧 빛의 광장으로 들어올 시민들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예술과 첨단기술, 다채로운 빛이 연출하는 이 새로운 극장에서 그가 창조해낸 오묘하고도 경이로운 빛의 세계를 느껴보시길.

글 | 이은아
사진 | 천현정

다시보는 서울
이경민의 경성 산책

구보씨,

이발소에 가다(상)

단발령 시행 이후 서울 장안에 생겨난 이발소는
자발적 유행이라기보다 시대적 분위기에 의한 것이었다.
이발 문화가 사회에 자리잡기까지 좌충우돌 과정을 살펴본다.



최초를 찾아서, 단발과 이발사의 기원

예나 지금이나 ‘최초’에 대한 보도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다. 일제강점기 최고의 대중잡지 <별건곤>(1928년 12월호)에서는 ‘각계 각면 제일 먼저 한 사람’이라는 기사를 통해 근대적 신문명의 의식을 갖고 단발한 조선 최초의 사람으로 이동인을 지목했다. 우리에게 개화승으로 잘 알려진 이동인은 단발령이 내려지기 전인 1879년 김옥균의 밀명을 받고 국정시찰차 일본에 건너가 단발의 필요를 느껴 머리를 깎았는데, 이로써 이 분야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여성으로는 기생의 신분으로 실연 후 사회주의자로 변신한 강석자(강향란)가 최초의 단발랑(斷髮娘)이라고 이 잡지는 소개했다.

그렇다면 조선 최초의 이발사는 누구인가?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홍집 내각의 강요에 의해 1895년 단발령이 선포되고 고종의 상투가 잘리자, 궁에서는 국왕의 머리를 손질할 전담 이발사와 이발소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때 군수 벼슬을 하다가 왕실이발사로 발탁되어 궁에 들어간 안중호가 최초의 이발사라고 전해진다. 한편 칼럼니스트 이규태에 따르면 조선인이 운영한 최초의 이발소는 유양호라는 이발사가 1901년 서울 인사동에 개업한 ‘동호이발소’라고 하며, 후에 광화문으로 옮겨 간판도 ‘광화문 이발소’로 바꿨는데 머리를 깎기보다는 잔 머리를 길러 상투를 다시 짜주는 일을 해주었다고 한다.

1926년 5월 9일자 <매일신보>에서도 이발과 관련된 ‘최초’에 대한 기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신문에서는 순종 승하 후 ‘융희황제를 모시던 사람들’이라는 특집 기사를 연재하면서 왕실이발사로 있었던 홍경희의 대담 기사를 게재했다. 홍경희의 말에 의하면 순종이 단발한 것은 1907년 7월 20일의 일로, 고종, 영친왕과 함께 종묘에서 단발고유제(斷髮告由祭)를 올린 후 조선인 이발사 홍경희를 덕수궁으로 불러 삼부자가 차례로 머리를 깎았다고 한다. 대한문 앞에서 대안이발관을 경영하던 홍경희는 그날 이후 이발업을 폐하고 궁궐로 들어가 왕실이발사로 근무하다 1919년 고종이 승하한 후에는 순종의 거처인 창덕궁으로 옮겨 1926년 4월 순종이 승하할 때까지 20년간 융희황제의 머리를 한 달에 두 번씩 깎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순종실록에는 이 기사와 상이한 내용이 있는데 1907년 8월 15일 ‘황제즉위식 날에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겠으니 신민들은 잘 알고 짐의 뜻을 따르라’는 조서를 내린 것으로 보아, 순종이 단발한 날은 고종의 양위식이 있던 7월 20일이 아니라 조서가 내려진 8월 15일과 순종의 즉위식이 치러진 8월 27일 사이의 일이다. 물론 1895년 고종이 단발령에 따라 상투를 자를 때 당시 태자였던 순종도 함께 머리를 깎았다는 기록이 있고 대한제국 선포 이후 1899년 제정된 원수부 규칙에 따라 황제인 고종과 태자인 순종이 각각 대원수복과 원수복을 입고 함께 촬영한 사진에서도 단발한 순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신문기사는 단순히 순종의 최초 단발 시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한제국 황제에 즉위하면서 이발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순종이 원수복을 입고 고종과 함께 사진을 촬영한 1900년경과 즉위식 당시 육군 대장복장의 대한제국 황제복을 입고 촬영한 1907년 8월경 사이에 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근룡포와 익선관 차림의 사진이 유일한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즉위식 직전 순종의 머리카락은 일본 황실의 복식 제도에 따라 단발을 해야 할 정도로 긴 상태였다.



대원수복과 원수복을 착용한
고종과 순종, 1900년경

이발관의 대중화

유교적 신체관과 일본에 대한 적대감 속에서 한바탕 흥역을 치른 민중들의 단발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정착되어갔다. 1896년 배재학당을 선도로 각급 학교에서는 위생과 편리성을 이유로 머리를 깎기 시작했으며, 1904년에는 시골사람들이 밤마다 진고개(현 충무로)에 있는 이발소에 가서 수백 명씩 단발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또한 1906년 농상공부에서는 관인 중에 여전히 상투 튼 주사(主事)가 많이 있자, 각부 대신들이 나서서 단발하지 않으면 퇴거하겠다고 명령하여 주사들이 이발소로 몰려간 일도 있었다.

이처럼 자의든 타의든 머리를 깎으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자 이발소 개업 및 선전 광고가 신문지상에 자주 게재되었다. 먼저 1904년 10월 24일자 <황성신문>에는 이발사 김인수가 종로 광고 남천변 수월루 아래 양옥의 제일 이발소를 개업하면서 '머리 깎고 백호 치고 상투 짠'다는 내용의 광고 기사를 실었다. 여기서 '백호'는 낫쇠로 만든 면도칼을 지칭하는데, 결국 '백호 친다'는 것은 대머리처럼 머리를 뽀뽀 민다는 뜻이다. 따라서 당시의 이발소는 오늘날처럼 머리를 깎는 일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상투를 다시 짜 주거나 머리를 미는 일까지 다양한 머리 손질을 해주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907년 당시 경성의 이발소가 진고개에만 있었고 조선인 이발사로 흥경회가 유일했다는 1926년 5월 9일자 <매일신문>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라 보인다. 또한 1907년 9월 4일자 <대한매일신보>에는 광고 남천변에서 이발업을 하던 임춘원이 종로전기회사 옷골목 면자전으로 이사한다는 이발소 이전 광고가 실렸으며, 1908년 2월 20일에는 물가상승으로 이발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동아이발조합소' 명칭의 광고도 같은 잡지에 실렸다. 여기서 언급된 동아이발조합소가 언제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조합의 존재 자체는 이미 서울에 여러 이발소가 영업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당시 이발소의 수는 지금까지의 기록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동아이발조합소와 동일한 곳인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같은 해 2월 21일자 <대한매일신보>에는 '이발조합소'라는 이발소 조합이 서울에 설립되어 정기 모임을 갖고 기계를 청결히 하는 방법과 체발을 정미케 하는 방침을 연구하여 전국적으로 이발영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조합의 명칭은 1909년 창립 1주년 기념식 관련 기사에서 '경성이발조합소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1910년 창립 2주년 기념식 관련 기사에는 다시 '이발조합소'라는 기존 이름으로 표기되었다. 정식 명칭이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발소 조합이 설립된 것은 1908년 2월의 일로, 조선이 강제 합병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조합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요금인상과 이발 기술을 위해 공동 보조와 정보교환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단발을 하려는 고객이 이발소에 몰리자 이발 기계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아 두부백선이라는 기계충(일명 기계충)이 옮겨나 기계독이 오르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으며, 이에 따라 이발소 광고 내용에도 변화가 왔다. 1908년 10월 종로 어물전 뒤에 위치한 고등이발소의 홍종운은 이발졸업생을 고빙(雇聘)하고 소독기계를 특별 신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으며, 1910년 3월 서대문 내에 위치한 장창식 이발소에서는 특히 소독을 잘하고 이발도 잘하며 값도 헐하다는 특별 광고를 내기도 했다. 같은 해 4월 14일자 <대한매일신보>에는 대한문 앞에 위치한 진문환 이발소의 광고가 실렸는데, 이발충(기계충)을 소독하는 약이 있어 위생적이라는 내용 외에 백발이 환흑(換黑)되는 약을 파는데 한 번 바르면 검은 윤채가 영구불변한다는 염색약 홍보도 함께 했다. 이 광고는 염색이 이발소 영업의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되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인데, 진문환 자신이 외국의원에게 배운 백발환흑하는 비방(秘方)으로 소개한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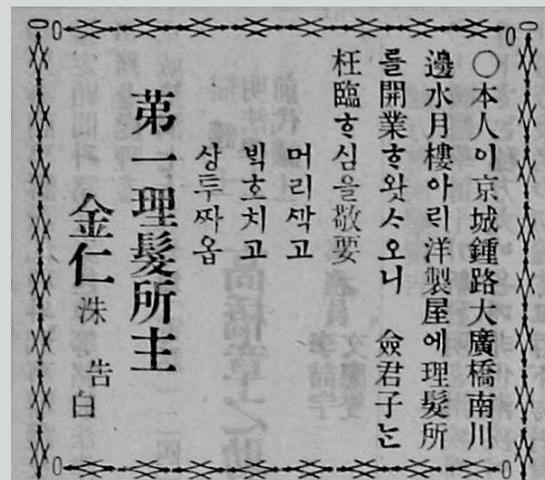
이발영업의 단속규칙과 이발사 시험제도

1911년 5월 1일 조선총독부에서는 단발이 대중화되고 이발소가 점증하자 이발업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경부총감부령 제6호로 전문 11조의 ‘이발영업취체규칙’(이하 이발규칙)을 제정 발표하였다. 이 법령은 경성부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는 이를 기초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이발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 법령이 발표된 이후 각 경찰서에서는 관내 이발업자를 불러 위생청결 및 기계 소독 그리고 조합 설립에 관한 규칙 내용을 훈시하고 관리 감독에 나섰다. 하지만 이발규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각 경찰서에서는 이를 단속하는데 골머리를 앓았다. 1921년에는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의 명령으로 이발 후에 코와 귀를 후벼주는 서비스를 금지시켰는데 코와 귀를 잘못 후비다가 상처가 나서 병들어 죽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세수수건도 여러 사람이 통용하면 ‘도라흙’이라는 전염성 만성결막염에 걸릴 수 있다하여 이발소의 것을 쓰지 말고 손님이 각자 가지고 오도록 했다. 또한 1922년 종로경찰서에서는 관내에 있는 이발소 50여 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소독방법이 불안전하고 위생상 청결하지 못해 이발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370여 건에 달했다. 이에 종로경찰서 측은 이대로는 위생의 안보를 유지할 수 없다하여 관내의 이발업자 120여 명을 불러 위생계 주임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했다. 1923년 본정경찰서에서도 관내의 이발소 97곳과 종업원 340여 명을 대상으로 조선인 33건, 일본인 34건, 중국인 24건 등의 이발규칙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이발기계와 기구를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지속적인 단속과 훈시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소독과 위생에 대한 소홀과 설비부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자 당국에서는 이발규칙을 개정하여 이발사의 자격을 강화하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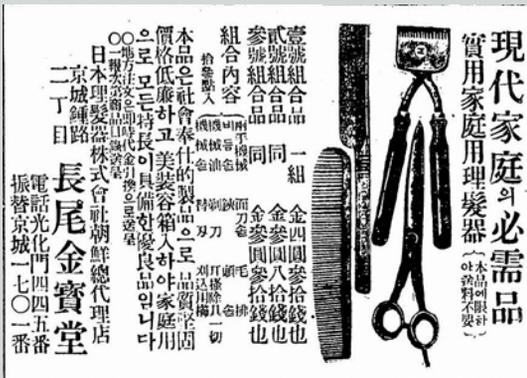
이발규칙은 1915년 6월 11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다가 1923년 7월 27일 부령(府令)으로 7월 30일에 한하여 이를 폐지하고 8월 1일부터 도령(道令)으로 새로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의 이발규칙이 경성부에만 적용된 것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함께 적용할 새로운 규칙의 제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발규칙을 개정할 가장 큰 이유는 영업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였는데, 이발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이에 합격한 자가 전체 고용인의 삼분의 일 이상이어야만 영업허가를 내주었다. 기존의 영업자에게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그 사이에 시험에 합격하는 가 기준에 합격한 이발사를 고용해야 했다. 이렇게 시험제도를 통해 이발영업의 허가기준을 높인 것은 위생상 이발사의 전문성을 요구했던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성의 일본인 및 조선인 이발사들의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준 중국인 이발사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값싼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으로 경쟁력을 갖춘 중국인 이발소는 위생상 다소 불결하기는 했으나 값싼 이발로와 귀를 잘 후벼주고 어깨를 잘 주물러 주는 부대 서비스 때문에 조선인과 일본인조차도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조선인 및 일본인 이발업자에게는 큰 타격을 입혀 경무국 위생과는 ‘시내에 있는 23개소의 중국인 이발소로 인하여 70여 곳의 다른 이발업자가 살 수 없다’는 진정이 날아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무국의 위생과장은 이발업자의 수험용 교과서를 저술하여 각 이발소의 이발사에게 배부하여 유예기간인 1년 안에 시험에 합격하도록 했다. 해부학과 위생학, 생리학, 소독학 등의 내용을 담은 수험용 교과서는 중등과정보다는 전문적이지만 일본어에 능통한 일본인과 조선인은 1년 정도 공부하면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문자에 까마득한 중국인은 낙제가 예상되자 중국인 이발업자 사이에서 이발사시험이 자신들을 박멸하는 간접 수단이라며 대공황이



제일이발소 광고, 황성신문, 1905.10.24





장미금보당(長尾金寶堂)의 이발기구 광고, 동아일보, 1927

일어났으며, 그들의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그해 10월 1일 처음으로 시행된 이발사시험에서는 조선인 58명, 일본인 45명, 중국인 2명 등 모두 105명이 지원하여 일본인과 조선인 각각 27명이 합격하였으나 중국인은 글을 몰라 한 명도 합격한 자가 없었다. 1924년 1월 23일에 열린 제2회 이발사시험에서도 140명의 지원자 중 조선인 38명, 일본인 16명 등 총 54명의 합격자를 냈으나 중국인은 한 명의 지원자조차 없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일본인 합격자 가운데 2명의 여성이 합격증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1924년 4월 경기도에서는 제3회 이발사시험을 마치고 나서, 이후부터는 합격증서가 없는 자는 영업을 허가치 않고 고용인이라도 삼분의 일 이상의 합격자가 없으면 영업을 종사할 수 없다는 새 방침을 내렸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24년 8월 1일 새로운 이발규칙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자 이발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발을 하던 무허가 이발사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집중되었다. 1926년 12월 종로 5정목에 사는 송중현이라는 이발사는 이발업 허가 없이 머리를 깎다가 동대문경찰서원에게 발각되어 취조를 받고 구류에 처해졌으며, 1927년 1월 하왕십리 사는 백만룡도 허가 없이 이발을 해 주다가 이발법 위반으로 동대문경찰서에서 일주일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무허가 이발사들은 자기 집에 임시 영업소를 차려놓고 고객을 맞기도 했지만 이발행상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1932년 10월 중구 임정(林町, 현 산림동)에 사는 박용석은 허가 없이 5전짜리 이발행상을 하다가 용산경찰서원에게 발각되어 과료 3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1933년 시내외로 돌아다니며 노상에서 이발행상을 해오던 한봉준도 종로 3정목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이발을 하다가 동대문경찰서원에 체포되었다. 1938년에는 본정 사는 송장원과 그의 아들 송기준 부자가 3년 동안 무허가로 모두 1만 6천여 명의 손님에게 이발을 해 주다가 본정경찰서에 발각된 일도 있었다고 하니, 하루 평균 14~5명씩 머리를 깎을 정도로 무허가 이발사를 찾는 고객들의 수요가 대단했다. 이처럼 고객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무허가 이발사에게 물리는 것은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이다. 1등급 이발소의 요금이 45전, 2등급은 40전, 3등급 35전, 4등급이 30전 하는 것에 비해 무허가 이발사는 보통 15전의 이발료를 받았으니 등급이 가장 낮은 4등급 이발소보다도 반이나 싼 가격이었다. 영세민 고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이발사들은 시험제도에 의해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들 또한 피해자였다.

이발소 조합과 이발 단체의 설립

이발업자들은 이발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조합을 설립한 뒤 경무총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것은 개별 이발업자를 각 지역의 조합으로 묶어 통제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발업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어서 조합에 적극 가입하였다.

최초의 이발소 조합인 이발조합소가 1908년 개설된 이래로 수많은 조합과 단체가 생겨났다. 초기에는 주로 이발업자로 구성된 사용자 조합이 지역별, 인종별로 조직되었으며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발소 종업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자 조합도 생겨났다. 정확한 조합의 명칭이나 설립연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지만 1911년 이발규칙이 제정된 이후 신문지상에 실린 이발소 조합과 이발 단체를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13년 조선인으로 구성된 경성조선인이발학습회라는 단체가 등장했다. 이 단체는 11월 17일 정기총회를

열어 이발사들이 이발할 때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경을 쓰게 하고, 깎은 머리카락은 모아두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팔아 그 이익금으로 단체 운영 경비에 보충하기로 결정하는 등 조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1915년 9월 본종이발조합과 종로이발조합에서 별도 규정을 만들어 이발료를 정가대로 받지 않으면 벌금을 징수하고 외상은 일절 거절하기로 결의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면 당시 구역별로 이발조합이 조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수많은 조합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되고 해체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1917년 종로이발조합의 조합원 100여 명은 종로청년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모든 사무는 조합원간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고 결의하였으며, 1921년 5월 동대문이발영업조합에서도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경과보고를 한 후 새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1921년 8월 9일에는 원래 일본인 조합, 조선인 조합, 중국인 조합에 각기 소속되어 있던 종로경찰서 관내의 이발종업원들이 하나의 조합으로 합치기로 하고 동흥이발관에 모여 총회를 개최하자 본정경찰서 관내의 이발업자들도 당국의 지시에 따라 1922년 자신들이 속해 있던 각각의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이발조합을 하나의 이발조합으로 통일하였다.

1924년 8월에는 경성부내 이발소에 근무하는 일본인 종업원 60여 명이 모여 회원 상호간 연수와 기술 및 위생 지식의 증진에 노력하고 그동안 받아온 열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의 설립을 계획하였는데, 이는 본격적인 노동조합의 등장을 예고했다. 1926년 8월 1일 창립대회를 개최한 경성이발종업자친목회가 그것인데, 지난 달 7월 8일 이발업자들의 친목단체인 경성이발업자친목회가 창립대회를 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경성이발종업자친목회는 이발종사자들의 노동조합으로 동대문 밖 송인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날 경성인쇄직공조합, 신흥청년동맹, 한양청년연맹 등 수많은 노동조합과 유관 단체에서 축전과 축문을 보내왔다. 인사동에 사무실을 둔 경성이발종업자친목회는 1927년 경성이발직공친목회로 이름을 바꿔 활동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종로이발조합에서 이발직공을 고용할 때마다 직공에게 조사비라는 명목으로 50전씩 징수하려고 하자 이는 부당하다며 징수를 반대하는 분규를 일으키기도 했다.



18년간 이발업에 종사해 온 화개이발소 주인 박창기의 머리 깎는 모습, 동아일보, 1926

1936년에는 대규모의 조합연합회가 경성에서 조직되었는데 그 설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3월 현재 경성 시내에는 동부, 종로, 서대문, 용산, 본정 등 각 구역별로 조선인 이발조합이 조직되어 있었고 그 조합들의 총대(總代)로서 경성이발조합이라는 총연맹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일본인 이발조합은 본정과 용산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그 조합들의 총연맹이 있었다. 그런데 일본인 측 총연맹에서 조선인 측 총연맹에 제안하여 두 단체를 합친 전경성이발총연맹을 만들기로 하였으며, 결국 경성이발영업총연합조합이란 거대 조직이 탄생하였다. 이는 차등화 된 이발료를 받아오던 조선인과 일본인 이발업자가 서로 담합하여 이발요금을 통일하면서 전체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부당한 요금 인상에 일반시민들의 불평이 쌓여갔고 이발소 종업원들도 자신들의 처우는 조금도 개선치 않고 요금만 인상했다며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발업자의 총연합조합과 같은 종업원들을 대표할 단체가 없어 노사협회는 물론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했다.



‘명령구리 연애생활 (12) 피로연’,
조선일보, 1924.12.20

일제 말기로 가면서 모든 개별적인 문화예술단체와 사회경제단체를 전국 규모의 통일된 조직체로 묶어 조선총독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수많은 이발조합도 결국에는 일본인 주도 아래 하나의 거대한 총연맹체가 되어 어용단체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발 요금을 둘러싼 이발업자간의 경쟁

이발요금은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발업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였으며 조합에서도 요금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따라서 이발소 간의 경쟁은 위생시설이나 이발 기술에서보다 이발요금 문제에서 더 첨예하게 나타났다. 이발요금을 둘러싼 분쟁의 씨앗은 이미 1910년 이전부터 엿볼 수 있다. 1908년 2월 한성 내 이발소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협의하여 이발료를 상등에 20전, 중등에 15전, 하등에 10전씩 받기로 결정하고 이를 여러 달 동안 실시해 왔었다. 그런데 같은 해 4월 한 일본인이 이발소 일좌(一座)를 설립하면서 상중하를 막론하고 7전 5리씩 받자 그곳으로 고객들이 답지했다고 한다. 요금인하가 가장 경쟁력 있는 무기였던 것이다. 1909년에도 후지타(藤田)라는 일본인 이발업자가 중부 사동에 이발소를 개설하면서 이발소조합이 정한 규칙에 반대하여 요금을 염가로 받겠다고 광고하자 이발조합소원인 조준성의 항의를 받는 일도 있었다.

이발요금 문제는 조선인 이발업자 사이의 분쟁으로까지 발전했다. 1915년 4월 경성의 중국인 이발소에서 혈값으로 고객을 유인하자 가장 비싸게 받던 일본인 이발소가 조선인 이발소의 수준으로 요금을 내렸고, 이에 황금정(현 을지로)의 조선인 이발소 남부조합에서는 기존 요금보다 이발료를 더 내리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북부조합 대표 유양호는 남부조합 대표 장상기를 찾아가 다른 조합과 상의하지 않고 요금을 인하한 것에 대해 힐문하고 경성의 5개 이발조합 임원 연합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다. 그러나 조합 규정과 벌금에도 불구하고 조합마다 입장이 달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이발요금을 인하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 일로 많은 이발소가 영업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수입이 줄어 폐업하는 곳이 늘어나자 본정경찰서에서는 관내 중국인 이발업자 모두를 불러 주의를 주기도 했다.

중국인 이발업자의 저가 공세가 계속되고 영업점 수도 점차 늘어나자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도 없고 조합사이의 의사소통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조선인과 일본인 이발업계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1916년 7월에야 비로소 일본인 이발업자가 방어책을 강구하였는데, 조선인조합을 일본인조합으로 합병하고 여기에 중국인 이발업자들도 합병하여 하나의 통일된 조합을 결성하자는 제안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인은 합병절차를 밟아 일본인과 같은 요금을 받게 될 예정이었으나, 조선인조합에서는 구역마다 의견이 달라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1920년대에 들어서도 이발요금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오르내렸다. 1921년 2월 일반물가가 떨어지고 쌀값도 하락한 상황에서 유독 이발료와 목욕료만 내리지 않자 대중들의 불평은 나날이 높아갔고 서민들은 경성부를 향해 공설 이발소와 목욕탕의 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이발료가 비싼 것은 사실이나 공설이발소를 두 세 군데 세운다하여 30만 경성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부영(府營)으로 경영하게 되면 민간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설이발소의 설치는 불허하고 대신 이발조합에 요금인하를 권고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발요금이 내리지 않자 같은 해 6월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에서는 각 지역 조합 관계자를 불러 다시 권고하여 용산 지역 이발소의 경우 10전씩 내리게 했으며, 경성이발조합에서도 조합원들이 모여 요금 인하를 협의케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다수의 이발조합에서는 요금은 내리지 않은 채 등급만 변경하여 신청하는 편법으로 맞섰으며 보안과는 그 청원서를 두 번이나 각하하고 세 차례 요금 인하를 권고하면서 이발업자

와의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1년 이상 끌던 이발요금 문제는 1922년 11월 경찰당국의 물가조절 개입에 힘입어 이발소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요금인하는 경찰의 간섭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으며, 일제 말기 물가통제정책이 전방위에 걸쳐 시행될 때까지 이발 요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였다.

장안 최고의 조선인 이발소, 중앙이발관

이러한 요금 경쟁에서 살아남은 경성의 이발소 중에서 조선 사람이 운영한 최고의 이발소는 어디였을까? 1928년 7월 <별건곤>에서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발소 투표’라는 흥미로운 현상모집을 하였다. 경성, 평양, 개성, 원산, 대구, 인천 등 주요 도시에서 조선인이 경영하는 ‘제일 나은’ 이발소를 투표용지에 적어 보내면 당선된 투표자에게는 면도기와 비듬약 등의 상품을 증정하고 당선된 이발소는 기사와 사진으로 지상에 소개하는 행사였다. 7월 25일까지의 중간집계를 보면 경성의 경우 종로 2정목에 위치한 중앙이발관이 115표로 일등을 달렸다.

사실 중앙이발관에서는 이보다 3년 앞선 1925년 11월 26일부터 한 달 간 전 조선 안에 있는 이발동업자를 파악하기 위해 독자들로 하여금 이발관을 많이 적어 보내는 현상 모집을 진행했다. 이 행사로 12월 28일 경관과 신문기자 입회 아래 1등부터 3등까지 추첨을 했는데, 이날 중앙이발관에는 당대 최고의 인기를 끌던 연재만화의 주인공 ‘멍텅구리’가 영화촬영을 하여 더욱 화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재만화로 알려진 ‘멍텅구리’는 1924년 10월 13일부터 <조선일보>에 연재된 4컷 만화로, 별다른 볼거리가 없었던 시절 독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2년 5개월 동안 총 501회나 연재되었다고 한다. 그 인기에 힘입어 조선영화연구회(감독 이필우)에서 이것을 영화화한 것이며, 마침 중앙이발관에서 촬영하게 된 것이다. 그날의 촬영은 주인공 멍텅구리(최명팅)가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다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미모의 기생 신옥매가 거울에 비춰자 그곳을 향해 옥매를 쫓아간다고 날뛰다가 그만 거울을 깨뜨리고 이발관 주인과 거울 값 문제로 다투는 장면이었다. 이를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군중들이 중앙이발관에 모여 들어 종로 일대가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였다. 이 영화는 1926년 1월 우미관에서 개봉되어 만화 이상의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영화사상 만화를 각색한 최초의 영화였다.

1931년 중앙이발관은 일제시대 주식왕으로 명성을 떨쳤던 조준호에 의해 이발기구를 제조 판매하는 ‘동아 이발기구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그 직영으로 운영되었다. 1932년 <동아일보>에 실린 광고를 보면 그 규모를 짐작해볼 수 있는데, ‘관원은 전부 이발계 숙련자이오며, 설비는 신선하웁고 완비되어 있습니다. 친질 접대하오며 이상적 조발(調髮)을 하오니 많이 이용하옵소서’라는 광고문구와 함께 화면 상단에는 이발소 내부 모습의 사진과 하단에는 고용주와 이발사의 인물사진을 실어 최고의 규모와 시설 그리고 최고의 기술을 뽐내고 있다.

이렇듯 장안 최고의 이발소였던 중앙이발관은 그 명성만큼이나 이발업자와 이발소종업원 모두의 중심지였다. 앞서 언급한 1926년 경성이발업자친목회의 창립대회와 경성이발종업자친목회의 임시총회가 이곳에서 개최되었고 이후에도 노사 양 단체의 회합장소로 자주 제공되었다. 이를 통해 이발계에서의 중앙이발관의 영향력을 짐작해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발기구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동아이발기구주식회사의 고도의 홍보 전략도 읽을 수 있다.



중앙이발소 광고, <동아일보>, 1932

글 | 이경민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2005년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사진 아카이브연구소를 운영하며 근대 사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진사 연구에 관심을 두고 사진 평론과 전시 및 출판, 기획 등의 일을 해왔다.

세상을 향해
손끝으로

Go Go!

DJ Bay는 클럽 DJ 및 모바일 DJ로 10년의 경력을 갖춘 시니어급 DJ다. 그가 음악을 믹싱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턴테이블에 직접 레코드를 넣을 필요가 없이 컴퓨터에 연결된 음원 소스들만으로도 믹싱을 할 수 있기에 과거처럼 공연장에 레코드판을 몇 백장씩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한때 인터넷에서 모바일 DJ라는 직업이 미래의 유망직종 중 하나로 꼽히면서 음악을 자신의 장래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라디오 DJ, 클럽 DJ는 이미 알고 있지만 모바일 DJ란 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비하인드 네 번째 연재에서는 모바일 DJ라는 직업과 함께 그들의 일상적인 세계를 엿보기로 했다.

제이콥 뮤직 스튜디오는 '웨딩의 거리'라는 청담 사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고급스러운 수입가구점들과 한복점들 그리고 웨딩드레스숍을 지나 배철호 부원장이 설명했던 '비트라'라는 수입가구점 코너를 도니 아담한 건물 4층에 '제이콥스 뮤직' 간판이 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계단을 올라 문을 열고 들어서니, 가정집 같은 아담한 거실과 녹음스튜디오들, 그리고 빨간 벽지로 치장된 부엌이 보였다.

대학 중퇴, 그러나 당당한 프로 DJ

전형적인 힙합 차림에 창백한 피부를 한 키 큰 청년이 취재진을 맞았다. 제이콥 뮤직을 설립,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배철호 부원장(DJ Bay)이었다. 옆에서 인자한 웃음을 짓는 한 중년여성분은 원장이라고 했다. 배철호 부원장(이하 DJ Bay)이 권하는 대로 녹음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 인터뷰를 시작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알추 들춰보았던 DJ Bay의 이력은 특이했다. 그는 한국의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K모대를 대학교 3학년 때 중퇴했다. 그 이야기를 꺼내기 무섭게 DJ Bay는 쑥스러운 듯 너털웃음을 웃어대기 시작했다.

“불문과였죠. 대학교 1학년인 스무 살 때부터 이 일(DJ)을 시작했어요(그는 이제 이십대 후반이다). 일단 되고 나서는 직업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노는 기분으로 연습해 가서 틀어주고 그랬어요. 처음에야 클럽에서 재미있는 일을 하는데 돈까지 버는 거다. 좋다, 이런 식이었죠. 일에 있어서는 대학생이라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됐어요. 일터에서 제 학력을 내세우고 싶지도 않았지만 내세워봐야 이득 될 것도 없었죠. 학교를 그만둘 정도까지 돼서는 이걸로 먹고 산다면 졸업 유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죠. 점수 따는 게 재미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논리로, 이 일이 행복하니까 공부를 그만둘 수도 있었던 거죠. 대학 다닐 때 기억을 떠올려보면 돈이 걸려있으니 수업 중에도 전화 받고 1,2교시 아침 수업은 졸고(웃음)... 이럴 바에야 그만두지 싶더라고요.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 다니는 게 부모님께 죄송스러웠죠.”

DJ Bay의 조근 조근한 설명을 듣다보니, 과연 부모님의 반대는 전혀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녹음스튜디오 모습 이곳에서 작곡/작사/보컬 녹음이 이루어진다.

아직까지 보수적인 면이 많은 한국사회에서 그것도 공부를 잘 했던 모범생 아들이 갑자기 명문대를 그만두고 DJ를 하겠다는데 쉽게 포기할 부모가 있을까? DJ Bay는 이 질문에도 신나는 웃음으로 반응을 보였다. “아까 인사하셨던 원장님이 실은 제 어머니인데요. 부모님의 반대? 굳이 얘기하자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께서 반대를 더 하셨던 것 같네요. 어머니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왜 그걸 막느냐, 라고 저를 보호해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생각 외로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한다거나, 그렇게 살면 어떡하니 하고 걱정했던 분들은 없었어요(웃음). 어머니는 결혼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하는 타입이시죠(웃음).”

이제 애초에 인터뷰를 요청했던 핵심질문으로 들어갈 차례다. 미래의 유망직종으로 떠올랐다는 ‘모바일 DJ’는 과연 어떤 직업일까? “모바일 DJ(Mobile DJ)는 그 근원을 따지자면 설명이 좀 길어져요. DJ 문화는 서유럽과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시작된 문화입니다. 미국에서 모바일 DJ라 하면 실은 웨딩 DJ라고 할 수 있습니다. DJ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웨딩밴드의 자리를 DJ들이 담당하게 된 거죠. 원래 최초의 DJ들은 라디오 DJ들이에요. 물론 클럽 DJ와 성격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클럽 DJ들은 라디오 DJ들을 선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DJ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의 직업은 70년대부터 발전했다고 보시면 되요. 현재 모바일 DJ라 부르는 직업은 어떤 종류의 연회나 행사든 자신의 디제잉 장비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그 행사에 적합한 분위기의 음악을 믹싱, 재생산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소속 클럽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요. 아직 한국의 클라이언트들은 모바일 DJ라는 말을 잘 모르지만 제가 현재 하는 일이 모바일 DJ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새 브랜드의 론칭 파티, 결혼식, 비-보이 행사 등을 주로 다녀왔지요.”

그동안의 모바일 DJ 포트폴리오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은 무엇이였을까? 질문을 던지자, DJ Bay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좀 엉뚱하겠지만 결혼식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결혼피로연에서 불러서 갔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정해진 형식으로 평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때는 특이하게도 주인공인 신랑신부가 디제잉 파티를 원해서 가게 된 거죠. 아마 손님들도 그 파티가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비-보이들하고 하는 공연도 재미있었죠. 비-보이들에게 준비된 세트의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프리스타일로 출 때 뒤에서 즉흥 믹싱을 해주기도 하고요. 배틀할 때 양쪽 대결 팀에 맞는 분위기의 음악을 다르게 믹싱하는 것도 즐거웠고요.”

클럽을 떠나 세상 밖으로

좀 더 고차원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 힙합과 랩, 그리고 DJ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던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DJ Bay는 손으로 턱을 받치더니 진지한 표정

으로 대답을 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설명이 무지 길어질 것 같아요. 힙합, 랩, DJ.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원래 힙합이라는 개념에서 랩은 힙합의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73년 뉴욕 브롱스에서 파티를 최초의 힙합파티라고 보는데 당시에는 랩이 없었고 DJ만 있었습니다. DJ가 길거리에 장비를 꺼내서 스피커를 연결하고 블록 파티를 했었죠. 자연스럽게 근처 아이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랩의 연원이 뭐냐면요, 지방 나이트에 갔다고 쳐보세요. 그때 DJ가 음악을 틀어주면서 마이크로 떠드는 건 노래가 아니잖아요. ‘요, 손님들 나와서 춤춰요! 신나게 놀자!’하고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말들 말입니다. 랩의 원형이 바로 그 흥을 돋우는 토스팅(Toasting)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말, 자극적인 말, 흥분시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건 노래도 아니고 멜로디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랩은 DJ들이 한두 마디 하던지 재간둥이들이 나와서 한두 마디 하는 건데 그 토스팅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아마 래퍼 에미넴의 영화 <8마일>을 보셨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긴 설명이 끝나고 잠시 한소끔 쉬던 DJ Bay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브레이크(Break)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본래 단어 뜻 그대로 노래 중간에 무음(無音)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그 공백에 기타, 드럼, 베이스가 나오면 DJ들이 같은 판 두 장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고 연결에 연결을 거듭하면서 아무 내용이 없는 무음부분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그 때 엠씨(MC)가 즉흥적으로 ‘라임(Rhyme 운율)’을 잡아서 관객에게 토스팅을 던지기 시작했던 것이 랩이 된 것입니다. 결론은, DJ가 힙합음악을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랩이라는 장르가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힙합, DJ, 랩은 서로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지금도 공연만 있으면 래퍼들은 반드시 DJ를 대동합니다. DJ 없이는 랩 공연도 없는 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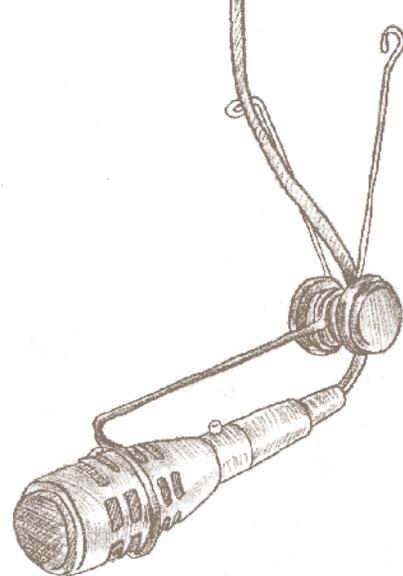
최고의 뮤지션, 최고의 DJ 교육가가 되기 위하여

저녁 8시 무렵 시작된 인터뷰가 벌써 세 시간을 넘기면서 이제는 한 사람의 DJ로서의 비전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피날레를 장식하는 대답은 예상대로 진지함과 열정 그 자체였다.

“실은 한국에 아직까지도 한글판 DJ 교재가 없습니다.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DJ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구요. 개인적으로는 미국 유학을 가던지 해서 저의 실무 경험과 제대로 된 이론을 접목한 후 DJ 문화에 대한 이론을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자료 수집을 열심히 하면서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 음대에서 석사를 하고 오면 한국 대학의 실용음악학과에 DJ 관련 강의를 개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DJ들은 다른 뮤지션들이 어떤 공감대에서 교감을 하고 음악을 만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외받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뮤직 스튜디오를 차린 것은 다른 뮤지션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렸을 때 락 밴드했던 경력을 버리기 아깝기도 하고... 덕분에 저는 다른 DJ들에 비해 연주자들의 마음을 비교적 잘 아는 그런 DJ가 아닐까 싶어요.

원래는 이런 깊은 생각을 잘 못했는데 생활로서의 DJ가 아니라 예술로서의



DJ Bay는 인터뷰 내내 잔 웃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음악에 관한 질문에서는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진지한 자세였다.



비하스드

④ 모바일 DJ를 만나다

DJ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어린 친구들이 부모와 같이 수업을 등록하러 왔을 때 'DJ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형성하지 않으면 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니까요."

DJ Bay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이콥 뮤직 스튜디오(www.jacobmusic.co.kr)는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DJ부터 보컬, 드럼, 기타, 베이스, 피아노, 랩, 미디(컴퓨터 작곡)까지 가르치는 실속 있는 미니음악대학이다. 본인이 부원장이고 수업 및 학생 관리와 개인 작업에 치중하다보니 거의 24시간 이 뮤직스튜디오를 떠나지 못한다고 한다. 매일 낮 1시 정도 일어나서 오후 세 시부터 밤 11시까지 뮤직 스튜디오 수업을 마치고 나면, 새벽 네 시까지는 개인적인 공부와 작업시간이 이어진다. 그 뒤 교회 새벽예배를 다녀와서 낮까지 쓰러져 자는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되고 있다. 그런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내년 1월에는 야브야지드(yabyajeed)란 예명으로 하우스 장르와 크로스오버한 피아노 앨범 <살롱 드 피아노 Salon de Piano>가 나온다고 한다. 발매기념 공연에 꼭 불러달라는 취재진의 마지막 당부 말 뒤에 그가 덧붙인 "앞으로 유명한 뮤지션이 되어 한국에 DJ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선두주자가 되고 싶다"는 선언을 귀에 새기고 제이콥 뮤직 스튜디오를 떠났다. 겨울 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 춥지 않았다.

DJ Bay가 추천하는 DJ 뮤직



허비 행콕(Herbie Hancock)의 <Rock It>

허비 행콕의 <Rock It>이라는 곡이 있다. <Rock It>은 1983년 나온 'The Future Shock' 앨범에 수록되어 있고 1983년 제26회 그래미 상 최우수 R&B 연주 부문(Best R&B Instrumental Performance)에서 수상했다. 이 곡이 유명해진 이유는 세계 최초로 스크래치가 레코딩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스크래치가 그저 뉴욕이라는 일개 도시의 것이었는데 이 곡이 유명해지면서 전 세계에 스크래치, 턴테이블리즘 같은 디제잉이 널리 전파되었다. 한 마디로 스크래치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보여준 것이다.



SIR-MIX -A LOT의 <BABE GOT BACK>

90년대 초반에 나온 이 곡에는 굉장히 화려한 스크래치 솔로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한국에서도 무척 히트를 쳤다. 최근에는 옷찾사 프로그램의 나몰라 패밀리 코너에도 쓰였다.



DJ Q-BERT의 모든 곡

전부 스크래치가 들어간 곡들이다. 디제잉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외에 DJ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DJ Bay의 블로그나 위키피디아를 참조
<http://blog.naver.com/djbay>
<http://en.wikipedia.org/wiki/DJ>

미니인터뷰

“힙합은 착한 음악이니까요!”

DJ Bay와의 인터뷰를 시작할 즈음 맞은 편 방의 달한 유리문 안으로 열심히 보컬레슨을 하고 있는 선생님과 한 학생의 모습을 목도할 수 있었다. DJ Bay에게 물어보니 랩 레슨 시간이라고 했다. 아니, 이럴 수가! 현직 래퍼와의 조우! 이런 좋은 인터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삼십 분 후, 레슨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 박상혁 씨를 반 강제로 붙잡아 놓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랩 아티스트 박상혁. 허클베리피라는 예명의 그는 다시 태어나도 랩을 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형형한 눈빛에 귀가 오싹할 정도로 정확한 영어발음이 인상적이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허클베리피는 업계에서도 실력파 래퍼로 소문나 있는 아티스트였다.



Q. 현재 예명과 활동하는 그룹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랩네임은 허클베리피고 현재 피노다인 팀에 있다.

Q. 랩은 누구나 할 수 있나. 예를 들어 나 같은 보통 사람도.

A. (방금 레슨을 마친 학생을 가리키며) 이 친구는 이제 겨우 중학교 3학년생이고 지금 이 레슨이 태어나서 겨우 3번째 레슨이다. 들어보겠나?(컴퓨터를 클릭하자 방금 녹음을 마친 학생의 랩이 생중계된다. 우와, 장난이 아니다.) 몇 번 만에 이 수준이 되는 게 아무나 가능하다고 보나? 누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예술은 때려죽여도 재능이다. 열심히 하면 늘긴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 이 친구의 경우는 부모님이 대학을 아예 실용음악과와 보컬 전공으로 보내려고 생각 중이다. 나 역시 그 케이스다. 우연히 학과장님 눈에 띄어 실용음악과에 들어가게 됐다.

Q. 랩을 가르쳐주는 음악학원이 있나.

A. 거의 없다. 대부분은 비공식적인 루트로 배운다. 나의 경우도 랩이 있는 음악을 좋아하다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랩 아티스트가 되었다.

Q. 래퍼들 중에 본인의 롤 모델이 있나.

A. 다이아믹 듀오의 개코 씨다. 랩 쪽으로는 나의 롤 모델이다. 원래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가 무척 힘들다. 대중이 원하는 힙합과 본토 힙합 사이에서 갈등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개코 씨는 그 사이에서 균형 잡기를 잘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사가 기가 막히다. 그의 가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안다. 예를 들어 <죽일 놈>이란 타이틀곡만 들어보자. 어려운 단어 안 쓰면서도 바로 공감이 간다.

Q. 힙합 같은 소외된 음악장르에 대한 문화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A. 기대는 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전하고 있다. 드렁큰 타이거 앨범에서 힙합의 전설이라는 세계적인 래퍼가 피쳐링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잘 하면 모든 것은 다 해결 된다.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된다는 건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수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항상 비주류일거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우리들끼리의 연대의식이 굉장하다.

Q. 많은 사람들이 힙합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A. 힙합은 정말 신기하고 좋은 문화다. 무조건 힙합이 폭력적이고 자극적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다. 나는 힙합 안에 건강한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힙합이라는 문화는 실내에 갇혀있는 문화가 아니라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문화기 때문이다. 생명력이 있는 문화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힙합을 가르친다고 해보자. 현재로서는 그 친구들이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기껏해야 피씨방, 노래방, 술집이다. 어린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끼를 힙합이라는 액티브한 장르를 만나서 마음껏 발산할 수 있다면 훨씬 밝고 명랑해 질 것이다.

힙합은 현존하는 모든 음악장르 중에서 가장 솔직한 장르다. 때로는 그 솔직함이 과격함으로 비쳐질 때가 있지만 다른 장르에서 감히 다루지 못하는 주제들을 과감하게 건드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시경이 발라드에서 아동폭력 얘기를 하면 안 어울리지만, 우리가 하면 어울린다.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힙합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기성세대를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뮤지션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90년대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고 지금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에 더 나아질 거라 본다.

글 | 박초로미

現 그라우 갤러리 대표. 본업은 미술인이지만 부업은 프리랜서 기고가다. 인터뷰, 여행, 문화예술 관련 원고를 쓰고 있다. 와인에 사족을 못 쓰며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분위기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분위기가 좋은 책을 쓸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

사진 | 천현정



사랑하는 이를 나의 손이 어루만집니다.

내 소중한 일터 나의 손이 함께 합니다.

맘이 불안하면 내 두 손이 한데 모아져 저를 위로합니다.

소망이 가득할 때 내 두 손이 가슴으로 올라와 모아집니다.

손

누군가 사진촬영을 하자고 “손을 좀 쥐보세요.”합니다.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앗, 손이 못생겨 싫은데요.”





이제야 나의 삶이 온전히 들어있는 나의 손을 봅니다.

첨엔 정말 못났는데,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손을 닦을 때조차도 거울로 얼굴을 보며 손만 움직였었네요.

한참을 봅니다.





손이 함께한 소망, 사랑하는 이가 내 두 손 안에 있습니다.

일터에서 얻은 훈장인가 봅니다.

손등이 살짝 트고 손톱 밑에 내 일터의 흔적이 있네요.

이제 손을 자주 보렵니다.

글, 사진 | 한금선

판자촌, 독거노인, 거리의 아이들 등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진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07년 <집시 바람새 바람꽃>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통해 작업을 발표해 왔다. 현재 월간 <인권>에서 사진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HOT SKETCH

2010 새로운 문화지형

❶ 낭독 문화의 재발견



배우가 읽어주는 소설 <위험한 독서> 중 한 장면

말하는 소설, 움직이는 소설 픽션의 세계가 확장된다

낭독 문화의 재발견

그 시절 내 마음에 힘이 되었던 책 한 쪽을 펼친다.
고백하듯 그 구절을 소리 내어 읽는다.
작가의 이야기가 화자의 것이 되고
화자의 이야기가 나의 것이 될 때 책은 더 이상 책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 공중파 채널에서 밤늦은 시간 나지막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교양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문화예술인들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조곤조곤 읽어주는 책 한 구절과 그 글에 얽힌 사연을 고백할 때면 어떤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보다 가슴이 뭉클했다.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고 마니아를 만들었고, 한때 문학소녀였거나 문학청년이었던 이들을 그 밤까지 깨어있게 했다. 시청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공중파의 특성상 한때 폐지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시청자들과 참여했던 문화예술인들의 반대로 프로그램은 여전히 건재하다.

〈낭독의 발견〉.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낭독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구절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나누는 시간이었다.

책이란, 작가의 글이란 내밀한 시간을 전제로 한다. 책의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그곳은 광장이 아니라 골방이다. 책과 독자의 일대일 만남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낭독 문화는 작가와 독자를 잇는 매개로, 소설과 다른 장르를 잇는 새로운 형식으로 대중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지난 한 해 일간지의 캠페인에서부터 작은 책방의 독자와의 만남까지 낭독 문화가 꽃피웠던 자리를 되돌아본다.

HOT SKETCH

2010 새로운 문화지형

① 낭독 문화의 재발견

책, 다함께 읽고 나눈다

〈책, 함께 읽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선일보 공동주최로 2009년 2월부터 한 해간 진행된 캠페인이다. 장관, 시인, 소설가, 배우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낭독회를 가졌는데 그야말로 낭독 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주최 측 집계로,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국 880곳에서 총 9만 940명의 청중이 참석한 낭독회가 잇달아 개최되었다. 459명의 저자와 665명의 배우가 함께한 낭독회는 공공독서의 즐거움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준 행사였다.

첫 행사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김훈의 「칼의 노래」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배우 송승환 씨가 낭독하는가 하면, 문학평론가 이어령, 시인 김남조, 소설가 김주영, 황석영, 신경숙, 정이현 씨 등 유명 문인들이 캠페인 기간에 낭독회 무대에 올랐다. 그동안 이순재, 최불암, 박정자, 김혜자, 권성덕, 윤석화, 배한성, 이태원 씨 등 유명 배우들이 읽어준 글귀는, 낭랑한 목소리와 훈련된 발성법으로 낭독의 묘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매월 그달의 특성을 살려 책을 선정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낭독회는 단발성 이벤트라는 성격이 짙다. 이 프로젝트가 생활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한 번의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책을 읽을 즐거움을 공감시키는 게 관건일 것이다. 지난 캠페인은 다양한 시도로 공공독서의 방법론을 모색해본 시간이었다.

YES24, 중앙일보,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한 〈책 읽는 서울-저자와의 만남, Leader&Reader〉는 저자와 만나 책의 감동과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데서 독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공식직함은 팝 칼럼니스트지만 대중들에게 예능프로그램의 패널로, 연애상담가로 유명세를 떨칠 만큼 입담 좋은 김태훈 씨의 진행과 초대된 작가들의 진솔한 자리는 참석한 독자들로 하여금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그동안 참여한 작가로는 방송드라마 작가 노희경을 시작으로, 김용택, 신경숙, 박범신, 구병모, 김탁환, 차인표, 김창완 등이 있다. 독자들은 작가들에게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단상,



〈책 읽는 서울-저자와의 만남 Leader & Reader〉 소설가 신경숙과의 만남

평소 하고 있던 고민을 스스럼없이 털어놓았다. 그곳은 광장이었지만 여전히 밀실의 성격을 띤, 그래서 작가와 독자와의 거리감을 좁혀준 자리였다. 진행자와 작가의 짧은 대담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작가가 자신이 꼽는 최고의 구절을 읽어준다. 글을 처음 쓸 때의 기분으로, 마음을 다하여 읽어주는 글 한 구절은 집으로 돌아가는 독자들에게 내내 여운을 남겨주었다.

이제 작가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조금 더 내밀한 공간으로 이동해 보자.

작가의 목소리를 듣는다

대학로의 맛집과 소극장 사이에서 곳곳이 문학의 향기를 고수하고 있는 작은 책방, 이음아트를 아시는지. 2005년 10월 31일 문을 연 이음아트는 2006년부터 작가들을 초대하고, 작가가 낭송하거나 공연으로 구성해 보여주는 낭독 공연을 마련해 왔다. 이 자리는 독자들의 요청이나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주최 측의 요구가 아닌 작가들이 독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자리라는 데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출판사, 대형 서점, 홍보 매체 등의 이해관계를 떠나 소박한 곳에서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것은, 어쩌면 그동안 작가와 독자가 꿈꿔 왔던 자리일지도 모른다.

“책방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자주 놀러 와 사장님과

a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곳에서 낭독 공연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작가들이 독자들을 이런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고요. 상업적으로 잘 팔리는 책이 아니라 정말 작품은 좋은데 출판 홍수 속에 묻혀가는 문학 작품을 소개하고도 싶었고요. 독일, 프랑스에서는 카페나 극장에서 작가들이 신작을 발표하는 기회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50명 정도 앉으면 빠곡히 들어차는 작은 책방에서 저는 작가와 독자를 이어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을 뿐이죠.” 희곡을 쓰면서 문학 라디오의 PD로, 문학나눔 콘서트의 연출자로 활동해 온 최창근 작가는 낭독 공연 연출을 하며 낭독에 대한 필요성 이상의 애정을 갖게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이 시간에는 작가와 문학평론가를 초청하고, 때로는 배우가 책의 한 구절을 낭독하기도 연기하기도 하고, 작가의 목소리로 책의 한 구절을 들어보기도 한다. 사회적 열풍이나 기대효과를 바랐던 것은 아니지만, 낭독 공연은 회를 거듭할수록 작가와 독자들 사이에 회자되어 때가 되면 찾아오는 마니아들을 만들었다.

작년 한 때 이음아트는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도 맞았지만 2대 사장인 조진석, 김한수 씨가 서점을 물려받음으로써 그곳에서 소박한 낭독 공연의 낭만을 계속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상시적으로 사진도 전시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전시나 공연이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찾아가 의견을 내놓고 청하면 그 공간의 주인이 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행사라는 것이다.

책을 읽는 목소리는 내가 될 수도, 작가가 될 수도 혹은, 배우나 성우가 될 수도 있겠다. 책을 읽는 공간은 서점이든, 거리든, 버스 정류장이든 어디면 어떠랴. 이제는 극장으로 이동해 배우가 읽어주는 소설 한 대목을 들어보자.

배우가 읽어주는 소설

대학로에서 해화로터리로 접어들어 200미터 쯤 올라갔을까, 작년에 문을 연 선돌극장은 지난 12월부터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카페로 업종 변경을 한다. 업종 변경은 우스개 소리고, 극장에서 커피를 마시며 낭독 공

연을 감상한다는 것이다. 공연 시작 30분전부터 극장 앞 로비는 커피 향으로 가득하다. 커피 전문점의 협찬으로 제공된 드립 커피의 진한 맛은 추운 공기를 가르며 극장에도 착한 관객들의 몸을 녹여준다. 화, 수, 목, 금요일마다 네 명의 연출가가 네 편의 단편소설을 들려주는데, 이들 모두 연극 연출가인 만큼 공연마다 개성이 묻어난다.

소설가 김경옥의 「위험한 독서」는 희곡작가 최명숙이 연출하고 배우 이화룡, 이지현이 낭독한다. 배우 이화룡이 화자가 되어 낭독하면 배우 이지현은 독서치료가사가 만난 여자로 등장해 연기를 한다. 이 작품은 객석을 배우가 등장하는 통로이자 무대로 사용하며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한다는 게 특징이다. 작가와 독자의 경계를 허물듯, 관객과 무대의 경계도 허물어 버린다.

박완서 작가의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을 연출한 성기웅은 배우 강애심과 천정하의 목소리로 작품을 들려준다. 무대에 스크린을 내려 작품의 배경인 1950년대 전후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스크린 앞은, 마치 작가 박완서의 작업실인 양 글을 쓰는 책상이 놓여 있다. 작가의 글 중 생소한 단어는 스크린에 소개되기도 하는 등 반짝이는 아이 디어와 감성이 빛나는 공연이다.

연출가 최진아는 윤대녕 작가의 「천지간」을 무대에 올린다. 세 명의 배우는 독자1, 독자2, 독자3이 되어 작품을 읽어간다. 소설은 모두 나(=작가 윤대녕)가 화자지만, 공연은 「천지간」을 읽는 사람들이 화자가 된다. 세 명이 한 구절씩,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읽어가는 이 공연은 눈을 감고 귀만 열어놓았을 때 언어의 리듬, 분위기, 음악적 효과와 변주를 최대한 느낄 수 있다.

“무대가 빈 공간이 아니라 지금 선돌극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연극 〈눈먼 아비에게 길을 묻다〉 세트를 그대로 둔 상태로 연출한다는 게 네 명의 연출가에게 주어진 공통의 과제였어요. 미리 약속했던 것은 아닌데 공연을 올리고 보니 네 명이 모두 다른 방식으로 무대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객석을 무대로 사용한다든가, 무대에 스크린을 가림막처럼 쓴다든가 하는 거죠. 좋아하는 작가의 한 공연만

HOT SKETCH

2010 새로운 문화지형

① 낭독 문화의 재발견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어 네 작품 모두를 감상하신다면 읽는 소설과 낭독공연의 묘미를 즐길 수 있으실 겁니다.” <천 시간>을 연출한 최진아의 말이다.

마지막으로 문순태 작, 하일호 연출의 「대 바람 소리」를 들어보자. 여배우 박근형이 나와 책을 읽어내려 가는데, 배우가 앉은 테이블 뒤로 정감 있는 애니메이션이 흘러간다. 무대 오른쪽에 놓인 작은 벤치 위에는 극중 중요한 모티브인 노란 점퍼를 놓았는데, 어느 순간 바리스타였던 한 남자(배우 홍성춘)가 노란 점퍼를 입고 할아버지 역으로 불쑥 들어온다. 관객들 중 여성 한 명을 데려가 가만히 앉히면 그 관객은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된다. 스피커에서 극중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대화가 나오면 손짓발짓으로 그 대화를 표현한다. 관객을 낭독 공연에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객석에서는 웃음과 함께 따뜻한 행복을 느낀다.

“낭독이 공연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 고민의 산물이 4인 4색 다른 작품을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다. 낭독에도 여러 형식이 있을 텐데 이번 공연에서는 연극 연출가들이 자기만의 연극성을 끼어 넣었어요. 공연의 성격이 강한 게 아니라 1% 연극성이 가미된 낭독인데 앞으로 계속 연출로서 시도해 보고 싶은 작업입니다.” 이 공연을 기획한 최명숙 작가는 소설과 연극의 만남은 낯설고 함께 공통분모도 갖고 있어 크로스오버하기에 적합하다고 말한다. 배우가 읽어주는 소설은 대학로 선돌극장에서 1월 29일까지 계속된다.

자, 이제 카페와 극장에서 읽던 책을 잠시 덮고 더 가까이 창작자들의 작업실로 가보자. 그곳에서 태어나고 버려지는 문장들, 단어들을 만나보자.

정기 낭독회 <연희와 연애하다!>

이 겨울 옆구리가 시리다고 엄살 부리는 이들의 옆구리에 책 한 권씩 쓱쓱 끼워 넣어주고 싶을 정도로, 책은 삶에 지친 우리를, 고독에 몸부림치는 우리를 위로해준다. 올 11월



<배우가 읽어주는 소설>에 참여하는 배우들



연희문학창작촌 정기낭독회에 참가한 고양예술고 학생



작품낭독 중인 이기호 소설가



시낭송 하는 김명인 시인

개관한 연희문학창작촌에는 요즈음 문학과 연애하는 스무 명 남짓의 작가들이 머물고 있다. 지난 달 이곳에서 〈연희와 연애하다!〉라는 달콤한 타이틀로 작가들의 낭독회가 열렸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중견시인 김명인 작가와 소설가 이기호 작가가 소개되었는데, 특유의 서정과 날카로운 인식의 세계를 보여준 김명인 시인의 「꽃차례」가 낭송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연재한 소설 「사과는 잘해요」를 이기호 작가가 낭독했다. 멀티미디어 랩에 자리를 좁혀 앉은 독자들이 숨소리를 낮춰 작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작가의 동요이거나 앓된 꿈을 품은 작가 지망생이거나 작가의 오랜 독자인 동네 주민들이었다. 이후 김명인 시인이 이기호 소설가의 「사과는 잘 해요」 중 한 대목을 읽고, 이기호 소설가도 김명인 시인의 「꽃차례」를 번갈아 읽었다.

서점에 가 먼저 묻은 책장을 더듬으며 책을 고르던 시대는 지났다. 요즘 독자들은 인터넷을 살살이 뒤져 정보를 얻고 적립금을 비교해 가며 책을 고른다. 그러나 가끔은 퇴근길 동네 책방에 들러 시 한 편으로 요기를 달래고, 옆 사람이

고르는 책을 기웃거리려고 싶어진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쓴 글이더라도, 글은 여전히 아날로그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먼 곳에서 느껴지는 향수가 있다. 그것은 멀리 혹은 가까이 들려주는 작가의 목소리기도 하니, 눈을 감고 귀로 듣고, 귀를 막고 가슴으로 책을 들을지이다.

나를 위해 누군가 읽어주는 책 한 구절, 내가 누군가에게 들려주려고 펼쳐 읽는 책 한 구절로 오늘 하루가 행복해진다. 낭독의 즐거움은 이로서 충분하다.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보이지 않는 파장이 더 멀리 더 깊이 가슴을 울리기 때문이다.

글 | 김민정

밤새워 문장 하나 쓰고 희열을 느끼는 작가는 아니지만 종종 마감시한을 넘기고 애태우고 밤새 우는 극적인 작가다. 호랑이 해, 범처럼 힘찬 글을 쓰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사진 | 김병구(45p_1,2,3)

잡지 필름 2.0과 DAZED & CONFUSED의 사진을 찍었다. 지금은 문화와 예술에 관한 오브제를 찾아 국내외를 여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선돌극장(40p, 44p)

HOT SKETCH
2010 새로운 문화지형
② 지역공동체 문화벨트

지역공동체의 공간과 사람 사이, 예술문화의 향기가 촘촘히 흐르다

지역공동체 문화벨트



지난 한해도 우리나라 문화예술은 변화와 성장을 계속했다.
수많은 예술작품이 다양한 모양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며, 새로운 방식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참신한 시도도 눈에 띄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흥미로운 현상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문화벨트의 형성이다.

2009년, 우리 문화예술의 풍경 한 자락

삼각형을 그리는 인간의 욕구단계에 따르면 문화예술 향유의 욕구는 의식주에 대한 욕구 위쪽에 위치한다. 일단 먹고 살 만해야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볼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2009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도 꽤나 힘든 한해를 보냈지만 다행히 문화예술의 발전까지 멈추게 하지는 못한 듯 보인다. 크고 작은 문화축제들이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었고, 민관의 다양한 예술지원정책에 힘입어 예술가들도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 서울문화재단은 서울 각 지역에 서울시창작공간을 차례로 개관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독특하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나섰다. 특히 예술이 예술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시민들과 소통하며 성장하는 유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창작공간의 품을 넉넉하게 열어놓았다. 이처럼 지난 2009년은 서울문화재단과 같은 예술지원기관이나 예술단체뿐 아니라 행정기관과 지역단체들까지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한 한해였다.

뚜렷한 문화적 아우라를 형성해온 지역들은 그 특성을 반영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참여형 축제를 기획하여 그들의 문화적 색깔을 하나의 지역브랜드로 정착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홍대와 대학로 등 문화예술공간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공간들 사이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하나의 독특한 문화벨트를 형성해 나갔다.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벨트가 형성되다

젊은이들의 클럽문화로 대표되던 홍대지역은 몇 년 전부터 갤러리와 공연장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상상마당처럼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도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고 개성이 뚜렷한 예술 공간으로,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전시와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연극의 메카'로 불리는 대학로는 오랜 소극장 문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그 위상을 지켜나가고 있다.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이 해외에서 수입된 대형뮤지컬에 쏠리면서 대학로 소극장의 객석이 텅 비어버리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최근 개관 2주년을 맞은 서울연극센터를 중심으로 관객의 문화적 편식을 개선하여 건강한 대학로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홍대나 대학로 같은 문화스팟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지역도 있다. 34개의 주한 대사관저가 모여 있는 성북구는 최근 개관한 성북 다문화빌리지센터를 통해 외국인거주자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지역주민과 문화를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역주민들 스스로 예술의 주체가 되어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공동체도 있다.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성미산마을은 벌써 8년째, 해마다 동네사람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축제를 열고 있다.

HOT SKETCH

2010 새로운 문화지형

② 지역공동체 문화벨트

홍대지역_ 문화예술공간들의 유기적 네트워킹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20~30대가 가장 즐겨 찾는 장소는 단연 '홍대'다. 홍익대학교를 중심으로 홍대입구역, 상수역, 합정역을 꼭짓점으로 연결한 지역 일대를 통칭 홍대라 부른다. 미술대학이 유명한 홍익대 주변으로는 입시미술학원이 줄지어 있고, 골목마다 미술학도들이 그린 자유분방한 벽화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젊은이들이 홍대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곳곳에 개성적인 공간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갤러리, 라이브클럽, 극장과 같은 문화예술공간은 물론, 카페나 레스토랑, 옷가게들도 감각이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작가들의 작업실, 디자인회사, 출판사, 사진스튜디오 등 문화콘텐츠가 풍부한 공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공간이 뿔어나는 예술적 아우라가 풍부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 예술 축제들이 이곳에서 판을 벌이곤 한다.

그런가 하면 3년쯤 전부터 작은 갤러리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꽤 많은 갤러리가 골목골목에 문을 열었다. 카페의 일부를 갤러리 공간으로 할애하는 갤러리카페들까지

생각한다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이들 갤러리 대부분이 틀에 박힌 전시공간의 이미지를 벗고 좀 더 자유롭고 실험적인 대안공간으로서 예술을 담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9일까지 홍대지역 문화예술공간 30여 곳에서 펼쳐진 '홍벨트축제'는 바로 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서교예술실험센터, 갤러리 킹, 그문화, 달링스튜디오, 프레파라트연구소 등 5개 단체가 주최가 되어 전시와 심포지엄, 문화예술공간 투어, 작가와의 대화, 문화강좌 등의 프로그램으로 홍벨트축제의 그림을 그려나갔다.

이러한 노력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미디어아트 채널 앨리스온(AliceOn)이 제작하는 '채널 컵'은 창의적인 작품, 공간, 작가, 예술문화 현상들을 소개하는 최초의 지역방송으로, 홍대지역 예술 공간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2009년 끝자락, 홍대지역은 홍대 앞 문화예술공간들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문화유기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1 갤러리 킹 외관
2 '홍벨트축제' 오프닝
3 그문화 내부

대학로_소극장문화의 전통과 현대적 시스템의 만남

연극인들의 고향 대학로. 시대가 변하면서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지만, 대학로는 여전히 공연예술의 메카로서, 인사동과 함께 서울의 2대 문화지구로 명성을 지키고 있다. 대학로가 문화지구가 된 것은 130여 개의 소극장이 있기 때문이다.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대학로 골목 어느 한 칸을 지켜온 소극장 곳곳에는 가난하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무대에 섰던 연극인들의 예술혼이 배어 있다. 물론 이제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낮선 사람과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야 하는 소극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지금도 소극장의 낭만은 얼마쯤 배우들의 숨소리와 땀 냄새까지 느낄 수 있는 좁은 공간의 불편함에 빛지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값진 예술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대학로에도 찬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다. 2000년대 들어 화려한 무대와 스타가 있는 대형뮤지컬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대형공연 쪽에 편중되고 관객의 입맛도 달콤하고 세련된 문화에 길들여지기 시작했다. 대학로 소극장들은 관객이 한 사람도 없어 공연을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한 마디로 대학로 소극장 문화의 위기였다.

하지만 한국연극협회, 소극장연합회 등 대학로에 있는 여러 민·관·공영단체가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특히 2007년 11월 대학로 한복판에 탄생한 서울연극센터가 구심점이 되어 대학로공연물의 홍보마케팅, 연극투어 등의 프로그램 지원, 대학로 문화지도 만들기, 정보자료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서울연극센터는 대학로에서 지난 3년간 공연되었던 소극장 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중극장 작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션 사업’을 통해 소극장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또한 2010년 수험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79개 작품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현재 서울연극센터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1,000여 명 정도. 그밖에 자료구축 약 6,000여 점, 티켓판매 월 3,000장, 가입회원 13,000명 등 서울연극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학로 문화벨트의 부활이 가시화되고 있다.



성북구립미술관 전경

성북구_다국적 커뮤니티로 연결된 문화벨트

성북구는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찾는 장소는 아니지만 산자락 아래 아름다운 집들과 숨은 맛집이 자리 잡은, 서울에서 드물게 고즈넉한 풍경을 간직한 곳이다. 성북구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외국인이 많이 산다는 것이다. 현재 34개의 주한 대사관저가 성북구에 있으며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830여 명을 포함해 성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약 8,500명에 이른다. 성북구에 가면 인도를 따라 태극기와 여러 나라의 국기가 짝을 이뤄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런 지역적 특징 때문에 성북구에는 일찍이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한 기관이 자리 잡았다. 월곡동에 있는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와 보문동에 있는 성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것이다. 주로 한국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일상적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성북구가 외국인에 대한 문화적 지원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동 통폐합 이후에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면서부터다. 동 통폐합에 따른 서울시의 지원금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2009년 11월 29일 기존의 성북

HOT SKETCH

2010 새로운 문화지형

② 지역공동체 문화벨트



1



2



3



4

1 홍벨트 : 달링스튜디오 전시작품

2 서울연극센터 내관

3 성북구립미술관 카페테리아

4 성미산마을축제 공연

2동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한 성북다문화빌리지센터와 성북구립미술관이 탄생하였다. 1층에는 외국인 상담코너, 정보자료실 겸 카페테리아, 다목적실, 사무실로 구성된 다문화 빌리지센터가, 2~3층에는 2개의 전시실과 프로그램실, 수장고, 사무실을 갖춘 구립미술관이 자리 잡았다. 센터는 외국인을 위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어교실, 어린이 방과 후 다문화교실,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그들의 나라를 지역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다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꿈꾼다. “누구나 찾아와 궁금한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예동장을 맡고 있는 독일인 한스크나이더의 말이다.

성미산마을_ 문화예술의 향유자를 넘어 주체로

‘성미산마을’은 행정구역상의 이름이 아니다. 성미산이 위치한 마포구 성산동이 중심이지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성미산마을이라고 하는지는 정작 주민들도 모른다. 그저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성미산 언저리의 어느 만큼을 우리는 성미산마을이라고 부른다. 정부의 근거 없는 개발공사로부터 성미산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성미산마을 1세대가 되었고, 아이들이 명문대에 가기보다 자연에서 뛰놀며 성장하기를 원했던 지역주민들의 뜻이 모아져 성미산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입시 위주가 아닌 자율적인 교육을 위해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를 세우고, 마을과 관련된 일은 항상 주민회의를 통해 함께 의논하고 결정했다. 도시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자유롭고 친환경적인 지역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다.

글 | 이현구

잡지기자, 사보기자, 광고기획사 카피라이터를 거쳐 현재 프리랜서 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다양한 기업의 사보 및 간행물 필자로, 광고 카피라이터로, 매체를 넘나들며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고 있다.

성미산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 하나는 바로 마을축제다. 8년 전 작은 동네잔치처럼 시작된 ‘성미산마을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규모도 커지고 내용도 더욱 풍성해졌다. 어느 해는 마을축제 때 발표한다고 엄마, 아빠들이 모여 밴드를 결성해 연습을 하더니, 아예 ‘아마밴드’라는 밴드동아리를 만들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축제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한 마을 동아리가 어느새 여덟 개, 고만고만한 소모임까지 합치면 열 개를 훌쩍 넘는다. 이러한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은 작년 2월 성미산마을극장이 문을 열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사진동아리 동네사진관, 노래동아리 세노채, 영상동아리 물수제비뜨는 네모, 연극동아리 무말랭이 등등 분야별로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올해 50대 후반 어르신들로 구성된 어르신극단이 창단되었고, 내년에는 청소년연극동아리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극단 ‘무말랭이’의 동아리반장을 맡고 있는 송민규 씨는 이렇듯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비결을 ‘경쟁이 없는 순수한 즐거움’에서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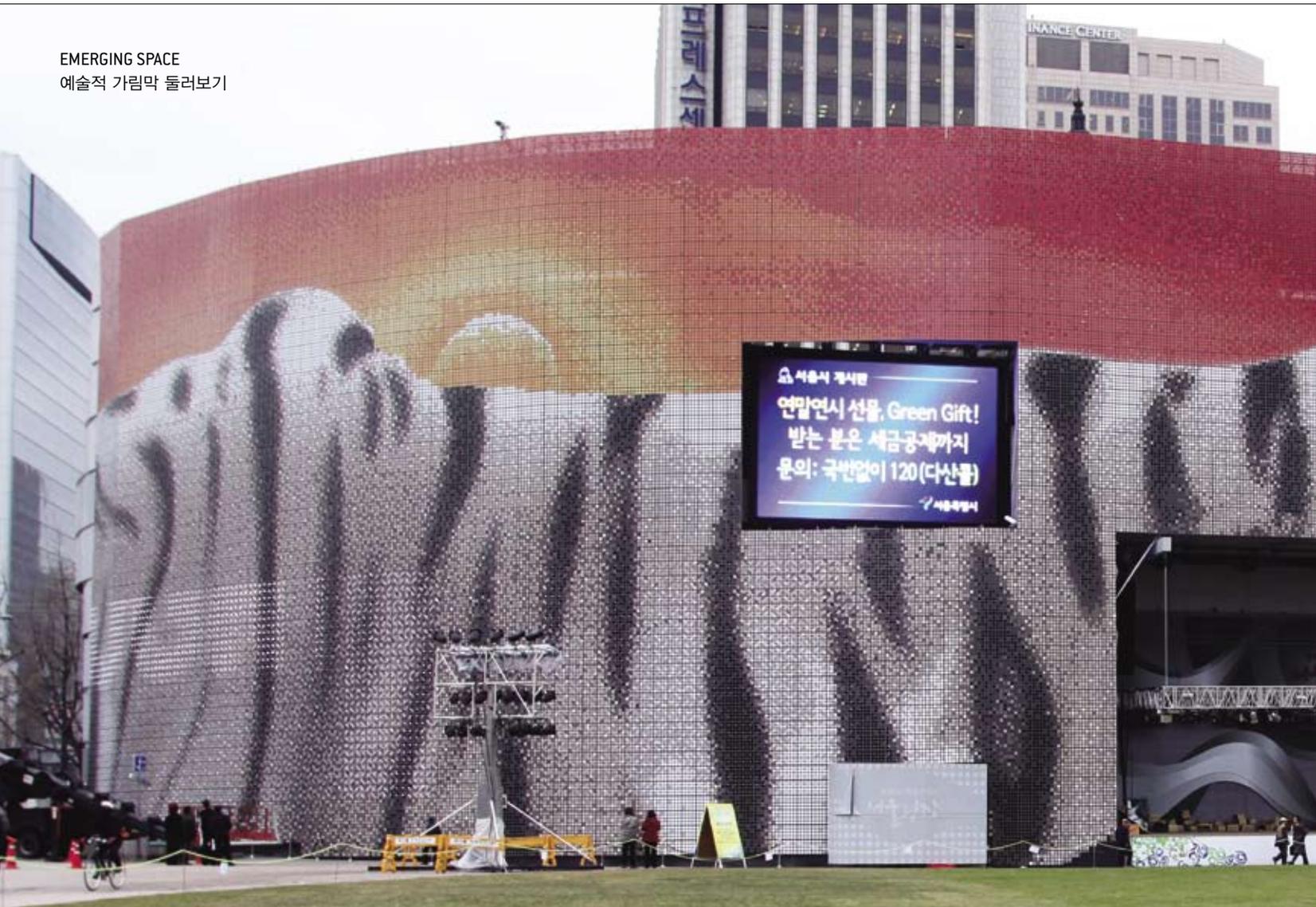
“연습에 꼭 와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무대에서 누가 얼마나 잘 하는지 평가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동네사람들끼리 모여서 다함께 즐기는 거죠.”

성미산마을에서 송민규 씨는 ‘똥’으로 불린다. 주민 대부분이 것처럼 별칭을 가지고 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름 대신 서로의 별칭을 부르는 분위기 속에서 성미산마을 주민들은 나이와 직업의 경계를 넘어 즐겁게 소통하고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간다. 문화예술의 향유자에서 주체로 발돋움한 성미산마을 주민들의 2010년 행보가 궁금해진다.

사진 | 천현정(46p, 48p_1,2,3, 50p_1)

사진제공 | 성북다문화빌리지센터(49p, 50p_3)
서울연극센터(50p_2)
성미산마을(50p_4)

EMERGING SPACE
예술적 가림막 둘러보기



아트펜스, 도시에 꿈과 예술을 입히다

도심 속 공공미술_예술적 가림막 둘러보기

도시에 색을 입히자. 흥물스런 속내를 보여주기 싫다면
그 앞에 예술을 덧입자. 서울의 거리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는 아트펜스는
그 너머의 완성되지 않은 미래를 담아내었다.

서울 곳곳의 아트펜스를 둘러보는 예술기행을 떠나본다.



EMERGING SPACE
예술적 가림막 둘러보기

‘오늘날의 미술, 또는 미적공간은 대중과의 호흡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확장되고 있으며, 그곳에서 삶을 영위해온 시민들은 이제 미술을 어디서나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생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작품이 놓인 공간이 미술의 유한성을 보게 하고 시각적 장치를 통해 문화 환경을 읽게 하는 일차적인 장소임을 깨닫고 있다. 실제로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접근 가능한 공간에 친근함을 유도하는 감성의 매개로 미술이 놓임으로써 자신의 삶이 자발적으로 진보하고 있음을 인지하곤 한다. 그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접하며 단 하나의 이미지에 멈추는 시선이 모든 시대에 유효한 시간의 멈춤임을 자연스럽게 인정한다. 때로는 현대의 문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그 흐름과 유속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스타일과 기법, 이미지들을 통해 평소 알 수 없었던 연대기를 발견하기까지 한다. 이는 확실히 과거와는 다른 문화적 패턴임에 분명하다.

우리네 현실에서도 미적 히스토리와 시대성을 포박하는 공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사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도심 속 길옆에 놓인 약 8천여 개에 달하는 상징조형물을 비롯한 그 많은 조각품들은 물론, 기업의 로비나 카페의 빈 공간, 백화점과 도서관, 병원 등에 들어차 있는 여러 미적 결과물들, 여기에 예술을 입힌 벽과 벤치, 건물까지 셀 수 없이 많다. 물론 요즘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공사장 가림막, 즉 우리가 흔히 ‘아트펜스(art fence)’라고 부르는 외벽 설치 작품들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트펜스, 거대한 캔버스이자 아트메신저

오늘날의 아트펜스는 더 이상 너저분한 공사장과 거리를 구분 짓는 물리적 장벽이 아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도시를 상큼하게 물들이는 거대한 아트 캔버스며, 공공의 공간에 대한 미적 관심을 유도하는 아트메신저라 해도 그리지 않다.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도 아트펜스는 대중의 미적 욕구와 감성을 반영하고 미의 공유를 가능케 하는 훌륭한 매개로서 부족함이 없으며,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창작무대로서의 역할까지 훌륭하게 맡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인들의 척박한

일상을 예술로 물들이며 도시를 생기발랄하게 꾸미고 있는 아트펜스에는 어떤 게 있을까.

지난 2006년 서울 명동에 매우 인상 깊은 작품이 들어섰다. 종절모를 착용한 신사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아니면 정지 상태인지 알 수 없는 모양을 하고 있는 거대한 그림이 건물 하나를 통째로 포장하고 있었는데, 바로 르네 마그리트의 <겨울비>라는 작품이었다. 신세계 백화점 본점 건물을 휘감았던 당시 그 작품은 1년 저작료만 1억 원이 넘는 비싼 그림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움을 유발했지만 칙칙하고 불편한 소음을 내는 공사장 가림막을 예술장식으로 탈바꿈시킨, 앞선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겨울비> 이후 건축물을 무대로 한 아트펜스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 등장한 3천 여 개의 붉은색 리본 설치 프로젝트(작가 신지 오마키, 일본)로 이어졌으며, 명동입구 하나은행 본점에 초록색 리본 26만 개를 이어붙인 설치프로젝트(작가 김현, 윤규상)와 경복궁 배치그림인 북궐도 위에 광화문의 건립에서부터 중건 및 복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내레이션이 담긴 바코드를 잇대 만든 58미터짜리 대작(작가 양주혜)으로까지 번져나갔다.

더불어 도로와 공사장을 물리적으로 가로막던 담장형 아트펜스도 마치 핏줄처럼 공사장마다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초동 예술의전당 앞 서비스플라자 아트펜스는 전당 특유의 문화복합공간이라는 이미지를 구현한은 물론 포토존을 마련해 시민을 배려하는 기능을 추가해 눈길을 끌었다. 한남동 일신방직 신사옥을 일곱 빛깔 무지개로 수놓는 바코드 아트펜스, 경원대학교 리모델링 아트펜스, 역삼동 VOV 빌딩 아트펜스, 신사동 신성건설 공사장 아트



을지로 아트펜스 <우제류를 위하여>

펜스 등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작은 '시티 뮤지엄'이라는 뜻을 지녀 '시지엄(Cseum)'이라 이름 붙여진 73미터 길이의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제2사옥 건설현장 아트펜스(작가 이 정교, 우제길, 이영희, 이성자, 하인두의 그림이 콜라주 형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작가들의 예술세계를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해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처럼 2006년 이후 건물과 공사장 담벼락에 아트를 입힌다는 개념은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의 날개를 단 채 대중 속으로 파고들었고, 시간을 거듭하면서 도시가, 건물이, 인식이 옷을 바꿔 입기 전 당연히 필요한 대형 타블로이자 자이언트 아트로까지 격상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해서 드러난 결과물들은 과거와는 달리 훨씬 고급스럽고 세련된 맛을 전달했다. 물론 오늘날에도 아트펜스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표현방법도 현대미술 못지않게, 페인팅이 주를 이뤘던 과거에 비해 대형 실사 출력으로 더욱 깔끔해졌고 평면에서 입체적 조형물로 변모했다. 여기에 조명을 활용해 운치를 자아내게 하는 등 재료와 작업방식 또한 매우 다양해졌다. 그리고 이는 현재에 이르러 도시인들에게 심미적인 안정을 돕는 방향에서 고착되어 가고 있다.

공공디자인 '미풍(美風)' 타고 진화하는 아트펜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아트펜스로는 서울시가 지난 4월 설치한 본관 청사 신축 공사장 가림막을 꼽을 수 있다. 총길이 130미터, 높이 25.6미터 규모로 청사 건립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이 아트펜스는 정지된 스냅사진 같은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공사장의 흉물스러움을 가리는 본연의 역할을 비롯해 시청 옛 본관동 건물의 외벽 보존 지시대, 홍보관, 공연무대, 전광판, 경관조명 등 다양한 기능을 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펜스'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더욱이 용도의 다양성에 걸맞게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 아트펜스에서는 여러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어 또 다른 재미를 엿볼 수 있다.

일례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온 광복절 모뉴먼트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월



광화문 가림막 <광화문에 뜬 달>

31일까지 '희망서울 2010'을 실시하는데, 경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준비된 이번 모뉴먼트는 2010년도 희망 메시지를 담은 11만 5천 개의 모바일트로 구성되며, 가로 75미터, 세로 25미터의 공간을 수놓았다. 오늘을 사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예술의 물결로 전달하려는 목적이 바람에 따라 일렁이고 있다.

서울시청 가림막이 현대적으로 다층적이라면 광화문에 위치한 <광화문에 뜬 달(부제 산, 바람)>은 역사성의 고취와 예술적 특별함에서 중요한 아트펜스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종합청사 옆, 광화문 복원공사 현장에 설치된 강익중 작가의 이 거대한 패널그림은 높이 21미터에 폭 41미터라는, 거대함을 뽐낼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달 향아리처럼 통일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담은 산그림 948개, 달 그림 1582개, 단청 86개 등이 가로 세로 60센티미터의 작은 패널 총 2611개에 새겨져 있어 예술적 가치 면에서도 큰 비중을 지닌다. 이외 을지로 3가역 명동성당 길 건너에 위치한 아트펜스인 <우제류를 위하여>는 미적 공간으로 친밀감을 높인 작품으로 분류된다. 길이 493미터에 높이 6미터에 달하는 공간을 온통 붉은색으로 도배하고 중앙에 등성등성 흰색으로 낙타, 소, 염소, 산양 등을 형상화한 부조 20여 점이 붙어 있는 <우제류를 위하여>는 도시

EMERGING SPACE
예술적 가림막 둘러보기



- 1 옛 대우빌딩의 <서울스퀘어>
- 2 한남동 일신방직빌딩 아트펜스
- 3 금호아시아나 가림막
- 4 DMC 아트펜스
- 5 신사동 신성건설 아트펜스



공공디자인의 산뜻함, 환경개선효과라는 장점을 함유하고 있어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프린트나 <우제류를 위하여>에서 선보인 부조가 아닌 나무, 식물, 돌, 철, 풍선 등의 소재에 조명, 사진, 홀로그램, LED 스크린 등의 다양한 첨단 소재를 응용해 순수 조형예술 가림막으로 재탄생된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7.2킬로미터에 달해 국내 최장 아트펜스로 등극한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가림막과 LED(발광다이오드)로 건물전체를 뒤덮은 옛 대우빌딩의 '서울스퀘어'가 그것이다. 우선 최첨단 디지털 시티의 상징성을 다양한 재료로 표현한 DMC 아트펜스는 크기나 표현방식, 참여 인원 면에서 국내 최대를 자랑한다. <아트피아(ARTPIA)>라는 주제 아래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160여 명에 달하는 예술가와 서포터즈가 참여해 완성한 이 펜스는 평면과 입체와 같은 여러 방식으로 제작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의 4대 원소인 물과 불, 바람, 흙에 미디어를 더해 모두 다섯 가지 원소를 작품 콘셉트로 하고 있는 이 펜스는 무엇보다 자연의 공간이 되는 원소에 사람, 동식물, 도시 풍경 등이 어우러진 미디어시티만의 다양한 성격을 부합시킴으로써 정체성을 부여하고 시티의 변화모습과 자연의 요소를 두루 탐미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편 발광다이오드 6만 개로 건물전체를 뒤덮은 서울스퀘어는 한국 근대화의 상징인 옛 대우빌딩에 세계 최대의 미디어아트를 입힌, 서울시 미디어 파사드 심의를 통과한 첫 번째 작품이다. 가로 99미터에 세로 78미터를 넘나드는 거대한 미디어 캔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서울스퀘어는 참여 작가들의 면면이나 형식면에서 매우 컨템포러리(Contemporary)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줄리안 오피, 양만기 등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상영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작 기간 1년 10개월, 예산만 약 30억 원을 투입해 설치된 서울스퀘어가 지닌 진정한 가치는 도시가 문과 벽이 존재하지 않는 겹

러리가 되고, 거리의 행인들이 자연스럽게 예술적 향유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관제문화적 시각 아쉬워

너저분한 공사장의 분위기를 예술로 감싸고 펍펍한 도시에 미감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미적공간으로 손색없는 아트펜스, 시간을 바탕으로 양식과 형식 모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이 대형 캔버스는 근래 들어 도시인들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는 마음의 휴식처로, 낡은 천막과 천편일률적인 공사장 풍경에서 느껴지는 난잡스러움과 삭막함을 희석시켜주는 청량제로 갈수록 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소통과 교감을 통해 움직이려는 공공미술의 몸짓 앞에서 단절과 부교합이라는 개념은 점차 녹아내리고 있다. 앞으로도 아트펜스는 예술이라는 옷을 입고 미술의 대중성과 공공성을 지향한다는 명목 하에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공공디자인이 서울시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는 도시미관개선 차원에서도 탄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와 기업의 경우 가림막이나 펜스에 기관과 자사 로고를 반강제적으로 삽입시키는 등 치적과 홍보를 위해 미적장치를 이용하는 관제문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은 문제로 남는다. 아트펜스가 가진 사회적 의미와 미적 의미, 사적인(private) 것과 공공(public)의 개념을 혼동해 공사가 끝나고 건축이 완료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예술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시각과 무지한 자세는 분명 아쉬운 일이다.

글 | 홍경한

미술평론가로서 추계예술대학교와 홍익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한국문화경영연구원 등에서 문화와 미술에 대해 강의했다. 미술 월간지 <미술세계> 편집장, <아트플러스> 편집장을 거쳐 현재는 <퍼블릭아트> 편집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문화평론집 <고함(도서출판 숨비소리 : 공저, 2006)>이 있으며 매일 미술과 관련한 다양한 글을 쓰며 살고 있다.

사진제공 | 월간 퍼블릭아트(54p, 55p, 56p_1,2,3,5)

사진 | 정강(52p, 56p_4)

현재 사진과 영상작품을 제작하여 전시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학생들도 만난다. 카메라로 하는 일은 웬만하면 다 즐겁다.

서울을 말한다

햇빛을, 표정을 조금만 더 붙들고 있어야겠다

본 쪽지는 이 시대의
문화예술인들이
보고 느끼는 서울의
이야기입니다.

실험영화 작업을 하는 독일 베를린 출신의 어느 감독이 한
국에 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던 중 한 학생에게 질문을
받았다.

“서울은 어떤가요?”

“회색이어서 놀랐어요.”

회색빛 도시라는, 그 흔한 표현을 그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재래시장에 있는 포장마차엘 가더니 자신의 씁
쓸한 생각을 조금 조정해야겠다고 말했다. 어쩌면 그도 자
신이 살던 도시를 등지고 떠나온 먼 길에서 자신이 살던 도
시와는 전혀 다른 일면을 기대했을 것이다.

살짝 비켜선 곳에, 조금은 후미진 곳에 표정이 있다. 물
질은 드러나기 쉽지만 정신은 좀처럼 눈금을 보여줄 수 없
는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회색이었던 이 도시는, 카메라를 휴대하고 다니는
새로운 세대들에 의해 이 도시가 회색빛만을 띠고 있지 않
다는 사실이 속속 신고 되고 있다. 그들은 카메라를 들고는 개
밭이 늦춰진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낡고 오래된 것들을 깨
우고, 햇빛들이 비추는 도시의 일면들을 기록해서 울림을 준
다.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마주친 그들의 사진을 보고 있노
라면 그들은 ‘어떻게 이만큼 좋을 수가 있어’라거나 ‘우리가
있는 곳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라고 말하는 듯하다.

시내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히면 나는
우회한다. 우회하면서 빨리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혹
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나마 좋아하는 길 위에서 천천
히 즐기며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 길은 재활용 플라스
틱 용기에 화초가 자라고 있고 차창을 열면 밥 짓는 냄새도



살짝 비켜선 곳에,
조금은 후미진 곳에 표정이 있다.
물질은 드러나기 쉽지만 정신은 좀처럼
눈금을 보여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말을 수 있는 길이다. 그 저녁은 맨송맨송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 여행지를 관통하고 있는 것만 같은 길.

서울의 조그마한 길을 사랑한다. 인적이 드물어서 내 숨
소리와 동네의 낮선 공기가 섞이는 길을 좋아한다. 그 길을
아무도 모르게 나만 사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울이 극에 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회하는 길에,
그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비밀스레 커피집도 생겼으니 은밀
한 시간에 그 앞에 차를 대고 커피 한잔을 마셔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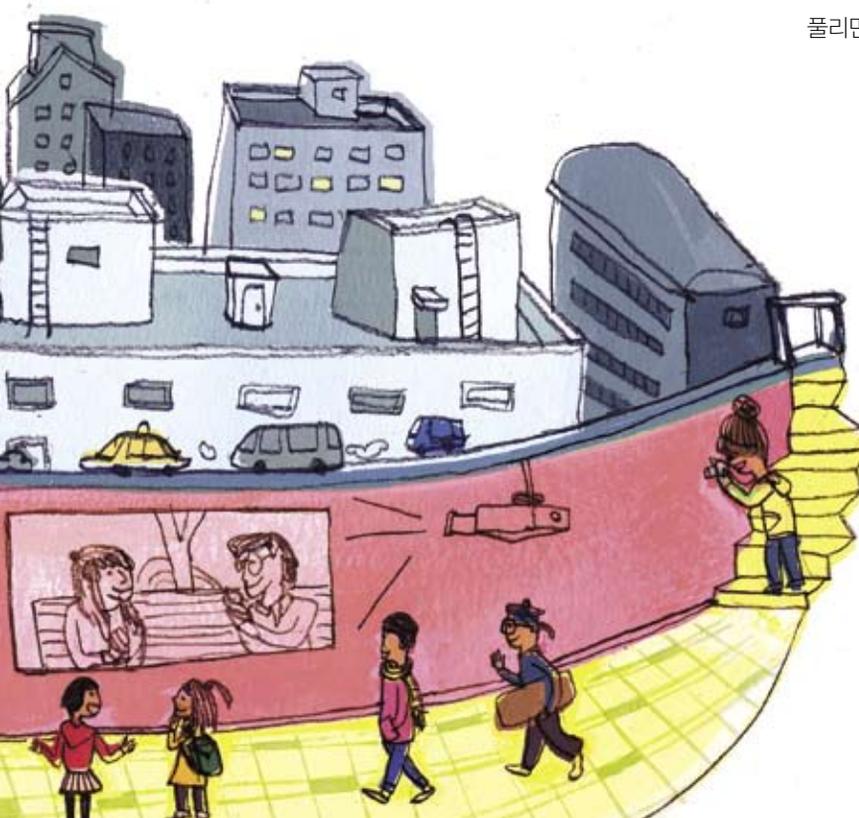
이 도시로부터 받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도시 구석구석
에 눈길을 주는 것이다. 받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우
린 무감하게 태어났으니 그토록 눈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그 길들을 담아두는 일은 도시라는 바탕과 함께 살아가는 방
법일 것이다.

버스 전용차선 공사로 도로가 넓어지면서 홍대 전철역 사
거리의 지하보도가 매립되고 있다. 그곳을 지나면서 지하
보도에 아주 작은 소규모의 영화관이 들어서서 흘러간 우
리 영화를 상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아니면
중고책 파는 서점 너댓 군데라도 들어선다면 그곳을 벅커
삼아 피난을 하거나 현실을 놓고 쉬어가도 좋겠다고 생각
했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을 테니 난지한강공원에서는 매
달 한 번씩 일요일 같은 날, 벼룩시장이 생겼으면 좋겠다.
가진 것을 버리지 말고 햇볕 아래 내놓으면 그걸 다시 가져
가는 쓸모에 대해 사람들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너무 빨리 자리버리는 것도, 너무 지난 시간에 얽매는 것
도 도시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할 테니 나부터라도 지금의 이
도시를 붙잡고 있어야겠다. 좀 더 아끼고 좀 더 누려야겠다.

돌아오는 토요일엔 서울 성곽을 따라 걸을 것이고, 날이
풀리면 강변에 사는 후배에게 자전거를 선물할 것이다.



글 | 이병률

시인.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9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 <당신은 어딘가로 가려 한다> <바람의
사생활>과 여행사진산문집 <골림>을 펴냈다.

일러스트 | 김은혜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교(HILLS)를 졸업한 후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무언가 이루는
삶보다 탐구하고 탐미하는 인생을 살고자
노력 중이다. 그림책 분야에 관심이 많아
창작 그림책으로 이야기하고픈 꿈을 가지고 있다.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0/1 vol 35

FOCUS INTERVIEW
소설가 박범신

순례자의 눈으로 새해를 읽는다

소설가 박범신



그의 곁에 서면 흑연 냄새가 난다. 잘 말린 나무 냄새가 난다.
그 냄새가 그리워 그의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든다. 밤새워 술잔을 기울이는 그는 여전히 청년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소설을 연재하는가 하면 지난 한 해는 작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을 만드느라 분주했다.
우리 문학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가,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이자 소설가인 박범신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반가운 첫 눈은 오후로 들어서며 가랑비로 몸을 바꿨다. 물의 성질 중 하나는 소리를 흡수하는 것이라고 했던가. 축축한 대기에 젖은 연희문학창작촌은 조용했다. 그러나 창문마다 환한 불빛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 각 방의 주인들은 아마도 각자의 세계에 몰두해 있는 중인 듯 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렸다.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절망과 대면했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바람하나 메고 히말라야로 떠났으며, 언제나 기쁨과 슬픔 앞에서 솔직하게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를. 그리고 멀리 있지만 항상 곁에서 보이지 않는 채찍을 휘둘렀던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실내의 정적은 순식간에 활력과 유쾌한 소란으로 대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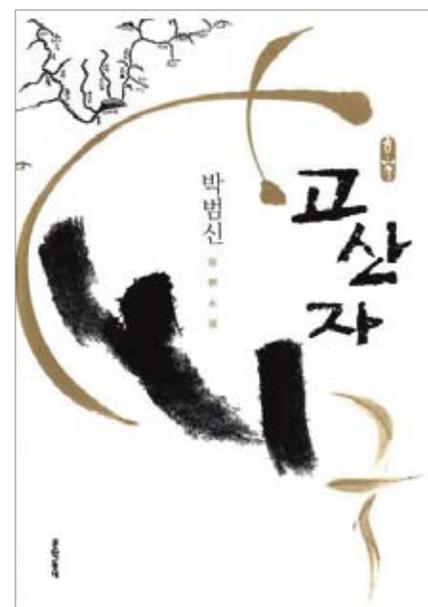
그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았을 때의 첫 느낌은 순결한 열정, 그것이였다. 그 따뜻하고 큰 손이 세대 간에 존재하는 장벽과, 문학과 독자의 느슨해진 거리를 단단히 조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인터넷과 문학

“저는 아직도 200자 원고지에 손으로 글쓰기를 고집하는 작가예요. 매우 아날로그적 세대라고 할 수 있지요. 인터넷에 연재했던 출라체 또한 주제나 이야기 전개 방식이 매우 아날로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소설이 수용되는 방식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 또한 제 오랜 믿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어느덧 현대인의 소통방식이 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은 체계도 가장 적극적인 사회생활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내가 후배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소설 연재는 그런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지금 이 시대의 문학이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 하나를 만들어 줌으로써 인터넷 세대의 대중들이 독자가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도 간절했구요. 실제로 처음 연재를 시작할 때 관계자에게 받은 다짐은 하나였습니다. 연재가 끝나도 그 웹상에서 소설 연재란을 없애지 말 것, 그것이 제 바람이었죠.”

인터넷은 매우 양가적인 매체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어두운 것과 마찬가지로, 대량으로 쏟아지는 정보를 단기간에 흡수할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박범신 장편소설 『고산자』

FOCUS INTERVIEW
소설가 박범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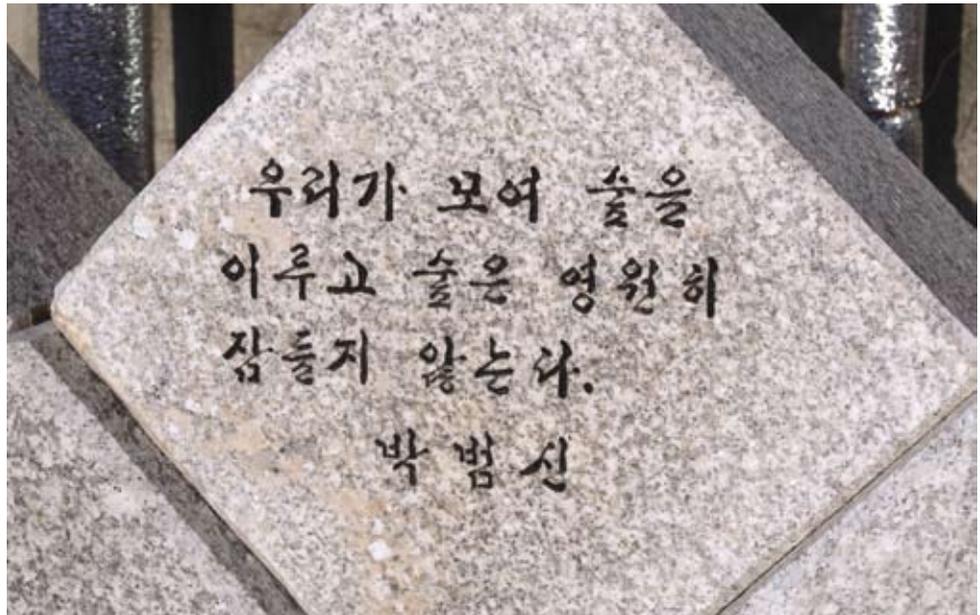
그것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심인 것은 아니다. 또한 인쇄된 활자라는 기존의 문학과 인터넷에 연재되는 문학의 무게가 다르게 취급될 수도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댓글이나 문학적 공간의 변화에서 오는 가벼움에 대한 우려는 없었을까.

“많은 분들이 그런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라는 것이, 꼭 고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겸손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경우 80년대를 지나며 그런 것들에 한층 더 단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품에 대한 비판은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또 그 비판이 터무니없다고 판단되면 대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요. 많은 세월을 지나는 작가로서 제가 믿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텍스트의 힘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매체가 변화해 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작품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그때 뿐일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떤 독자나 비평가보다 먼저 스스로가 깨닫겠지요.”

우리는 바쁘다. 삶이 한시적인 머무름이라는 거창한 존재론적 사유가 아니더라도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내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볼 때, 과연 아무런 후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하는 반성이다. 그러한 반성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맞으며 새로운 꿈과 목표를 세우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칫 우리는 꿈과 목표를 혼동하여 꿈에 다다르지 못하는 자신을, 또 목표에 다가서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절망하기도 한다. 자신의 삶에 솔직히 대응하는 시간을 지니온 그는 그러한 꿈과 목표에 대해 분명하게 구분 짓는다. 그러한 구분을 통해 좀 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사업가가 자신의 회사를 매출 천억 대의 회사로 키우고 싶은 것은 꿈이라기보다 목표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겠지만, 꿈은 목표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매출 천억 대의 회사를 만들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루어 어떻게 살 것인가….”

최근 저는 아무 목표 없이 살아요. 오직 꿈이 있을 뿐이죠. 그 꿈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랑에 대한 것이고 내가 사라진 다음에도 읽힐 수 있는 소설 쓰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꿈은 인간의 가장 본원적인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산자는 지도에 대한 소설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저는 지도에 관한 얘기를 쓰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고산자를 핑계 삼아 인간이 가진 본원적인 갈망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죠. 김정호는 지도를 핑계 삼아 평생을 살았고 저는 소설에 기대 평생을 살았습니다. 소설가로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제 소설이 영원히 살아남고 제 목소리가 영원히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것이 저의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그러나 이룰 수 없다고 해서 그 꿈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꿈 없이 목표만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의 현실적인 삶일 뿐이라고 믿거든요.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여 그 너머에 존재하는 꿈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시대예요. 목표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연희문학창작촌 정원의 조형물에 새겨진 글귀

실제로 히말라야의 좁은 산길을 걷고 있노라면 혼자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앞에는 누군가의 등이 있고 내 뒤에도 또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죠. 그때 알았어요. 순례란 혼자 가는 것이면서 함께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시간은 철저히 혼자이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말라야는 초월적 세계였어요.

걷고 있는 시간은 자기 안으로 길을 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으로의 깊은 여행이라는 것은 상처나 고통, 불안과 결핍들을 넘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신성을 회복한다는 의미죠. 걷는다는 행위는 그 신성을 회복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고요. 우리는 가끔 자신의 기억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이 가진 본성의 우물 밑바닥을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좀 더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세계와 내가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속도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등장하는 달구지의 속도입니다. 달리면 사물이 보이지 않고 사물이 보이지 않으면 현실적인 목표나 이상적인 꿈을 그릴 수도 없으니까요.”

2010, 오래된 미래

또 한 해가 가고 우주가 태어난 이래 최초의 새 날이 밝았다. 지나간 것과 새 것을 따져 가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이면서 별 의미 없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진화를 통해 발전해왔다. 네 발로 대지를 걷다가 직립의 인간의 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각 신체기관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은 같으면서 다르다. 한번 지나간 바람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지금 내게 다가오는 바람은 언제나 새것이다. 이것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중요한 이유다. 즉, 과거를 통해 미래를 전망하는 일은 우리가 좀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생각하는 2010년의 우리는,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현재 우리는 마치 문예부흥기에 도래하기라도 한 것처럼 왕성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요. 이즈음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자본과 예술의 상호 존중과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죠. 서로가 밀착하고 억압하는 구조를 갖는다면 지금의 이러한 각종 사업과 투자는 사상누각이 되기 십상이에요. 자본의 투자나 투자자의 확대가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지향하는 방향과 그 구조가 문화를 잠식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제가 염려하는 점이에요. 문화예술이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영민함을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한류 사업에 국가가 투자하는 일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문학, 인문학, 기초 예술분야는 각자 고유한 자기 세계를 지키도록 놔두어야 하는 구조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자본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야에 세심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 그것이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죠.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와의 대화는 내내 엘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를 떠올리게 했다.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속도 속에서 삶의 지혜와 평화를 구축할 줄 알았던 라다크 족들과 그는, 어딘가 닮아 있었다. 아무 것도 몰랐지만 우리에게 삶의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했던 라다크 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별로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내재된 오래된 DNA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여전히 창밖의 풍경은 축축하게 젖어 조용했지만 불빛은 한층 더 밝아지고 있었다. 자신의 마지막 꿈은 순례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가 다시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이를 수 없는 꿈을 이를 때까지, 건강하시길. 그리고 그의 바람대로 새해의 우리는 어제보다 좀더 신성애에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글 | 김선재

송실대학교 문예창작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06년 실천문학 소설 부문에 당선되었고 2007년에는 현대문학 시 부문에 당선되어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 천현정



YOUNG ARTIST 2010
설치미술가 정정주

친근한 낮섬, 정정주의 도시 경험에 관한 미술

설치미술가 정정주

예술가의 눈으로 본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눈앞에 보이는 이 풍경은 실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만화경을 통해 본 신기루 같은 곳인가.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정정주의 눈으로 본 도시 이야기를 들어본다.

정정주작 <상하이-젠다이 플라자>, 2005

나무, 아크릴, 형광등, 5대의 소형 비디오카메라, 4개의 모터, 비디오 프로젝터
500x400x180cm



작가 정정주는 1990년대 말부터 급격히 다변화된 한국현대미술 도양에서, 건축모형과 영상을 결합한 설치작품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미술영역과 시각언어를 확립해가고 있다. 특히 그는 2006년부터 일본 나고야, 중국 상하이, 서울을 하나의 고리로 엮어 글로벌리즘 시대의 지역들, 도시들의 구조와 삶의 형태를 작품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공간이 미니어처처럼 축소된 그의 조각-영상 설치작품 속에서, 도시는 친근하지만 낯선 곳, 가득 차 있으면서 동시에 텅 빈 곳으로 비춰진다. 이하에서 필자는 지난 12월 15일 금천예술공장 스튜디오에서 정정주 작가와 나눈 대화의 일부를 소개할 텐데, 이를 통해 작가가 생각하는 도시, 그의 사적인 도시 경험, 그의 미술을 독자들이 공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

신기루 도시, 경험과 기억의 도시

정정주 제 작업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건축물의 모형공간을 만들고, 그 비어있는 내부에 움직이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건축모형과 작품이 설치된 전시장이라는 내·외부 공간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컨대 제가 살던 일산의 한 쇼핑몰과 같은 실제 공간을 모델로 한 만큼 저와 건축물 사이에 직접적인 교감이 있었다면, 차츰 일본이나 중국의 도시 같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공간을 다루게 되면서 실제감을 잃어버리게 되더군요. 이제까지 전시주제가 ‘응시의 도시’였는데, 내년 전시의 주제는 ‘환영(illusion)’이라고 잡은 이유가, 아마 그런 변화 때문일 겁니다. 실재를 인식 하던 데서 실재를 벗어난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죠.

강수미 얘기를 들으니 우선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정주 작가에게 도시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나요?

정정주 제 작업의 특징이 주제를 정하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를 해보고서 거기서 진행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도시라는 집합체를 만든 게 2006년 <덕이동 로데오> 거러입니다. 그 공간을 처음 가보고서 너무 낯설었거든요. 그리고는 ‘아 여길 만들어봐야지’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에 대한 별 생각 없이 집합체를 만든 거였고, 그다음에 상하이의 <젠다이 플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도시를 생각한 게, 중국 신문에 난 ‘신기루 도시’에 대한 기사를 읽고서입니다. 중국 서해에 가끔 엄청나게 큰 신기루가 뜬대요. 바다에 갑자기 거대한 도시가 생기고, 몇 시간 뒤에 사라지는 거죠. 그 전에 상하이에서 젠다이 플라자를 만들면서 도시가 신기루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와 이미지가 겹쳤어요.

강수미 작가의 경험을 제가 여기서 유추해보면, 도시에 대해 처음 인식한 내용은 ‘신기루, 환영으로서의 도시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이를 정정주 작가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자기 작품의 상태, 이미지를 설명하듯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 아닐까요. 실체는 땅에 발붙이고 물질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체로서의 도시에서 실제감이 점차 없어지고 물질의 무게, 볼륨이 다 빠진 상태로, 즉 외관만으로 도시가 존재하는 거죠. 일종의 아주 얇고 가벼운 피부처럼. 굳이 비교해보자면 작가 서도호의 아주 고운 비단 천으로 만든 집 같은 이미지, 그런 상태의 도시를 생각한 게 아닌가요?

정정주 저도 지금 그걸 정의 내리거나, 결정짓지 못한 채 두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도시이미지를 구체화



금천예술공장 정정주 작가 작업실 내부



정정주작 <응시의 도시-나고야>, 2007
12개의 일본 나고야 지역에서 선택된 건축물들의 모형,
7대의 비디오 카메라, 4대의 모터, 비디오 프로젝터
가변설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열어둔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일단 건물을 많이 만들자, 채집하듯이 몇 개의 도시와 그곳의 건물들을 선택해 모형으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일본에서는 재건축으로 헐릴 건물들로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 우리나라의 일산이나 중국 상하이의 UFO 건물이 작품 형태로 들어오고, 또 작은 빌딩들이 들어오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선별의 기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의 작품은 사적인 공간이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규모가 커지는데, 텅 빈 빌딩들 같은 걸로 나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계속 도시를 다니면서 관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기억이 더 많이 떠오르는 쪽으로, 즉 작품에 그 경험과 기억이 반영돼 가는 셈이죠. 모형 작업을 하면서 결국 내가 도시에서 경험했던, 그런 이미지들이 나와요. 뭔가 마비된 상태, 모든 게 절연돼 있는 상태. 그게 인간적인 관계가 절연돼 있다기보다는, 감각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 같은 것이죠.

도시의 친숙하면서 낯선 모습과 우리의 몸

강수미 정정주 씨가 2006년 일산의 덕이동을 모델로 작품을 하던 당시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죠. 다국적 건축양식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딘가 더 복잡하고 기이한 형태의 쇼펍몰을 건축 모형으로 만든 작품이, 일산이라는 신도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

요. 그런데 정정주 작가의 작품의 경우, 건물 모형작품과 더불어 외부에 투사된 영상이미지들도 기이해보여요. 공상과학(SF)영화에나 나올법한 UFO 형태의 건축물과 그것을 모형으로 한 조각, 그리고 그 모형조각 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카메라에 찍힌 이미지들이 매우 강렬한 환영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그런 상태를 더 발전시켜보는 건가요?

정정주 지금 스튜디오에 늘어놓은 모형들은 일본 나고야에서 채집해 만든 건물 모형하고 한국에서 모은 것, 그리고 중국 건물들을 모델로 만든 것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중국 개인전부터 일종의 '상황'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처음으로 회전하는 빛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어졌죠. UFO 건물은 서치라이트 처럼 강한 빛을 비추면서 서서히 돌아갑니다. 이 빛이 옆에 있는 건물들의 창문을 통해 모형 내부로 비쳐지는데, 그 모형의 내부에 있는 카메라가 찍는 영상은 다시 밖으로 투사돼, 마치 건물 밖의 차가 지나치며 건물을 비출 때처럼, 공간 안에 빠르게 훑 지나가는 빛의 분절을 만들어 냅니다.

강수미 운동이네요. 빛의 운동.

정정주 예. 빠르게 공간 안을 지나가는 빛의 속도감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마치 감시하는 듯한 빛의 움직임과 긴장감은 제 기억 속에 침전된 '마비된 도시'의 느낌을 떠오르게 했어요. 80년 광주민주화 운동 때와 87년 한참 데모 많이 할 때, 한 달 넘게 광주 시내가 돌멩이랑 유리조각으로 가득차고, 대중교통은 완전히 마비돼서 시내에서 집까지 걸어 다녀야 했어요. 당시에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경험이 최근 되살아났죠. 도시가 마비되고,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과 건물이 제 기능을 멈춘 그 사이를 걸어서 집까지 가야했던 느낌들. 처음 이 <응시의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땐 몰랐는데, 차츰 더 많이 떠오르게 됐던 것 같아요. 불안정하면서도, 외부로 향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작업 속 카메라의 시선에서도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고요. 설치된 건물들 사이에 빌보드처럼 모니터들이 설치되고,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줘요. 건물 속의 카메라들이

이 영상을 다시 찍게 되면서 빛의 움직임과 영상 속 공간의 움직임, 그리고 카메라의 움직임들이 섞이면서 복잡한 움직임들의 결합을 만들게 되요.

강수미 도시가 마비되는 상태, 도시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물리적 공간으로만 존재하는 상태를 미술작품의 주제로 삼은 점이 흥미로운데요. 제 기억에 의하면 일본 나고야나 중국 상하이 전시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정정주 작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건물들과 건물들 간의 관계, 건물 내부의 어떤 사람이 밖을 보는 방식 대(對) 밖에서 어떤 특정 집의 내부를 궁급해 하는 시선', 이런 것들에 작업의 비중을 더 두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상당히 문화비판적인 시각에서 도시를 논하는 미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가 산업화될수록 도심이 비는 현상, 즉 '도심 동공화(洞空化)' 말이지요. 그에 대한 위기감이 작품의 내러티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도심 동공화는 물리적으로 다 사람이 빠져나가고 베드타운이 되는 현상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도시 자체가 내외적 기능을 상실하고 물질적인 형태로만 남은 것을 뜻해요. 사람이 비는 게 아니라 기능 자체가 비어버리는 것. 도시가 이럴 때 도시인들이 느끼게 되는 심리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에 정정주 작가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정정주 네. 갑자기 귀를 막으면 먹먹해지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비는 것, 마비되는 것이죠. 도시가 비는 심리적인 상태를 제 말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강수미 정정주 작가의 '도시가 마비된다'라는 발상과 제가 말씀드린 '도시가 공동화된다'에 생각의 살을 붙여보죠. '도시가 마비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 물리적인 정지를 떠올리게 되니까, 1차원적인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도시가 빈다는 건, '도시가 자기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죠. 그 정체성 상실의 상태를, 정정주 작가의 작품이 감상자가 지각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데 핵심이 있어요. 단순히 공포나 위기를 느낀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묘함', '친숙한 것이 유발하는 낯선 두려움', 이런 종류의 지각 상태를 도시를 모티브로 한 설치미술작품 속에서 경험한다는 사실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상을 사는 바로 그 도시의 숨겨진 위험 상태 같은 것이 예전의 형태로 작품 속에 떠오르니까요.

이것이 지금까지 정정주 작가 작업의 특수성 아닐까요. 도시를 단순히 외관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도시의 경험을 작품으로 만드는 것!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가 도시에서 경험하고 있던 걸 작가가 건축모형과 영상으로 구현하고, 그 경험의 속살을 되비춰주는 거죠. 사실은 내가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친근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인식하거나 지각하지 못한 것을 작품이 경험하도록 해준다는 데 가장 중요한 정정주 설치작품의 미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안내
〈응시의 도시〉 - 정정주

기간 1.7~2.7

장소 갤러리조선

문의 02-723-7133

www.gallerychosun.com



설치미술가 정정주

글 | 강수미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원이며, 대학에서 강의한다. 미학자이며 미술비평가로서 활동한다. 저서로 『서울생활의 발견』, 『한국미술의 원더풀 리얼리티』 등이 있으며, 발터 벤야민 미학에 대한 다수의 연구논문을 썼다. 독립기획자로서 〈번역에 저항한다〉 전시를 기획해 2005년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했다.

사진 | 정강

작품사진 | 작가 제공

OPEN REPORT

서울 너머로

모스크바,
연극으로 겨울나기



체감온도가 낮을수록 그리워지는 건 삶의 체온이다.
눈 묻은 장화를 툭툭 털고 극장으로 들어가는 러시아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진 특파원이 고국으로 보내는
연하장과 함께 올 겨울, 모스크바 연극 가이드를 보내왔다.

모스크바, 연극으로 겨울나기

모스크바 극장 겨울 공연 프로그램

날씨와 주머니 사정에도 불구하고

혹한의 계절이 다가왔다. 이중으로 된 창틀 틈새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혹시나 난방 기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미리 살펴본다. 이상 기후로 인해 모스크바의 겨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체감 온도다. 저 멀리 시베리아 찬 바람이 이상 기후를 알리었다. 저녁 4시부터 어둑어둑해진 풍경이 저녁 6시가 되니 한밤중 같다. 석회성분 때문에 뿌연 수도물을 틀어 세수하고 집을 나설 채비를 한다. 목도리와 장갑은 기본. 털 장화의 지퍼를 무릎까지 올리고 모자를 귀까지 푹 눌러 쓴다. 목재로 된 육중한 문을 천천히 밀고 이 겨울을 헤치며 나는 극장으로 간다!

모스크바에 위치한 극장은 모두 150여 개다. 이런 와중에 도 실험정신을 가진 극작가, 연출, 배우들이 새로운 극단을 계속해서 탄생시키고 있다. 제대로 된 연습공간은커녕 작품을 올릴 무대가 없어 큰 건물의 홀이나 길거리가 그들의 데뷔 무대가 되는 것이 다반사지만 선배 연극인들이 만들어놓은 오래된 연극전통, 창조적인 국내외의 젊은 연출가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젊은 배우들의 예술혼을 불태우기에 충분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십상치 않은 모스크바의 극장표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200루블(한화로 8000원 가량) 이하의 표는 할인이 된 표거나 대부분 관객석 3층 이상의 자리인데 그나마 그 가격으로 나와 있는 자리는 별로 없다. 이를 있는 극장들의 경우 400루블에서 800루블 사이의 가격이면 불편하지 않은 자리에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처음 무대에 올라가는 작품의 경우 표 값은 1000루블을 훌쩍

넘어 2000루블에 가까워진다. 외국의 유명 연출이 초대되는 경우 표 값은 더 올라간다. 그러나 연극에 대한 모스크바 사람들의 넘치는 사랑에 치여, 그나마 표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다. 선별된 우수한 작품이라면 연극 표는 적어도 2주 전에 사두어야 한다.

자, 이제 주머니 사정도 점검했으니 매월 20일에서 22일 사이에 출간되는 모스크바 극장 정보지 <짜아트랄나야 아피샤>(Театральная афиша)를 펴보자. 두툼한 아피샤를 보니 벌써부터 마음이 들뜨다.

추천 연극 열전

사실주의 전통극으로 유명한 말리이 극장은 레프 톨스토이의 <어둠의 힘>, 알렉세이 톨스토이의 <보리스 황제>, <요한 너제의 죽음>, <카사트카>, 알렉산드르 오스트로프스키의 <진실도 좋지만 행복이 더 낫다>, <마지막 희생>, <늑대들과 양들>, <가난은 죄가 아니다>, 알렉산드르 그리보예도프의 <지혜의 슬픔> 등 러시아 극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올린다. 더불어 이번 시즌에는 이 극장의 최고 연출가이자 예술감독인 유리 솔로민이 직접 주인공 몰리에르 역을 맡은 <몰리에르>(미하일 불가코프의 <위선자들의 밀교>)를 올리는데, 웬지 예술감독이라는 직책과 몰리에르 역이 딱 맞아 떨어지는 조합인 것 같아 예술감독으로서의 솔로민의 고충이 무대 위에 발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본다.



말리이 극장의 <몰리에르> 포스터

OPEN REPORT
서울 너머로
모스크바,
연극으로 겨울나기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현대희곡 극장은 동시대 희곡 작가들의 작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극장에서 이오시프 라이헬가우즈의 연출로 공연되고 있는 <러시아 잼>은 체호프 드라마에 대한 오마주로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 류드밀라 울리츠키야의 최근작이다. 이 작품은 2009년 봄 폴란드의 연출가 안제이 부빈에 의해 한국 무대에 올려진 바 있으니 우리에게 완전히 생소한 작품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체호프에 대한 현대 작가의 시선이 궁금하기도 하고, 체호프의 작품에서 다루어지는 상황들이 현대 러시아인의 삶의 어떤 부분과 합치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하여 꼭 보고 싶은 작품이다. 또 이 극장에는 소설, 극작, 연기, 대중음악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팔방미인 예브게니 그리쉴코베츠의 많은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그의 작품 중 <러시아 여행자의 수기>와 <도시>가 공연 중이다. <내가 어떻게 개를 먹었는가>라는 제목도 특이한 위트 넘치는 그의 첫 희곡, 아니 희곡이라기보다는 긴 모놀로그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이 작품도 무대에 다시 오를 날이 기다려진다.

유명 브랜드로 도배된 트베르스카야 거리의 휘황찬란함 보다는 거리 안쪽으로 가지를 친 구불구불한 골목들의 한적

한 공기에 이끌리는 이방인이라면 마모노프스키 골목의 모스크바 젊은 관객 극장을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성인을 위한 작품 뿐 아니라 수준 높은 어린이 공연을 올리는 것으로도 유명한 이 극장에는 1987년부터 극장을 이끈 켈리에타 야노프스카야와 한국 관객들에게 이미 수차례의 초청공연으로 유명한 카마 긴카스가 현대적이고 세련된 무대구성으로 명성을 얻은 세르게이 바르힌 무대예술 감독과 함께 손발을 맞추고 있다. 깜빡이는 부서진 간판과 뒷골목 같은 무대를 배경으로 하는 <로베르토 주코>(베르나르 마리-콜테스 작), 타일이 떨어져 나간 거대한 욕실과 그 안으로 흘러들어온 용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황색 층계에서 펼쳐지는 <메데이아>(장 아누이와 세네카의 작품을 기본으로 재구성), 노년과 죽음의 의미를 인간 존재의 문제로까지 승화시킨 <마지막 달>(푸리오 보르돈 작) 등 긴카스와 바르힌의 무대를 보는 것은 놓치기 아까운 기회다. 도스토예프스키를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가뭇에 콩 나듯 무대에 올려지기는 하지만 긴카스의 <죄로부터 K.I.>를 권한다. 이 작품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 등장하는 소녀의 어머니 카체리나 이바노프나(Katerina Ivanovna)의 히스테리 걸린 독백들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여배우 옥사나 피시나가 1시간 30분 간 온 방안을 누비며 혼자 연기한다. 완전히



체호프 극장 내부(복도)



바흐탄고프 극장 앞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표는 적어도 2주 전에 사야한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

낭만의 거리 아르바트에 위치한 바흐탄고프 국립예술극장의 최고 연출가이자 예술감독인 리마스 투미나스는 2001년 LG 아트센터의 무대에 올려진 <가면무도회>의 감동을 잊지 못하는 관객들에게는 낯선 이름이 아니다. 2007년 취임 이후 투미나스는 젊은 배우들을 대거 기용하고 적지 않은 작품을 공연 레파토리에 추가하는 과정에서 중견 배우들과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불신들을 잠재운 듯하다. 작년에 처음 올려진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셰익스피어 작), 올해 처음 무대에 오른 체호프의 <바나 삼촌>(안톤 체호프 작)과 <광인일기>(니콜라이 고골 작)가 기대된다. 게다가 2010년 초에는 레르몬토프의 <가면무도회>가 바흐탄고프 배우들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선보일 것이라 하니 기대되는 바 크다. 리투아니아 연극과 러시아 연극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양국 배우들의 교류를 위한 쌍방 초청공연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다음에는 어떤 작품이 또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하게 만든다.



바흐탄고프 극장의 <바나 삼촌> 포스터

아차차, 잊을 뻔했다. 중심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모스크바의 동쪽에 자리한 타간스카야 역 근처의 타간카 극장에서도 흥미로운 연극이 올려진다. 러시아의 문호 니콜라이 고골을 조명 한 <아라베스키>가 그것이다. 30년 넘게 공연되고 이미 전설이 되어버린 <거장과 마르가리타>(미하일 불가코프 작)의 연출이자 이 극장의 예술감독 유리 류비모프는 <아라베스키>에서 고골의 작품 속 등장인물들과 고골의 지인들을 비롯하여 고골까지 등장시켜 작가의 비밀스러운 삶 전체를 조명한다. 이번 기회에 두 작품 모두를 봐야한다는 생각이지만, 표 가격이 역시 예상했던 대로 만만치 않다.



타간카 극장의 <아라베스키> 포스터

아, 아, 모스크바!

글을 쓰기 위해 몇몇 극장을 어렵게 추렸지만 150여 개나 되는 극장 어딘가에는 분명 특과원에게 생소한 굉장한 보물들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을 것이다. 소풍날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극장 앞을 기웃거린다. 무릎까지 오는 두꺼운 장화에 귀밑까지 당긴 털모자, 그리고 설레는 마음이 있으니 이방인의 겨울도 따뜻하지 않겠는가.

글 | 윤서현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다니며 러시아 문학과 사랑에 빠졌고, 이어 같은 과 대학원 석사를 마친 뒤 내친 김에 박사 과정을 밟았다. 현재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인문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집필 중이다.

사진 | 필자 제공

신비의 공간, 예술의전당

길게 혹은 짧게 떠나 있을 때도 있었지만, 나는 15년이 넘는 세월을 서울에서 살았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내 삶과 뗄 수 없는 문화공간을 꼽으라면, 그것은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전당'일 것이다.

예술의전당에서의 일

생애 최고의 콘서트와 쇼를 보고 들었던 예술의전당에서 음악가로서 공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내게 행운이었다.

작년 콘서트홀에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이탈리아의 매력적인 파페라 테너 알렉산드로 사피나가 함께한 <Dream with me> 콘서트를 지휘했다. 이 커다란 홀에서 소리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나는 이곳에서 공연하는 모든 연주자들을 존경하게 되었다.

몇 년 전 한국의 파페라 카운터테너 조관우는 이곳에서 열린 자신의 파페라 콘서트에 피아노를 연주할 특별 손님으로 나를 초대했다. 그때 우리는 한국의 유명 디자이너인 앙드레 김이 디자인한 예복을 입고 공연했다. 문화적 소양이 대단한 이 디자이너는 예술의전당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인사다.

나의 창작 작업과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곳에서 몇 번인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2000년부터 2003년에는 콘서트홀 바로 아래에 있는 음악영재아카데미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의 천재성에 자주 놀라곤 했다. 2002년 여름 월드컵 당시에는 수업이 끝난 후 모두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경기를 관람했다. 때때로 그 아이들이 그리워진다.

예술의전당에서의 배움

음악가에게 있어 콘서트에 참석하는 것은 무한한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음악적 배움의 깊이를 더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곳에서 경험한 많은 콘서트와 쇼는 잊을 수도 없거니와 내 학문의 또 다른 밑거름이 되었다. 작곡가로서 나는 지휘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의 합창석은 대단히 유능한 지휘자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그곳에 앉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지휘자인 임헌정과 정명훈을 만났고, 무한한 감동을 주었던 유리 테미르카노프, 지휘의 교과서라 불리는 리카르도 무티, 익살스러운 로린 마젤과 마주했다.

피아노 연주자로서 나는 이곳에서 최고의 연주자들을 만나는 행운도 경험했다. 소리의 마술사 스타니슬라프 부닌, 열정이 넘치는 백건우, 어렸을 때부터 선망의 대상이었던 전설의 마르타 아르헤리치 등이 있다. 그들의 연주에 자극받아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 할 수 없었다.

예술의전당에서의 우정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녹음실에는 나만이 아는 천사가 있다. 나의 절친한 친구이자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선배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김효균 씨. 그는 콘서트홀 녹음실의 수석기술자다.

이곳에서 나누었던 우정도 있다. 첼리스트 이명진이나 피아니스트이자 함부르크 음대 후배인 신민정과 같은 친한 음악인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펼칠 때면 언제나 찾아와 축하와 격려를 해주었다. 살면서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을 맛보게 해준 이곳은, 그러고 보니 내가 데이트를 즐겼던 장소이기도 하다.

음악 공연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주는 예술의전당은 그야말로 신비의 공간이 아니겠는가.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다.

글 | 미하엘 슈타우다허

돌이켜 보면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내게 해준 내 가족과, 대학 스승이었던 에드가르도 산체스(Edgardo Sanchez), 로버트 헨리(Robert Henry)(피아노), 마리우스 바주(Marius Bazu)(지휘), 영화음악제작자 엘머 번스타인(Elmer Bernstein)과 크리스 영(Chris Young)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낀다. 직업인으로서 나는 스스로를 작곡, 지휘, 피아노 연주 어느 하나라도 등한시할 수 없는 그저 '음악가'이자 '교사'(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 조교수)로 칭하고 싶다.

Seoul Arts Center ; a magical place

With longer and shorter interruptions I have been living in Seoul now for more than 15 years. If I got to pick one cultural asset in this beautiful metropolis or even in the world, one that is connected so closely to my life, then it would be the “Seoul Arts Center”.

Working in Seoul Arts Center

I consider myself very fortunate having not only been able to listen and watch some of my life’s best concerts and shows in “Seoul Arts Center” but even more so to actively participate as a musician in some of them. Most vividly I remember conducting the “Dream with me” concert last year in the “Concert Hall” with the world class Soprano Sumi Jo and the charming Italian popera Tenor Alessandro Safina. By experiencing the difficulty to control the sound in this huge hall I gained a lot of respect for all the other conductors performing here.

Years ago the Korean popera countertenor Kwan-Woo Jo invited me as a special guest to play the Piano in his Popera concert in the same place. Extraordinary was also the fact that we performed in robes designed by the Korean star designer Andre Kim. This culturally very engaged designer you can meet here quite often.

For some time in my life the Seoul Arts Center was also the place where I have been interviewed several times to talk about my creative work and my life in Korea.

Between the year 2000 and 2003 I was asked to teach here young students in the “Young Talents Music Academy” located directly under the concert hall. I was stunned by the high level of those genius young people. In Korea’s “World Cup” summer 2002 we all dressed up in “Red Devil” T-shirts and watched the games together after the lecture. God knows how much I sometimes miss those kids.

Learning by enjoying “Seoul Arts Center”

Especially for musicians attending concerts is not only usually an immense joy but has also quite often the side effect to deepen their musical learning. Many concerts or shows that I experienced here are not only unforgettable but have been also another source for my studies. As a composer I am also especially interested in conducting. The choir seats in Seoul Arts Center’s “Concert Hall” are not only a bargain but a great opportunity to study very talented conductors from up front: From my favorite Korean conductors Heon-Jung Lim and Myung-Whun Chung, to the extraordinarily emotional conducting Yuri Temirkanov, the very clear almost “text book” conducting Riccardo Muti to the humorous Lorin Maazel.

As a Piano player I was also lucky to experience some of the best players here. Their performances stimulated me to not give up on my Piano practicing. To name just a few: the sound wizard Stanislav Bunin, the enormously powerful Kun-Woo Paik and one Pianist that I waited for since my early childhood: the legendary Martha Argerich.

“Seoul Arts Center” as a place of friendship

In the recording booth of the Seoul Arts Center’s “Concert Hall” works an angel. The main engineer here, Hyo-Kyun Kim, is not only one of my best friends in Korea, a college senior of mine from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but far more so one of the most warm hearted people I have met in my entire life.

For me “Seoul Arts Center” is a place of friendship. Some of my close musician friends, like the Cellist Myung-Jin Lee or the Pianist and college junior of the Hamburg Hochschule for Music and Theatre Min-Jung Shin gave here also some of their best performances. For some emotionally unforgettable moments in my life the “Seoul Arts Center” complex was also the chosen surrounding for dating.

“Seoul Arts Center” is a magical place, bringing out the best in people, whether they perform music here or not. Meet you there.

Michael Staudacher

Looking back on my life I am eternally grateful to my family for a happy childhood and to my teachers in college (Edgardo Sanchez, Robert Henry (Piano), Marius Bazu (Conducting), the film composers Elmer Bernstein and Chris Young). Professionally I consider myself simply a “musician” with almost equal interest in composing, conducting and Piano playing, and also a teacher (assistant professor in Kyung-Hee University, Postmodern Music Department).



미하엘 슈타우다허

OPEN REPORT
서울 속으로
대학로 공연초대 이벤트

본 쪽지는 문화예술활동의
대중화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학로를 누빈다!

수험생 DAY! 대학로 공연초대 이벤트

문화예술은 언제나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지만 때로는 멀고 높게만 느껴진다. 경제적인 부담, 시간부족, 게임이나 인터넷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벽은 점점 더 높아만 간다.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가까이서 접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경험이 필요하다.

11월 27일 금요일, 평일 오후. 조용하던 대학로가 벌써부터 술렁인다. 언제부터인가 대학로는 북적이는 술집과는 대조적으로 썰렁한 공연장의 모습이 더 익숙해졌다. 그런 대학로에서 술집도 개그콘서트장도 아닌 공연장 티켓박스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관객의 모습은 어딘지 반가우면서도 어색하다. 더욱이 교복 차림의 수많은 학생들이 낮 시간에 대학로를 거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낯선 풍경이다.

이날은 G마켓의 후원으로 진행된 <수험생 DAY! 대학로 공연초대 이벤트>가 있는 날이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바쁜 학업으로 인해 문화예술 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공연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대학로 소극장 공연을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특별히 기획되었다.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서울연극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 G마켓은 수험생들의 공연관람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하게 되었다. 2010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직후인 11월 12일부터 G마켓을 통해 무료 또는 천원에 공연티켓을 구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79개 공연, 80여 명의 자원 활동가, 1만여 명의 관객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다.

이번 행사에는 대학로에서 공연되는 작품 중 아동극과 미성년자관람불가 작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공연들이 참여했다. 대학로 최고의 흥행작인 <라이어>, <늘근도둑이야기>, <빨래> 등의 인기작은 물론 <맥베드>, <먼데이 5PM> 등 서울문화재단 지원 작품을 비롯한 79개 작품이 11월 27일 오후 4시 동시에 무대에 올랐다.

연극 <연애특강>의 기획자는 “경제 불황에 신종플루 위험까지 더해져 더욱 어려운 시기에 서울문화재단과 G마켓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잠재



수험생들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



공연을 관람하는 수험생들

고객인 학생들의 공연관람을 지원해 주는 행사였기 때문에 더욱 고맙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대학로 소극장 공연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참여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오후 4시가 되자 79개의 공연이 일제히 시작되었다. 수험생들은 긴장한 듯 숨죽이며 무대 위의 배우들에게 집중했다. 한참을 웃다가도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에서 학생들의 순수함이 엿보였다. 연극을 처음 보았다는 한 수험생은 “장소가 생각보다 좁아서 좀 놀라긴 했지만 그만큼 배우분들을 가깝게 볼 수 있었고 공연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대학로에 이렇게 많은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는데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러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젊은 관객들로 북적이는 대학로를 다시 한번 꿈꾸어 본다.

모든 행사가 끝난 뒤, 자원 활동가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 즐거운 미소가 가득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자원 활동가는 “처음 시행하는 이벤트에 자원 활동을



공연관람 후 배우들과의 사진촬영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 즐거웠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웃으며 극장을 나서는 수험생들을 보며 흐뭇한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군요.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행사로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즐거운 공연관람의 기억은 평생의 추억으로 남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공연장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또 다른 관객을 만들어내는 힘도 가지고 있다. 이번 <수험생 DAY! 대학로 공연초대 이벤트>가 많은 수험생들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또 추억으로 남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나 또한 그 시절, 기억이 추억이 되고 경험이 되어 주변인들을 관객으로 만들어간 것처럼...

글 | 박은희(서울문화재단 공간지원팀)

사진 | 김병구

본 쪽지는 필자가 직접 꼽은
세 권의 책으로 엮어낸
이야기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아직도 가난이 사치와 곁뻘으로 보이는가.

가난은 추억도 낭만도 아닌 뼈아픈 추위다.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최후의 고백이다.

조영래 『전태일 평전』

신경림 시인의 시「가난한 사랑 노래」에는 사연이 있다. 어느 수배자의 비밀 결혼식 주례를 맡게 된 가난했던 시인은 그들에게 달리 줄 게 없었다. 축의금을 넉넉히 넣은 봉투를 건네고 싶었으리라. 하지만 그 시절의 시인은 결혼식을 올리는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했다. 시인이 해줄 수 있는 건 축시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가 탄생했다. 과묵한 나로서는 이보다 더 값진 축의금을 알지 못한다. 가난하다고 해서 베풀 수 없는 게 아니다. 시인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축복은 바로 이 한 편의 시였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눈물과 웃음마저 박탈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다.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대로 가난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 가난한 자들에게 세상은 적막한 곳이었다. 그들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말하지 못했다. 대신 그들은 맛있겠다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훗날리는 눈송이는 밥풀을 연상시켰고 저물녘 서쪽 하늘은 먹어본 적도 없는 오렌지를 떠올리게 했다. 나는 대학시절 내내 내 방 한 칸을 가져본 적이 없다. 타인의 방에 얽혀살거나 내가 속했던 학생회관 문학 동아리방에 머물렀다. 내 방이 아닌 곳에서 나는 스스로를 부려놓고 존재를 생각했다. 『전태일 평전』의 저자 조영래는

이렇게 말했다. “전태일 사상은 밑바닥 인간의 사상이다. 밑바닥 인간에게도 사상이 있단 말인가? 그렇다, 있다.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인간에게도 사상은 있다.”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전태일에게는 사상이 있었지만 대학생이었던 나는 사상이 없었다. 나는 쓸쓸했다. 내가 전태일처럼 가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것처럼 사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무엇을 지니지 못했음이다. 그는 말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나는 용광로에 던져진 듯 온 몸이 뜨거웠다. 전태일 그는 누구보다 가난한 청년이었다. 얼마나 추웠으면 스스로를 불태웠을까. 어찌서 그는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덥히려 했을까. 나는 모른다. “그런데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은 알지를 못합니다”라고 말했던 전태일처럼. 그는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다. 그러니까 나는 전태일은 될 수 없었고 전태일을 기록하는 사람쯤은 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울지는 않았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전태일 역시 화염 속에서 울지는 않았으리라.

크누트 함순 『끓주림』

가난하지만 살아남고 싶다는 비열한 욕망을 품었던 내게 유일한 위로는 문학이었다. 문학 안에서만 나는 자유로웠고 그 안에서만 숨을 쉴 수 있었다. 때로는 영악하게도 문학을 빙자

할 줄도 알았다. 크누트 함순의 『굶주림』에는 가난한 문학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담겨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방세 마저 밀린 책상 하나 없는 단칸방에서 오로지 문학만을 꿈꾸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원고를 쓰려고 하지만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 얼마나 가혹한가. 공원이 영감을 줄 수 있으리라 믿는 그의 순진함마저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시시각각 그를 엄습하는 건 영감이 아니라 굶주림이었다. 개에게 준다는 구실로 푸줏간에서 뼈다귀를 얻어 온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런 맛도 없었다. 뼈다귀에서는 썩은 피의 숨이 막힐 듯한 냄새가 나서 곧 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또 뜯어 먹어 보았다. 게우지만 않으면 무슨 효험이 있겠지. 요는 배를 달래주는 것이었다.” 요는 배를 달래주는 것이다. 나는 술값을 내 본 적이 없고 밥값도 치러본 적이 없다. 누군가에게 둘러붙어 빈대처럼 빨아먹었으면서도 수치를 느끼지 못했다. 홀로 더러운 방에 누웠을 때 비로소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극도로 날카로운 지각능력과 죽음에 가까운 혼미 상태가 교차하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싶었다. 그때의 나는 정신분열증을 단기기억상실증과 비슷한 것으로 여겼다. 잊을 수만 있다면 견디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뚜렷이 현실을 인식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처한 존재의 조건을 잘 알았다. 그게 나의 불행이었다. 나는 이 소설에 즐거리가 없는 이유를 알았다. 굶주림에는 즐거리가 없는 것이다. 이로써 크누트 함순은 가난에 이력을 부여하려는 자들에게 충분한 저주를 내렸다. 하지만 나는 저주를 내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가난했고 마찬가지로 문학은 가난을 대신해주지 못했다.

찰스 부코우스키 『팩토텀』

찰스 부코우스키의 『팩토텀』은 내가 가장 나중에 만난 가난의 기록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헨리 치나스키는 다가오는 가난을 피하지 않는다. 노력보지도 않는다. 맞서지도 않는다. 그에게는 스스로를 불태우는 거룩함도 없고 스스로를 정신분열 상태로 몰아 현실과 문학을 섞어버리는 미학적 수단도 없다. 대신 그에게는 순정한 형태의 가난이

존재한다. 가난이 순정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형태일 것이다. 가난은 그의 몸을 관통한다. 가난은 그를 점령하지 못한다. 그는 영원히 점령되지 않는 스스로의 영토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게 별다른 야망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야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도 있어야 한다. 내 말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남겨지곤 하는 자리보다는 더 좋은 자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도대체 어떤 빌어먹을 인간이 자명종 소리에 새벽 여섯시 반에 깨어나, 침대에서 뛰쳐나오고, 옷을 입고, 억지로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오줌을 누고, 이를 닦고, 머리를 빗고,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장소로 가기 위해 교통지옥과 싸우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하는 그런 삶을 기꺼이 받아들인단 말인가?” 그러므로 그의 소망은 이렇하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난 앞에서 굴욕적이었던 내 오랜 순종이 저항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다. 그렇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가난한 그대가 바로 이미 훌륭한 사람이다. 적어도 이 서글픈 세상에서는 말이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글 | 손흥규

2001년 《작가세계》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2004년 대산창작기금을 받았고 2008년 제비꽃 서민소설상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소설집 『사람의 신화』(문학동네), 『봉섭이 가라사대』(창비), 장편소설 『귀신의 시대』(랜덤하우스 코리아), 『청년 의사 장기려』(다산책방)가 있다.



1 『전태일 평전』, 조영래, 돌베개
2 『굶주림』, 크누트 함순, 범우사
3 『팩토텀』, 찰스 부코우스키, 문학동네

재단사업
결산 2009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어르신들의 꿈과 희망을 기록하다

결산 2009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내 얘기 좀 들어봐 엄마, 그녀들의 이야기〉 공연 무대

꿈을 품는 것에 귀하고 천함이 없듯이 꿈을 이루는 데 나이제한은 없었다.
백발의 모습으로 무대에 서는 꿈을 이루고, 영상을 통해 새로운 꿈에 도전한 어르신들.
짧게는 여섯 달, 길게는 일 년을 꾸려온 <2009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이 가져온
작은 결실들을 모아보았다.

어르신들의 추억과 꿈을 찍다

지난해 12월 8일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자서전 UCC와 영화 작품발표회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노년을 보다 즐겁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기존의 노인복지 서비스와는 사뭇 달랐다.

진정한 노인복지란 삶의 질 향상일 것이다. 우리 시대의 노인들은 조국근대화와 산업역군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그래서 소질이나 재능, 특기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는 세대였다. 그저 굶지 않고 자식 공부시키는 것을 의무이자 책임으로 알고 살아 온 분들이다. 그런데 새로운 일에 대한 용기는 물론 기력마저 다해 삶의 가치를 잃고 살아가던 노인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한 팀이 되어 별난 일을 꾸렸다. 바로 자신들만의 영화를 만든 것이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변한 세상에서 노인들은 선뜻 기계를 만지는 것부터 겁이 난다. 혹여 고장이라도 났까 두려움이 앞서는가 하면 손자 손녀 눈치를 보며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웃지 못할 처지에 내몰린 게 어디 한두 번이었겠는가.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노인들은 열정을 다해 영화를 만들고 발표회까지 갖게 되었다. 예술가의 기준으로 보면 유치하고 수준 낮은 작품일지 모르지만 이 작품들은

긴 여름 땀별 아래, 노인들이 스태프와 배우가 되어 구슬땀을 흘리며 야외실습 끝에 얻어낸 뿌듯한 결정체다. 물론 용산과 약수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한 황보영화교육연구소 강사들의 적극적이고도 포기하지 않는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노인들은 남은 인생에서 다시 한번 도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다.

홍태임 회원은, 캠코더는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여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데 놀랐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란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닌 지혜의 저장고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광분자 어르신의 작품 <자서전>은 글로는 부족한 부분을 영상에 담아낸 일종의 화상 자서전이다. 사후 제일(祭日)에 자식들이 다시 보며 조상의 음덕을 기릴 수 있으니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도 흡족해했다. 김주봉 어르신의 작품 <망아지 장가간다>에서는 옛날 결혼 풍습을 다시 볼 수 있어 좋았으며, 약수복지관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어르신 네 명이 공동 제작한 <2급 공무원>은 비리를 차단하자는 계몽적 메시지와 함께 정직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사회적 승리자가 된다는 내용으로 관객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또한,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 <용돈> 등 일상생활을 진솔하게 담아낸 약수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작품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재단사업

결산 2009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내 인생의 무대 속으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든 연극이 얼마나 재밌을까? 더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만들기는 한 걸까? 공연이 시작되기 전, 솟구치는 의구심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공연이 진행될수록 공연 전 품었던 마음이 점점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어르신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회로애락이 극 속에 고스란히 배어있었다. 프로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배우들의 순발력과 재치는 수준급이었다. 분명 대사를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자연스럽게 다음 대사가 이어지고 어색한 동작 속에서도 나름대로 위기를 넘기는 노하우가 있었다.

방배종합사회복지관 무대에 오른 〈내 인생의 무대 속으로-꿈 조각의 하모니〉는 발레리나를 꿈꾸는 80세 노인의 이야기다. 가족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노망났다'는 주변의 비난 속에서도 발레에 도전하는 노인의 이야기는 진정한 열정과 자신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끔 했다.

열다섯 명의 출연진들은 지난 2월부터 일 년여에 걸쳐

이 연극을 완성했다. 본격적으로 무대에 오를 작품을 연습한 기간은 불과 몇 달이지만, 사전에 철저한 훈련을 통해 연극의 기본기를 충실히 익혔다. 늦깎이 배우들은 연습이 있는 날에는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부지런히 해놓고 간식거리까지 만들어 출근하듯 연습실로 왔다고 한다. 처음에야 어설피고 우스워보였지만 그럴수록 서로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다보니 조금씩 자신감도 얻었다. 몇 달간의 긴장된 생활이 다시 젊음을 가져다 준 것 같다는 것이 배우들의 한결같은 소감이다.

올해 여든 일곱인 최고령 연기자 오석중 어르신은 젊은 시절 무대에 섰던 이력으로 주인공을 맡았는데 본인 연기력의 100분의 1도 발휘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다시 한 번 기회가 온다면 생의 마지막 혼을 불살라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올해 예순 하나인 막내 김혜순 어르신은 '환갑도 적은 나이는 아닌데 맨날 딸 역만 해야했다'며 이제는 중후한 역을 해 보고 싶다는 바람을 비쳤다.



〈내 인생의 무대 속으로-꿈 조각의 하모니〉 80세 어르신들의 발레리나 도전 이야기 공연 무대

엄마! 그녀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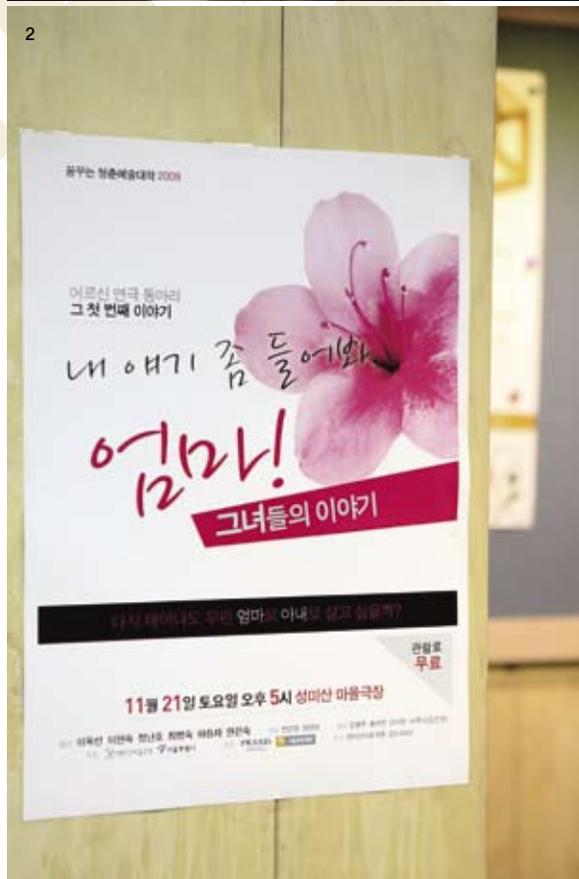
지난해 11월 21일 성미산마을극장에서 공연한 <내 얘기 좀 들어봐 엄마! 그녀들의 이야기>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다 현대적인 연극이다. 송혜의 '전국 노래자랑' 타이틀곡과 함께 스크린에 노래장면이 뜨면서 극이 시작되었다.

“내일 모래 소연이 좀 봐줘!” 딸과 친정엄마와의 대화다. “엄마, 나 연수 가야 돼!” 딸이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무대 밖으로 퇴장하는 장면에서 관객 모두는 너무나 현실적 이야기이기에 잔잔한 웃음 속에서 무거운 침묵으로 공감했다.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아들 딸 다 기르고 출가시키면 엄마라는 이름을 벗을 줄 알았는데, 다시 손자 양육의 의무가 주어진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무한 책임과 사랑은 이 시대 어르신들의 쓸쓸한 현실이다.

할머니들이 젊은 시절의 꿈과 현실을 비교하는 수다를 떨며 전개되는 스토리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와 핵가족 문제까지 암시하는 좋은 내용이었다.

연극이 끝나고 연극보다 더욱 즐겁고 여운이 오래 남는 뒤풀이가 시작되었다. 울고 웃는 와중에 혹시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배우보다 더 가슴을 졸이며 무대를 지켜봤던 관객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족들과 그동안 이들을 지도했던 관계자들이다. 가족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며 소감을 말하는 자리가 진행되었다. 어느 며느리는 무대에 섰던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 못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당신이 그런 훌륭한 연극을 할 줄 몰랐다. 지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남편이 아내를 꼭 안아줄 때는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남편, 딸, 며느리, 사위,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이 될 수 있었던 이번 무대는 연극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주었다. ‘이제 좋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다!’ 함께 연극을 준비하며 어느 새 가족이 되어버린 이들은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근사하고 멋진 ‘종파티’를 즐겼다.



1 <내 얘기 좀 들어봐 엄마! 그녀들의 이야기> 공연 무대

2 <내 얘기 좀 들어봐 엄마! 그녀들의 이야기> 공연 포스터

글 | 박상균(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어르신 기자)

강원대학교 상학과를 졸업했다. 춘천시청에서 근무 후 1992년 퇴직했다. 세경건설(주) 이사, 실버타임즈 논설위원 및 월드컵공원 숲해설가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 정강(82p, 83p_2) 사진 | 천현정(80p, 83p_1)

SFAC News

서울시창작공간 2009 송년 프로젝트 크리스마스 길몽(吉夢) 성황리에 마쳐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안호상)은 서울시창작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잇달아 문을 연 '서울시창작공간' 4개 공간에서 시민과 예술가를 위한 무료 송년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길몽(吉夢)>을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진행했다.

먼저 황학동 중앙시장의 빈 지하상가를 공예 공방으로 리모델링하여 현재 40명의 작가들이 활동 중인 '신당창작아카데미'에서는 지난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아트마켓, 체험공방, 오픈 스튜디오, 기획전, 크리스마스 설치미술 전 등 5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크리스마스 길몽>을 진행하였으며, 크리스마스 카드나 가방(에코백)을 입주작가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서울시 최초의 문학창작촌으로 개관하여 주목받은 '연희문학창작촌'도 12월 18~19일 이틀 동안 겨울문학축제 <연희와 연애하다!>를 개최했다. 영상 상영회, 문학 심포지엄, 특별강연, 시낭송회, 신간 낭독회, 미디어 실험 및 북아트 전시 등 모두 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달자, 안도현, 유종호 등 이름난 문인들이 출연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금천구 독산동의 인쇄공장에서 창작공간으로 변신, 국제 레지던시이자 공동 프로젝트 스페이스로 기능하고 있는 '금천예술공장'에서는 1970년대 그룹 사운드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복고풍 콘서트 <독산동 크리스마스>를 12월 22일 금천예술공장 내 창고동 무대에 올렸다. 독산동 주민 및 이주 노동자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 공연으로 준비된 이번 무대에는 '키보이스', '히식스' 등 당대 최고 밴드의 주인공들이 출연해 복고와 향수 어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선사했다.

홍대 앞 문화 지원 센터인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는 홍대 예술가와 지역주민을 위한 겨울 콘서트 <겨울이 보낸 편지>가 12월 26~27일 이틀 동안 열렸다.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과 기타리스트 박지원 등 역량 있는 음악인들이 출연해 대중적이고 편안한 음악들로 꾸며진 훈훈한 하우스 콘서트로 진행되었으며, 젊은 연인들을 비롯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낭만적인 시간을 선물했다.

서울문화예술탐방 감사의 밤 감사패 수여 및 여행기 공모전 시상식 진행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12월 1일 '서울문화예술탐방 감사의 밤'을 통해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며 함께 해준 사업 관계자 및 참여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감사의 밤 자리에는 제1회 서울문화예술탐방 여행기 공모전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2009 서울문화예술탐방은 총 11개의 테마로 진행되었으며, 9명의 문화 해설사, 7개의 관련기관, 27명의 시민명예스태프들이 함께하여 한 해동안 시민들과 뜻 깊은 시간을 나누었다. 문화탐방의 김경식 시인과 박물관 탐방의 박형숙 큐레이터에게 대표로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홍대 앞 재발견'을 주관한 KT&G 상상마당 측에게도 감사패가 전달됐다. 27명의 시민명예스태프들에게는 자원활동인증서를 수여하였으며, 100% 참석률을 기록한 우수 시민명예스태프 6명은 수료증 및 부상을 받았다.

제1회 서울문화예술탐방 여행기 공모전 시상식에는 서울산책코스개발건부분의 수상자 최윤정, 남형윤, 임은진, 시민탐방가의 산책일기 부분의 수상자 김가은, 손지수, 강은심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가족, 친구들이 함께 참가하여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09 서울거리아티스트

따뜻하고 행복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12월 15일, 2009년 서울거리아티스트 한 해 활동을 돌아보는 감사의 밤과 함께 활동이 우수했던 아티스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연말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2005년 서울거리아티스트가 생겨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장수 서울거리아티스트를 비롯하여 신진아티스트들까지 함께해 훈훈한 감동을 더했다.

시상에는 최우수상, 우수상, 신진아티스트상, 공로상, 우정상, 우리의 아



티스트상, 감초상, 베스트드레서상을 비롯하여 서울시 연계 행사에 기여한 아티스트에게 주는 서울시장상까지 다채로운 상이 수여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만큼은 늘 다양한 예술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서울거리아티스트들을 관객으로 초대하여 아카펠라팀의 축하공연, 스태프들의 깜짝 공연까지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2009 책 읽는 서울

평가워크숍 및 시상식 진행

12월 16일에는 책 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가 우수도서관 및 우수독서가족 시상식과 평가워크숍을 통해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천구립가산정보도서관이 최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도서관은 개포도서관, 남산도서관, 동대문도서관, 동작도서관,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구립중산정보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 성동구립금호도서관, 성동구립도서관, 성동구립무지개도서관, 성동구립용담도서관의 총 11개소가 선정되었다.

평가워크숍에서는 금천구립가산정보도서관과 성동구립도서관 컨소시엄의 우수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금천구립가산정보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한 토론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성동구립도서관 컨소시엄(성동구립도서관, 성동구립금호도서관, 성동구립용담도서관, 성동구립무지개도서관)은 컨소시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한 우수사례로 꼽혔다.

한편, 책을 통해 가족 행복의 가치를 보여주는 모범가족에게 수여하는 우수독서가족상에는 강동구립해공도서관의 소유경님 가족,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장미숙님 가족, 성메직은도서관의 오정미님 가족, 송파구립가마도서관정보센터의 김효민님 가족, 송파도서관의 만자끼 노리꼬님 가족이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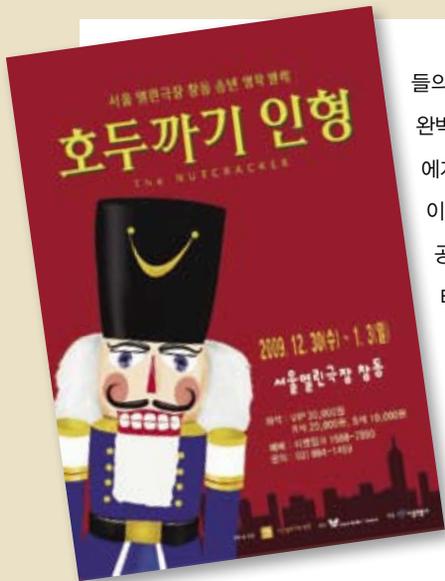


서울열린극장 창동

새해를 여는 1월 공연

송년명작발레 '호두까기 인형'

연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호두까기 인형'. 국내 최고의 안무가로 손꼽히는 제임스 전이 마리와 호두까기 왕자의 달콤하고 꿈같은 모험을 남녀노소 모두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새롭게 선보인다. 동화 속 나라에 온 듯한 화려하고 환상적인 무대와 아름다운 무용수



들의 몸짓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의 완벽한 음악이 연말을 맞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공연은 2009년 12월 30일(수)부터 3일(일)까지 매일 오후 4시. 관람료는 VIP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이며, 만 5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단, 만 5세 이상이라도 미취학 아동은 부모동반 하에 입장 가능하다.

가족동화발레 '인어공주'

1월 29일(금) 오후 3시에는 지금까지 보았던 동화발레와는 차원이 다른, 화려하고 로맨틱한 발레 '인어공주'가 무대에 오른다. 40여 명의 출연진, 화려한 의상과 생생한 바다를 표현한 실감나는 무대 등 최상의 발레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만 4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만 4세 이상이라도 미취학 아동은 부모동반 하에 입장가능하다.



*공연 관련문의 : 02-994-1469

*위 공연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울문화재단 2010 정기공모지원사업

1월 말 선정결과 발표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12월 15일 2010년 정기공모지원사업의 지원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이번 접수는 문화예술 지원서비스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10개의 세부 지원사업에 총 2,406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사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해당 장르를 고려하여 선정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총 4단계(예비심사-서면심사-심층심사-종합심사)로 시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2010년 1월 22일경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

상호협력양해각서 2건 체결

서울문화재단-일본 요코하마 시뱅크아트1929

서울문화재단은 12월 14일 일본의 대표적인 창작공간인 요코하마 시 '뱅크아트1929'(대표 오사무 이케다)와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두 단체 간 우호 증진과 문화예술 교류 협력을 위한 세부사안을 협의했다.



요코하마 시 항구에 위치한 뱅크아트1929는 역사적 건물을 활용,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고안된 요코하마 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에 개관했다. 1929년에 지어진 옛 은행건물을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이자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인 창작공간 운영의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서울문화재단의 오진이 경영혁신기획본부장과 뱅크아트1929의 오사무 이케다 디렉터가 참여했으며, 앞으로 2년간 두 기관은 양해각서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기획, 문화사업, 교육프로그램 및 인력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오진이 본부장은 뱅크아트1929에 이어 도쿄 시내에 위치한 창작공간인 도쿄원더사이트(Tokyo Wonder Site)를 방문, 유사쿠 이마무라 관장과 앞으로 두 기관의 협력 및 교류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다.

서울문화재단-(사)MK패션산업발전협회 및 (사)서울중앙시장운영회

12월 18일에는 서울시 중구 황학동 중앙시장 지하상가에 위치한 서울시 창작공간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 (사)MK패션산업발전협회(대표 윤경로) 및 (사)서울중앙시장운영회(대표 송세영)와 서울문화재단의 상호협력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있었다.

(사)MK패션산업발전협회는 동대문 지역 패션산업의 활성화와 한국산 프리미엄 패션상품 개발을 통한 한국 패션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고, (사)서울중앙시장운영회는 중앙시장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장의 번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서울문화재단은 앞으로 (사)MK패션산업발전협회와 함께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들의 아이디어 개발 및 작품 유통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교류를 시도, 예술창작과 문화산업 간의 연구협력을 추진할 계획이고, (사)서울중앙시장운영회와는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들과 시장상인들의 소통·교류를 통해 작가들의 창작영역 확대와 창작활동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서울문화재단 오진이 경영혁신기획본부장을 비롯해 (사)MK패션산업발전협회 김영문 수석이사과 (사)서울중앙시장운영 송세영 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대한민국 클린콘텐츠국민운동연합의장상 수상

서울문화재단은 사)한국사보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송공사 등이 후원하는 '2009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대한민국 클린콘텐츠국민운동연합의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본 상은 1991년에 한국 사보대상으로 시작되어 국내에서 발행되는 인쇄사보, 전자사보, 웹사이트, 특별부문, 외부기관 그리고 방송, 사사, 사진, 홍보물, 영상물, 출판물, 해외홍보제작물, 광고 및 공익캠페인, 블로그 등 18개 부문과 2개 부문의 해외상을 시상하고 있다. 국가기관 및 공·사기업과 기관, 단체 커뮤니케이션제작물을 대상으로 기업문화 발전과 관련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12월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에는 지난 12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 및 축하공연이 있었다.

서울문화재단은 재단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문화+서울』을 출판하였으며, 건강한 미디어 사용과 건전한 콘텐츠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클린콘텐츠 생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클린콘텐츠국민운동연합의장상을 수상하였다.



2월 대관 안내

서울연극센터 세미나실

서울연극센터 세미나실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기대관의 신청기간은 1월 1일부터 7일까지고, 수시대관은 사용예정일 최소 7일전까지다. 승인 여부는 11일 발표되며, 수시대관은 신청 2일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좌석 수	대관시간	비고
서울연극센터 세미나실	12석 (보조이자 24개)	화~토요일 10:00 ~ 20:00	*기타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정하는 날은 휴관입니다.
		일, 공휴일 10:00 ~ 19:00	
		월요일 휴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www.daehangno.or.kr)를 참고하거나 서울연극센터로 문의(02-743-9333)하면 된다.

대학로연습실

공연예술 창작활성화를 위해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로연습실은 총 6개의 연습실과 1개의 세미나실로 구성되어 있다.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연습실은 2개월 단위로, 세미나실은 1개월 단위로 정기대관이 진행된다. 연습실은 3·4월 정기대관 공모가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세미나실은 1월 2일부터 7일까지 2월 정기대관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가세 10% 별도)

구분	1관	2관	3관	4관	5관	6관	세미나실	
면적(m ²)	182	132	182	116	135	165	231	
대관료(원)	오전	20,000	17,000	20,000	15,000	20,000	20,000	3시간 50,000원 6시간 100,000원 9시간(전일) 150,000원 초과시간당 20,000원
	오후	28,000	23,000	28,000	20,000	30,000	30,000	
	야간	28,000	23,000	28,000	20,000	30,000	30,000	
운영시간	오전	09:00~13:00		09:30~13:30		09:00~13:00		09:00~22:00 (선택타임제)
	오후	13:30~17:30		14:00~18:00		13:30~17:30		
	야간	18:00~22:00		18:30~22:30		18:00~22:00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를 참고하거나 대학로연습실로 문의(02-747-7805)하면 된다.

1

January

구분	사업	단체	연락처	일시	장소
생활속예술지원사업					
시각	2009 아트라이브러리 캠페인-서울	대안공간 팀 프리뷰	02-337-7932	2009.12.3~2010.1.31	
	골목길 프로젝트-효자동에서 길을 찾다	갤러리 콘스트독	02-722-8897	2009.3.15~2010.1.14	갤러리 콘스트독
	공연, 발표, 120회부터 150회까지 독립영화 발표회	독립영화협의회	02-2237-0334	2009.9.4~2010.1.29	영화진흥위원회 시사실
문화일반	시각장애우를 위한 소리, 감각 체험 워크숍 "소리로 보는 세상"	보이스씨어터 뭉MOM 소리	02-889-3558	1.13~1.27	
	배우가 들려주는 소설	극단 이루	02-747-3226	2009.12.8~2010.1.29	선돌극장
	[엄마, 내가 예술영재예요] 교육 및 발표	(사)한국여성문화예술인총연합	02-764-4604	2009.12.21~2010.1.16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한국화	민병권 수묵화전	민병권	070-8118-7691	1.20~1.26	가나아트센터
설치 퍼포먼스	박해성 개인전	박해성	02-3141-7445	1.21~2.14	트렁크 갤러리
사진, 영상, 설치	유현미 개인전 : Bleeding Blue	최지에	02-396-8356	11.19~1.17	몽인아트센터
사진	장석준 개인전	장석준	02-2644-4167	1.21~2.7	텔레비전12
설치, 영상	정정주 개인전 : 응시의 도시-서울	정정주	031-824-0408	1.7~2.2	갤러리 조선
설치	novel project 01 : 이준호 ()를 찾습니다	이대범		2009.12.29~2010.1.21	테이크아웃드잉
퍼포먼스	활극도 긴장도 농담도 없는 내러티브	김철식		2009.12.19~2010.1.9	통의동보안여관
설치	순환의 여행. 방주와 강목사이 2009	차기울		1.22~2.4	갤러리 콘스트독
전시	임선이 개인전	임선이		2009.12.22~2010.1.14	갤러리 차
건축, 미술	어반드로잉스 : 주거의 감각 Urban Drawings : Sense of Dwelling	리슨투데이	02-916-8652	1.29~2.12	갤러리 꽃
회화 미디어 설치	POINT 2010	대안공간 루프	02-3141-1377	1.9~1.24	교토아트센터
미디어	신진 작가 릴레이 쇼 지원 프로젝트	언더그라운드 아트채널	070-7555-1138	2009.5.1~2010.1.31	오프도시
한국화	박선희 개인전 : 사유의 드로잉	박선희	02-827-7584	1.27~2.2	갤러리 이즈 2층
동양화(웃칠화)와 부분설치	정채희 개인전 (에밀레의 방)	정채희	02-379-1312	2009.12.17~2010.1.16	화이트홀 갤러리
조각	삐딱하게 서있기	전강욱	02-388-0663	1.27~2.9	그림슨 갤러리
설치, 영상, 미디어	The story of two cities : 두 도시의 이야기	최안나	12.21~2010.1.3	2009.12.21~2010.1.3	갤러리 반디
양화	이문주 개인전 : Cruise	이문주	02-6264-2700	2009.12.22~2010.1.24	갤러리 로얄
설치, 사진, 영상	Lev Kiss (레브 키스) : 심장에 입맞추다	빨간블라우스	02-337-5134	2009.12.18~2010.1.17	갤러리 imazoo
동양화, 서양화, 설치, 영상 등 현대미술	원더렌즈 Wonder Lens	김민경	031-761-0137	2009.12.24~2010.1.5	갤러리 도어
무용	안신희 Contemporary Dance	안신희	016-444-2079	1.22~1.23	아르코 대학로 복합공간 안애순무용단
현대무용	안애순 무용단 레퍼토리 공연 : 뿌리, 여백, 찰나	안애순무용단	02-522-5476	1.21~1.22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음악극	2009 아르코예술극장 공동기획 : 서울의 착한 여자	극단 여행자	02-3673-1392	2009.12.18~2010.1.3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아동극	싱크로나이즈	하명세	02-955-8324	2009.12.24~2010.1.7	블랙박스 씨어터
정극	우리 모두 바다로 간다-고래상어	극단 제제	02-763-2855	1.7~1.31	스튜디오 76
정극	엄마들의 수다	극단 동송레퍼토리	02-766-3444	2009.12.11~2010.2.28	동송아트센터 소극장
관현악	한국원로교향악단 제7회 정기연주회	한국원로교향악단	02-3474-9214	1.17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생활속예술지원사업

■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 2010공연창작활성화지원사업

■ 서울열린극장 창동 공연

■ 남산예술센터 극장 공연

■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연 및 전시

■ 2009 서울빛축제 프로그램

구분	사업	단체	연락처	일시	장소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연극	눈먼 아비에게 길을 묻다	극단 이루	02-747-3226	2009.9.25~2010.1.3	선돌극장
	13월의 길목	극단 수	02-2055-1139	2009.12.3~2010.1.3	행복한 극장
	바냐 아저씨	극단 전망	02-762-0010	1.2~1.17	문화공간 이다 1관
	루시드 드림 (Lucid Dream)	극단 청우	02-764-7064	1.12~1.31	소극장 산울림
	미리내	연극집단反	02-764-7501	1.15~1.31	우석레퍼토리극장
무용	2009 백영태 발레 류보브 : 미친사랑의 노래	백영태발레류보브	02-2272-2152	1.24~1.30	마포아트센터 대공연장
	국수후의 춤극 : 明成皇后	(사)국수후디딤무용단	421-4797	1.29~1.30	명동예술극장
	김선희 발레단 '2009 인어공주'	김선희발레단	3661-5200	1.29~1.31	창동예술극장

2010공연창작활성화지원사업					
뮤지컬	빨래	명랑씨어터수박	02-929-3335	2009.7.24~2010.1.3	학전그린소극장
연극	고래	극단 백수광부	02-813-1674	2009.12.31~2010.1.17	정보소극장

서울열린극장 창동 공연					
	송년영자발레 '호두까기 인형'		02-994-1469	2009.12.30~2010.1.3 16시	서울열린극장 창동
	가족동화발레 '인어공주'		02-994-1469	1.29 15시, 1.30 15시/19시30분, 1.31 15시	서울열린극장 창동

남산예술센터 극장 공연					
	설공찬전	극단 신기루만화경	1544-1555	1.8~1.17 화~금 8시, 토 4시/7시, 일 3시	남산예술센터
	호야	극단 죽도록달린 L L L L 다	1544-1555	1.23~1.31 화~금 8시, 토 4시/7시, 일 4시 *첫날 낮공연 없음	남산예술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연 및 전시					
워크숍	날아라, 멀티컬처 히어로		02-333-0246	2009.12월~2010.2월 매주 수요일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 및 공연	텍스트 미디어와 날다		02-333-0246	2010.1월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강의	미디어아트 & 컬처클래스		02-333-0246	2009.12월~2010.2월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2009 서울빛축제 프로그램					
	개막식			2009.12.19 18시	광화문광장
	Zone 1 Red 역사의 빛-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			2009.12.19~2010.1.24 평일 15시~16시, 17시~18시, 주말 13시~14시, 15시~16시, 17시~18시	이순신장군 동상 앞 특설전시장
	Zone 2 Blue 문화의 빛-세종문화회관의 '미디어 파사드'			2009.12.19~2010.1.24 매일 19시~22시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투사
	Zone 3 Green 소통의 빛-KT 빌딩의 '미디어 파사드'			2009.12.19~2010.1.24 매일 19시~22시	KT 빌딩 외벽에 투사
	Zone 4 White 창조의 빛-빛의 광장, L-Square			2009.12.19~2010.1.24 평일 15시 주말 13시부터 운영	이순신장군 동상~광화문광장 중앙광장, 해치마당
	Zone 5 휴식의 빛-스케이트			10시~22시 주말 및 공휴일 연장운영	광화문광장
	희망서울 2010			2009.12.11~2010.1.31 축제기간 내 상설전시	서울광장 시청사
	세계디자인수도 서울이야기			2009.12.18~2010.1.17 축제기간 내 상설전시	서울광장
	서울광장 겨울이야기			2009.12.19~2010.2.15	서울광장
	그린산타 & Happy New Year~			2009.12.19~2010.1.31 축제기간 내 상설전시	청계광장 및 청계천 분수~팔석담
	더 라이트(신진아티스트 디자인展)			2009.12.21~2010.1.3 13시~22시	청계광장



Best & Next

2009 대학로 문화활성화 지원사업

1st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 극단 신기루만화경 **설공찬전** 2010. 1. 8 ~ 1. 17
- 극단 죽도록 달린 나나나 **호야** 2010. 1. 23 ~ 1. 31
- 극단 竹竹 **맥베드** 2010. 2. 5 ~ 2. 21
- 극단 서울공장 **도시녀의 칠거지악** 2010. 2. 26 ~ 3. 7



2010. 1. 8 ~ 3. 7



남산예술센터

공연문의 인터파크 1544-1555

주최 한국문화재단, 국립죽도록달린나나, 극단 竹竹, 극단 서울공장, 남산예술센터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센터

빛으로 보는 겨울여행,
디자인수도 서울 2010
Seoul, Delightful City

2009 Seoul Festival of Lights
2009 서울빛축제
2009.12.19 ~ 2010.1.24

빛과 디지털, 예술의 만남

개막식

2009.12.19(토) 18:00

광화문광장

- 역사의 빛**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
- 문화의 빛** 세종문화회관 '미디어 씨어터'
- 소통의 빛** KT빌딩 '미디어 퍼포먼스'
- 창조의 빛**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빛의 방'
- 휴식의 빛** 광화문광장 스케이트장

www.hiseoulfest.org

주최·주관



문의



전화번호 190
(서울지역 지역번호 02-120)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내 사연이 광화문 광장에!



메시지접수 축제 홈페이지 및 관련 사이트(2009.12.10~12.25) | **메시지상영** 크리스마스 메시지(12.22~12.26) / 새해맞이 메시지(12.29~1.3) | **장소** KT빌딩 미디어파사드
특별이벤트! 깜짝 사랑 고백, 새해 소망, 몽클한 사연 등 '크리스마스'와 '새해맞이'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전해주세요~ KT빌딩에 예쁜 카드 이미지와 함께 상영해 드립니다.



하이서울 비닐봉지, 인두, 10m x 6m, 2008

‘하이서울’은 수천 개의 비닐봉지를 이어 만든 평면 설치물이다. 글자의 배경부분은 비닐봉지 손잡이 부분을 묶어서 평평하게 만든 것이고, 글자 부분은 그것을 풀어서 만든 것이다. 비닐봉지는 버려진 것들과 소외된 것들의 고단함을 대신하지만, 그 존재의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함성 ‘하이서울’을 외치고 있다.

고 승 욱

개인전

2000 <레드후라이드치킨> 대안공간 풀

1997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시오> 관훈미술관

단체전

2008

<제7회 광주 비엔날레 ‘연례보고’전> 광주비엔날레관

<동두천 : 기억을 위한 보행, 상상을 위한 보행>

- New Museum of Contemporary Art, New York, 인사미술공간, 서울

2007

<한국의 행위미술 1967-2007>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과천)

<민중의 고통 : 한국미술의 리얼리즘1945-2005> 반다이지마 미술관,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 (일본)

<Around Questions of Urbanity 2007 아르코 주빈국행사> (스페인, 마드리드)

<FAST BREAK> PKM gallery (중국, 베이징)

<동아시아의 목소리> 대안공간 풀 (서울)